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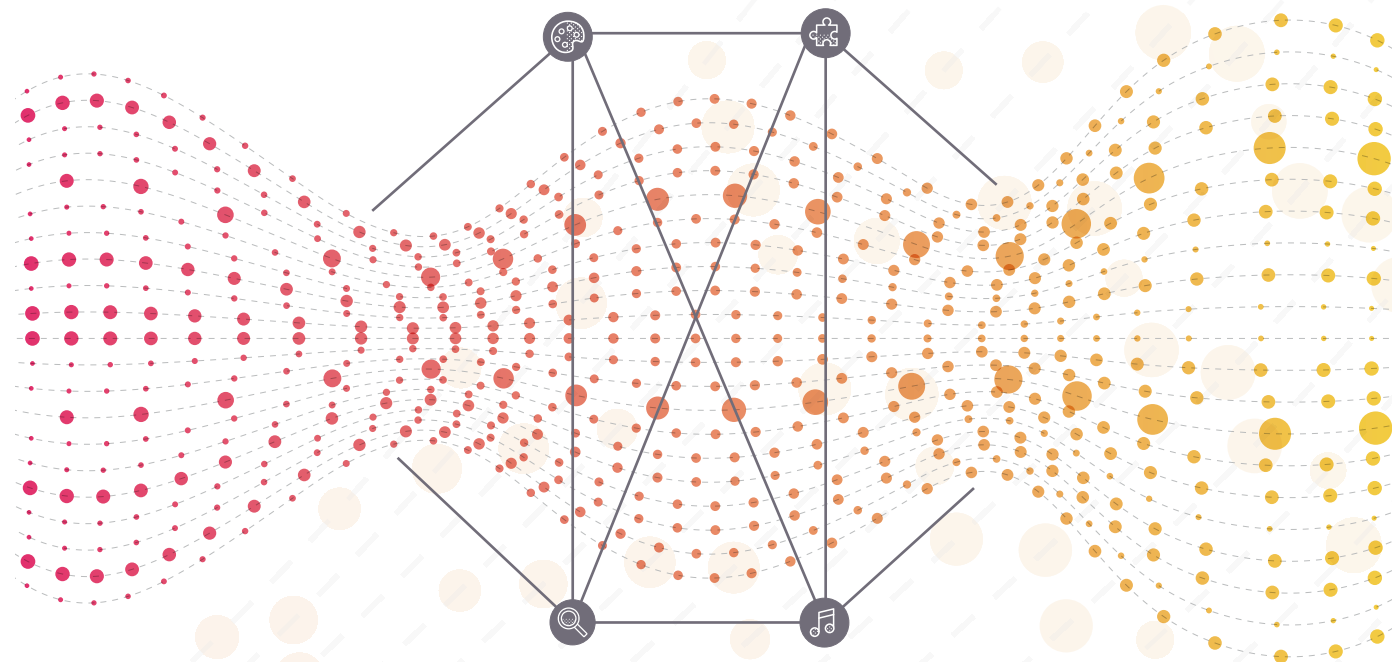
2014  
공공 · 민간  
예술지원 실태조사

2014 공공 · 민간 예술지원 실태조사

발 간 등 록 번 호

11-1371000-000684-01

2014  
공공 · 민간  
예술지원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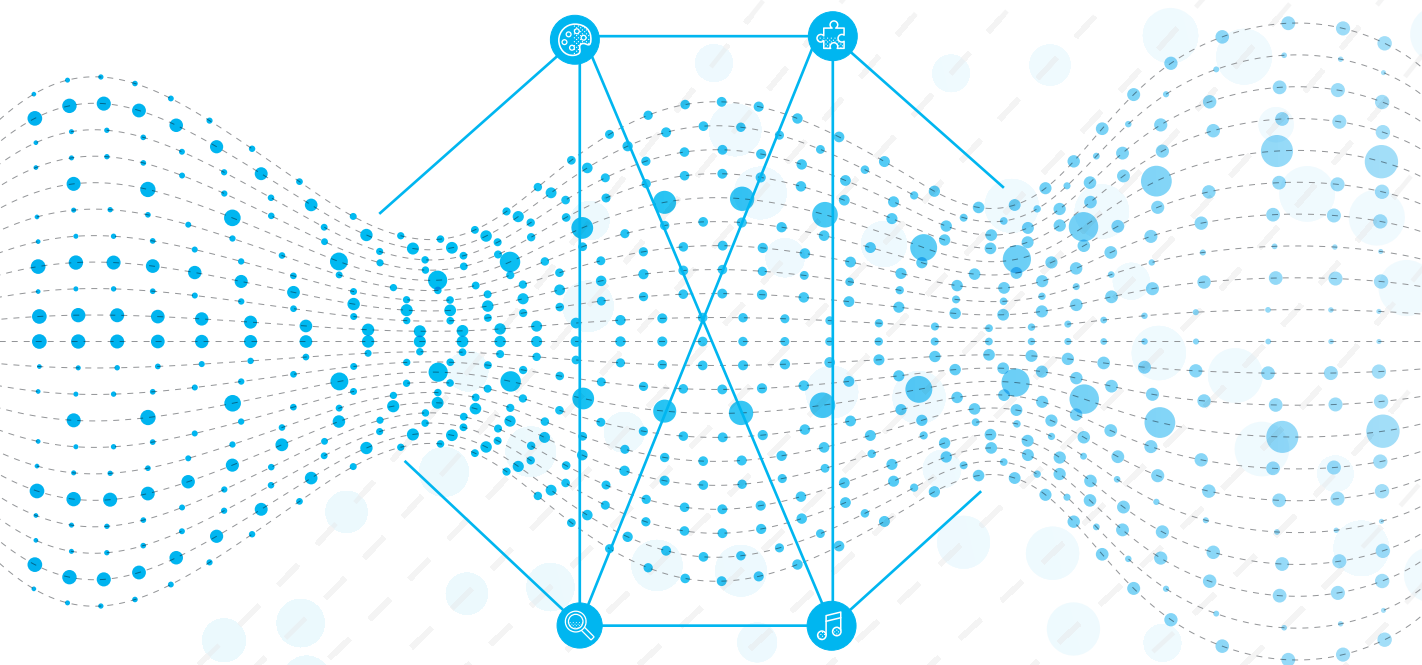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371000-000684-01

# 2014

## 공공 · 민간 예술지원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2014 공공·민간 예술지원 실태조사」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1월

추계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

---



---

# 연구진

## 책임연구원

안성아(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

## 공동연구원

박영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서영덕(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

손지현(KAIST 경영공학 박사)

한윤선(추계예술대학교 박사과정)

## 연구보조원

최영한(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과정)

김찬미(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석사 과정)

이승연(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과정)

정혜진(추계예술대학교 영상비즈니스과 학사 과정)

연구기관: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조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기타문화재단 조사)

---

# CONTENTS

## 요약

###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3
가. 연구 배경	3
나. 연구 목적	5
2. 조사범위	7
가. 예술 장르 범위	7
나. 지원사업 범위	8
다. 조사기관 범위	8
3. 조사절차	10
가. 공공부문 조사절차	10
나. 민간부문 조사절차	10

### 제2장 조사설계

1. 공공부문 조사설계	15
가. 공공부문 지원체계	15
나. 공공부문 지원구조	20
다. 공공부문 조사범위	22
라. 사업유형화	25
마. 조사방법 및 자료수집	28
바. 총규모 산출 방법	29
2. 민간부문 조사설계	30
가. 민간부문 지원체계	30
나. 민간부문 조사범위	32
다. 조사방법 및 자료수집	34

### 제3장 공공부문 예술지원

1. 공공부문 총규모	43
가. 총 지원규모	43
나. 지원구조	44
2. 지원주체별 지원규모	49
가. 문화체육관광부	49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술지원기관	53
다. 광역자치단체	57
라. 기초자치단체	61
마. 광역문화재단	63
바. 기초문화재단	66
3. 사업유형별 지원규모	67
가. 창작 지원	67
나. 유통/매개 지원	68
다. 교육 및 향유 지원	69
라. 예술가 복지 지원	70
마. 하드웨어 건립	71
바.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72
사. 예술형 지역재생	73
4. 지역별 지원규모	74
가. 지역별 총규모	74
나.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규모	75
다. 지역별 예술지원 예산 비중	77
5. 기타 분석	78
가. 공공투입 대 시장지원	78
나. 예술시설 건립 및 운영 지원	80
다. 예술행사 운영 및 지원	82
6. 2013년, 2014년 지원규모 비교	84
가. 지원주체별 비교	84
나. 사업유형별 비교	85

### 제4장 민간부문 예술지원

1. 민간부문 총규모	93
2. 기업 및 기업재단 지원규모	94
가. 기업 및 기업재단 지원규모	94
나. 기업 지원활동 세부현황	98
다. 기업재단 지원활동 세부현황	101
라. 2013년 2014년 지원규모 비교	104
3. 기타재단 지원규모	106
가. 기타재단 지원규모	106
나. 기타재단 특성	108
다. 기타재단 지원활동 세부현황	111
4. 개인일반기부 지원규모	114
가.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개인기부금 총규모	114
나. 예술나무운동 정기 후원금 총규모	116
다. 크라우드 펀딩 후원금 총규모	117

### 제5장 시사점

1. 조사결과와 의미	121
가. 공공부문	121
나. 민간부문	123
2.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	125
3. 조사방법 개선에 대한 시사점	129

부록	131
1. 조사대상 목록	133
2. 설문지	136

참고문헌	142
------	-----

## 표 목차

### ○ 제1장 | 서론

표 1-1	문화체육관광부 최근 5년간 재정	4
-------	-------------------	---

### ○ 제2장 | 조사설계

표 2-1	예술지원사업 담당 부처 및 소관기관	15
표 2-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기관	17
표 2-3	2014년 지역별 문화재단 현황	19
표 2-4	공공부문 조사대상	22
표 2-5	지원사업 세부유형	26
표 2-6	예산서 구조	28
표 2-7	민간 지원주체별 주요 지원 형태	31
표 2-8	민간부문 조사범위에 해당하는 장르	32
표 2-9	기업과 기업재단 지원사업 세부 유형	33
표 2-10	기타재단 조사설계	35
표 2-11	기타재단 설문지 조사내용	36
표 2-12	조사대상 클라우드 펀딩 업체	38

### ○ 제3장 | 공공부문 예술지원

표 3-1	전체 사업유형별 금액과 비율	48
표 3-2	문화체육관광부 직접 실행 사업유형별 금액과 비율	52
표 3-3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술지원기관 직접 실행 사업유형별 금액과 비율	56
표 3-4	광역자치단체 직접 실행 사업유형별 금액과 비율	60
표 3-5	기초자치단체 직접 실행 사업유형별 금액과 비율	62
표 3-6	광역문화재단 자체사업유형별 금액과 비율	64
표 3-7	광역문화재단 자체사업 비중	65
표 3-8	창작 지원 실행주체별 금액과 비율	67
표 3-9	유통/매개 지원 실행주체별 금액과 비율	68
표 3-10	교육 및 향유 지원 실행주체별 금액과 비율	69
표 3-11	예술가 복지 지원 실행주체별 금액과 비율	70
표 3-12	하드웨어 건립 실행주체별 금액과 비율	71
표 3-13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실행주체별 금액과 비율	72
표 3-14	예술형 지역재생 실행주체별 금액과 비율	73

### ○ 제4장 | 민간부문 예술지원

표 4-1	2014년 민간부문 예술지원 총규모	93
표 4-2	기업 및 기업재단 조건부 기부 규모	95
표 4-3	기업: 사업유형별 지원규모	98
표 4-4	기업: 장르별 지원규모	99
표 4-5	기업: 사업유형에 따른 장르별 지원금 비중	99
표 4-6	기업: 지원방식별 지원규모 비중	100
표 4-7	기업: 지원내용별 지원규모	100
표 4-8	기업재단: 사업유형별 지원규모	101
표 4-9	기업재단: 장르별 지원규모	102
표 4-10	기업재단: 사업유형에 따른 장르별 지원금 비중	102
표 4-11	기업재단: 지원방식별 지원규모 비중	103
표 4-12	기업재단: 지원내용별 지원규모	103
표 4-13	기업 및 기업재단 지원금액 비교	104
표 4-14	기업 및 기업재단 지원건수 비교	104
표 4-15	기업 및 기업재단 건당 평균 지원금 비교	105
표 4-16	기업 및 기업재단 조건부 기부 규모 비교 (전체)	105
표 4-17	기업 및 기업재단 조건부 기부 규모 비교 (개별)	105
표 4-18	설문응답현황	106
표 4-19	2014년 기타재단 지원규모	107
표 4-20	응답 기타재단 일반정보	108
표 4-21	기타재단 지원사업 지원방식	112
표 4-22	전문예술법인·단체 개인기부금 규모	114
표 4-23	전문예술법인·단체 개인기부금 상세 현황	115
표 4-2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나무운동 개인의 정기 후원금 규모	116
표 4-25	2014년 문화예술분야 클라우드 펀딩 시장규모	117

## 그림 목차

### ○ 제1장 | 서론

그림 1-1	문화체육관광부 최근 5년간 문화예술부문 재정	3
그림 1-2	기업 및 기업재단 문화예술지원 추이	4
그림 1-3	국내 문화예술 산업의 모형	7
그림 1-4	공공·민간 예술지원 전달흐름	9
그림 1-5	조사절차도	11

### ○ 제2장 | 조사설계

그림 2-1	문화체육관광부 조직도	16
그림 2-2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 구조	17
그림 2-3	공공부문 예술지원 전달흐름	20
그림 2-4	공공부문 조사대상 (지원주체 및 사업목적에 의한 구분)	24
그림 2-5	사업 세부유형 분류 순서도	27
그림 2-6	지원주체 간 예산 이전 구조	29
그림 2-7	총 지원규모 계산식	29
그림 2-8	민간부문 예술 지원구조	31
그림 2-9	민간부문 조사대상별 조사방법	34

### ○ 제3장 | 공공부문 예술지원

그림 3-1	2014 총 지원규모	43
그림 3-2	예술지원 예산의 출처와 실행 비중	44
그림 3-3	예산 흐름도	45
그림 3-4	전체 사업유형별 비중	47
그림 3-5	전체 사업 세부유형별 비중	47
그림 3-6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유형	49
그림 3-7	문화체육관광부 사업(타기관 이전 포함) 유형화	49
그림 3-8	문화체육관광부 타기관 이전 금액 사업유형화	50
그림 3-9	문화체육관광부 타기관 이전 금액 사업 세부유형화	50
그림 3-10	문화체육관광부 사업(타기관 이전 제외) 유형화	51
그림 3-11	문화체육관광부 사업(타기관 이전 제외) 세부유형화	51
그림 3-12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 사업유형화	53
그림 3-13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 사업(타기관 이전 포함) 유형화	53

그림 3-14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 타기관 이전 금액 사업유형화	54
그림 3-15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 타기관 이전 금액 사업 세부유형화	54
그림 3-16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 사업(타기관 이전 제외) 유형화	55
그림 3-17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 사업(타기관 이전 제외) 세부유형화	55
그림 3-18	광역자치단체 사업유형화	57
그림 3-19	광역자치단체 사업(타기관 이전 포함) 유형화	57
그림 3-20	광역자치단체 타기관 이전 금액 사업유형화	58
그림 3-21	광역자치단체 타기관 이전 금액 사업 세부유형화	58
그림 3-22	광역자치단체 사업(타기관 이전 제외) 유형화	59
그림 3-23	광역자치단체 사업(타기관 이전 제외) 세부유형화	59
그림 3-24	기초자치단체 사업유형화	61
그림 3-25	기초자치단체 사업 세부유형화	61
그림 3-26	광역문화재단 자체사업유형화	63
그림 3-27	광역문화재단 자체사업 세부유형화	63
그림 3-28	기초문화재단 사업유형화	66
그림 3-29	기초문화재단 사업 세부유형화	66
그림 3-30	창작 지원 실행주체	67
그림 3-31	유통/매개 지원 실행주체	68
그림 3-32	교육 및 향유 지원 실행주체	69
그림 3-33	예술가 복지 지원 실행주체	70
그림 3-34	하드웨어 건립 실행주체	71
그림 3-35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실행주체	72
그림 3-36	예술형 지역재생 사업 실행주체	73
그림 3-37	지역별 지원규모	74
그림 3-38	기초자치단체와 광역(광역자치단체+ 광역문화재단) 지역별 지원규모	75
그림 3-39	광역(광역자치단체+광역문화재단) 지역별 지원 비중	76
그림 3-40	기초자치단체 지역별 지원 비중	76
그림 3-41	광역자치단체 전체 예산 대비 예술지원 금액 비중	77
그림 3-42	기초자치단체 전체 예산 대비 예술지원 금액 비율	77
그림 3-43	지원주체별 공공투입과 시장지원 비교 분석	78
그림 3-44	시장지원 주체별 분석	79

## 그림 목차

<b>그림</b> 3-45	지원주체별 하드웨어 건립과 하드웨어 운영 비교 분석	80	<b>그림</b> 4-3	기업 지원금 분포도	96
<b>그림</b> 3-46	지원주체별 예술시설 건립/운영 분석	81	<b>그림</b> 4-4	기업재단 지원금 분포도	96
<b>그림</b> 3-47	지원주체별 예술행사 운영과 예술행사 지원 비교 분석	82	<b>그림</b> 4-5	기타재단의 지원규모 및 기업재단과의 비교	106
<b>그림</b> 3-48	지원주체별 예술행사 운영/지원 분석	83	<b>그림</b> 4-6	기타재단의 문화예술분야 지원금액별 재단 수	107
<b>그림</b> 3-49	지원주체별 사업실행비	84	<b>그림</b> 4-7	기타재단의 문화예술분야 지원건수별 재단 수	107
<b>그림</b> 3-50	유형별 사업실행비	85	<b>그림</b> 4-8	기타재단 근로자수 및 소재지	109
<b>그림</b> 3-51	문화체육관광부 유형별 사업실행비	86	<b>그림</b> 4-9	기타재단 주 사업분야	109
<b>그림</b> 3-52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 유형별 사업실행비	87	<b>그림</b> 4-10	기타재단 2014년 수지현황	110
<b>그림</b> 3-53	광역자치단체 유형별 사업실행비	88	<b>그림</b> 4-11	기타재단 지원사업 유형	111
<b>그림</b> 3-54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사업실행비	89	<b>그림</b> 4-12	기타재단 지원사업 장르	112
<b>그림</b> 3-55	광역문화재단 유형별 사업실행비	90	<b>그림</b> 4-13	자체기획 여부에 따른 사업유형 및 장르	113
			<b>그림</b> 4-14	지원내용에 따른 사업유형 및 장르	113

## 제4장 | 민간부문 예술지원

<b>그림</b> 4-1	2014년 기업 및 기업재단 지원규모	94
<b>그림</b> 4-2	2014년 예술지원 기업 수 및 기업재단 수	95





2014

공공·민간 예술지원 실태조사

## 요약





## I 연구 배경

### 1. 연구 배경

- 예술지원 재원 구조의 변화
  -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증가, 지역문화재단 설립 가속화,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방식 다양화 등 공공과 민간 차원에서 예술지원 확대 추세를 보임
  - 예술지원 재원과 지원주체가 확대되면서 재원사용의 효율성 및 지원주체별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예술지원 현황에 대한 자료는 미흡한 상황임
- 정책개발 및 평가를 위한 지원현황 통계 필요성
  - 현 정부의 '문화예산 2%' 발표에 따라 예술계에서는 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으나 이후 실망감도 늘어나면서 이해관계자 간 인식의 편차를 보임
  - 정책 공급자와 수혜자 간 발전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예술지원 현황을 반영한 객관적 데이터 구축이 필요함
  -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내세운 정부 차원에서도 새로운 예술 정책을 개발하고 과거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원현황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요구됨

### 2. 연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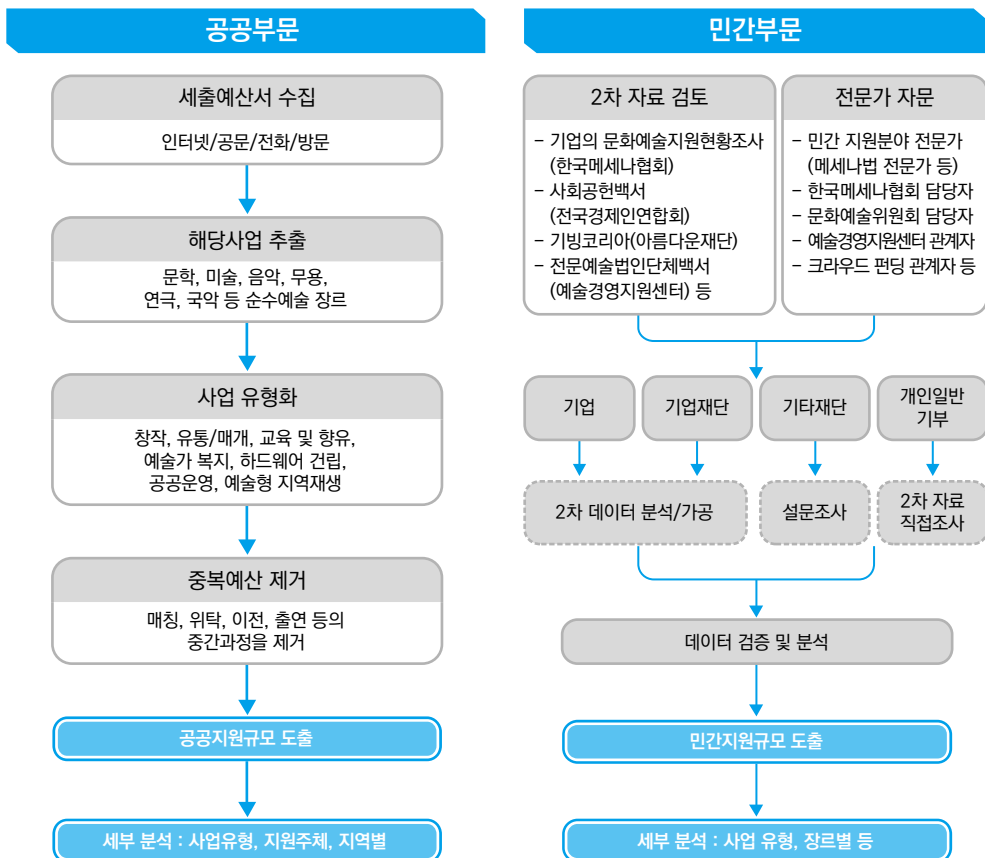
- 공공·민간 예술지원 현황 파악
  - 공공과 민간부문의 문화예술지원기관 및 지원사업 현황을 조사하여 국내 예술지원 총규모 및 지원구조 흐름, 지원사업 통계를 산출하고자 함
  - 지원주체별, 사업내용별, 지역별 예술 지원규모 및 특성을 분석하고자 함
- 예술지원 현황조사를 위한 조사설계 보완
  - <2012~2013 공공·민간 예술지원 현황조사> 연구의 조사대상 확대, 조사방식 보완, 사업유형 체계화, 세부분석 수행 등 조사설계를 보완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예술지원에 관한 시계열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현 예술지원기관 및 조사기관과의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예술지원 정책 수립에 시사점 제공
  - 공공·민간부문의 예술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기반으로 다변화되고 복잡해진 예술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 제안
  - 지속적 예술현황 조사 필요성과 이를 통해 이끌어낼 수 있는 시사점 도출

### 3. 조사절차

- 공공부문은 조사기관의 세출예산서를 기반으로, 민간부문은 2차 자료 분석과 직접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총 지원규모 및 세부분석을 수행함

그림 | 공공·민간부문 조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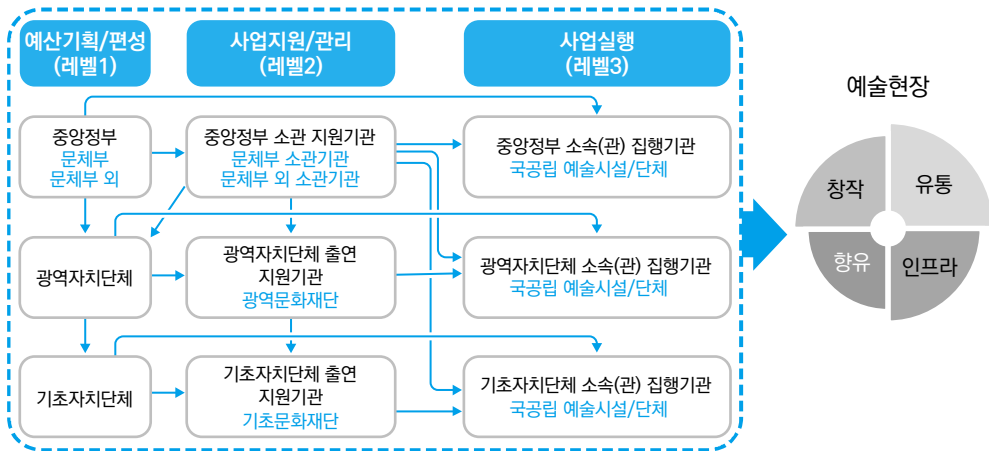
## II 조사설계

### 1. 공공부문 조사설계

#### 가. 조사기관 범위

- 공공부문 조사기관 범위는 공공부문의 문화예술지원기관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기획/편성 기관’, ‘사업지원/관리 기관’, ‘사업실행 기관’을 포함함(이후 레벨1, 레벨2, 레벨3으로 명명)
- 레벨1: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예산을 기획/편성하는 주체로 중앙정부(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이에 해당됨
- 레벨2: 문화예술지원사업을 지원/관리하는 주체로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 광역문화재단 등이 해당됨
- 레벨3: 최종 수혜자에게 예술 사업을 직접 실행하는 주체로 국공립문화시설(예술의 전당 등), 국공립예술단체(국립발레단 등)이 대표적 기관임

그림 | 공공부문 문화예술 지원 전달흐름



- 위 지원체계 중 예산서 수집 범위는 레벨1과 레벨2에 속한 기관으로 한정
- 레벨3의 기관들은 상위 기관에 예결산 보고를 하므로 조사범위 내 기관을 통해 레벨3의 지원금 내역 파악
  - 기초문화재단은 개념상 레벨2이나 시설관리 비중이 높아 레벨3로 간주하여 총규모를 산정하였으며, 기초문화재단 예산서는 사업유형 구분을 위해 사용됨
- 레벨1과 레벨2의 경우 경상운영비는 제외하고 사업비를 조사범위로 하되, 레벨3의 경우 경상운영비 자체를 예술지원으로 보고 포함시킴

표 | 공공부문 조사대상

구분	지원기관	개수
정부 (레벨1)	중앙정부(문화체육관광부)	1
	광역자치단체	17
	기초자치단체	229
	소계	247
소관기관 (레벨2)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	7
	광역문화재단	13
	기초문화재단	50
	소계	70
계		317

## 나. 재원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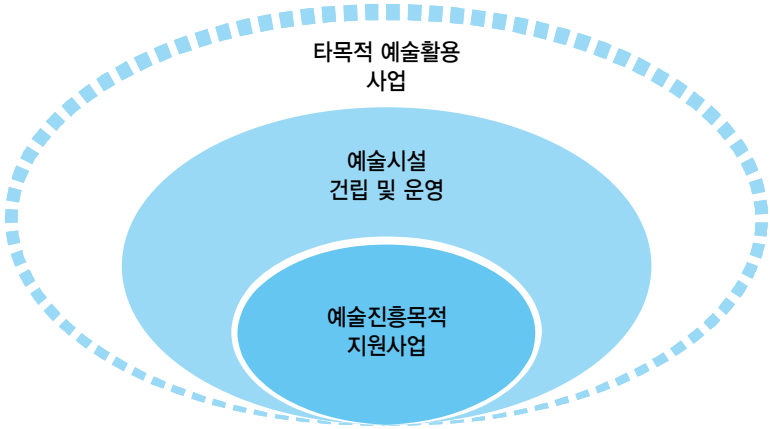
- 문체부 예산서 기준 문화예술부문 중 일반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문화예술진흥기금(문예기금)을 포함
  - 영화발전기금 등 조사대상 장르와 관련 없는 예산 및 기금은 제외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문화예술과(국), 문화예술정책과(국) 등 문화예술과 하위 사업을 모집단으로 두고 사업별 예산을 파악
  - 단, 시설(문화예술회관, 미술관 등) 예산은 타부서에 있는 경우에도 포함

## 다. 예술 장르 범위

- 예술 장르 중에서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 비상업적 성격이 강한 예술 장르 지원사업을 조사범위로 규정함
  - 제외 장르는 건축, 박물관, 도서관, 출판, 콘텐츠(영화, 게임 등), 문화재 등임
  - 민속놀이, 예절교육(충효교실, 예절문화교육 등), 향토문화, 정월대보름제 등 예술 장르로 보기 어려운 사업도 제외시킴
  - 단, '교육 및 향유 지원' 사업 중 장르가 혼합된 사업의 경우 콘텐츠 장르도 부분 포함됨

## 라. 사업 범위

- 사업목적 상 '예술진흥 목적'의 지원사업과 '예술시설 건립 및 운영' 사업을 조사범위로 함
  - 구체적으로 창작지원, 유통지원, 교육지원, 향유지원, 예술가 복지, 예술시설건립 및 운영 지원, 예술진흥형 지역재생 등이 포함됨
  - 예술이 활용되었지만 예술진흥 외의 목적으로 수행된 사업(예. 재래시장 지원,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은 모두 제외함



마. 사업유형화

□ 조사대상 예술지원사업은 아래와 같이 8개의 대유형과 28개의 세부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

표 | 지원사업 유형

창작 지원	작품(프로그램)지원	예술가 복지 지원	예술인복지지원
	예술단체지원		예술인력양성
	예술인지원		공연장건립
	창작공간지원		미술관건립
유통/매개 지원	공연장지원	하드웨어 건립	기타예술시설건립
	미술관지원		복합시설건립
	기타예술시설지원		공연장운영
	예술행사지원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미술관운영
	국제예술교류지원		기타예술시설운영
	예술정보소통		공연단체운영
교육 및 향유 지원	예술향유지원		예술축제운영
	생활예술지원		예술교육기관운영
	문화예술교육		복합시설운영
예술형 지역재생	예술형 지역재생	기타	기타

## 바. 조사절차

- 조사대상 기관의 세출예산서를 취합하여 예술지원사업을 조사함
  -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 등 317개 예술지원 기관의 세출예산서(본예산서 기준)를 전수 조사, 조사범위에 해당하는 세부사업 선별, 해당 예산 파악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술지원기관 중 일부는 결산서의 정보가 예산흐름 파악에 더 유용하여 결산서를 조사함
- 총 지원규모 도출 및 지원주체별, 사업내용별, 지역별 분석 수행
  - 총 지원규모는 조사범위에 해당하는 사업별 지원액을 지원주체별로 합산하고 기관간 이전으로 인해 중복되는 예산(예.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광역 매칭, 출연금 등)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집계함

## 2. 민간부문 조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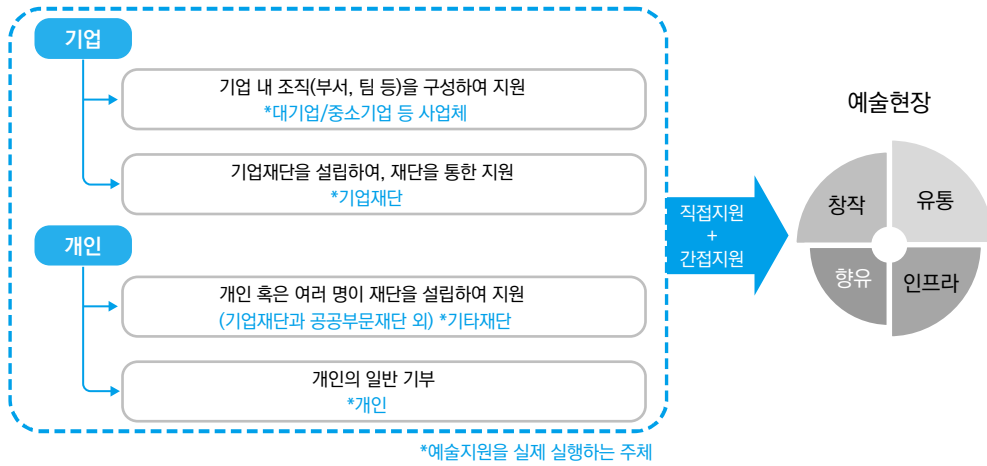
### 가. 지원주체 범위

- 민간부문의 조사대상은 ‘기업’, ‘기업재단’, ‘기타재단<sup>1)</sup>’, ‘개인(일반기부)’을 포함
  - 민간부문은 지원주체에 따라 기업과 개인으로 구분. 기업에 의한 지원은 기업에서 직접 사내에 조직(부서, 팀 등)을 구성하여 지원하는 경우와 ‘기업재단을 법인형태로 설립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로 구분됨. 개인에 의한 지원은 개인 또는 여러 발기인이 재단을 설립하여 지원하는 경우와 순수 개인의 일반 기부로 나뉨
  - 기업과 기업재단 조사대상은 매출 기준 상위 500대 기업 및 기업재단으로 함
  - 기타재단은 문체부를 주무관청으로 등록한 재단(공공재단과 기업재단 제외) 64개를, 개인기부는 전문 예술법인·단체 기부자, 예술나무운동 후원자, 문화예술 분야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후원자를 조사 대상으로 규정함

1) 본 보고서에서는 기업 출연 재단이나 공공부문 재단 이외에 개인 혹은 여러 발기인(단체)이 출연한 재단을 ‘기타재단’으로 칭함



그림 | 민간부문 예술지원 구조



#### 나. 장르 및 사업 범위

- 조사대상 예술 장르는 순수예술로 한정함
  - ‘국악’, ‘서양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미술’, ‘문학’, ‘전통예술’,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운영’ 등이 조사범위에 포함됨
- 조사대상 지원사업은 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예술시설 운영으로 하며 아래 6가지 세부 유형을 포함함

표 | 예술지원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세부 유형

예술목적차원: 주요 세부 유형
예술영재 지원 활동
문화예술 단체 순수 지원
문화예술 시설 운영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또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전개
예술가 또는 문화예술행사의 협찬/후원

#### 다. 조사절차

- 조사방법은 2차 자료 분석과 직접설문조사 병행
  - 조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기업, 기업재단, 개인기부는 2차 자료를 수집, 분석함
    - 기업과 기업재단의 한국메세나협회 연차보고서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개인기부는 조사범위에 해당되는 기관의 공개된 자료를 취합하거나 직접 자료를 요청함
  - 2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기타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직접 수행함

그림 | 민간부문 조사대상별 조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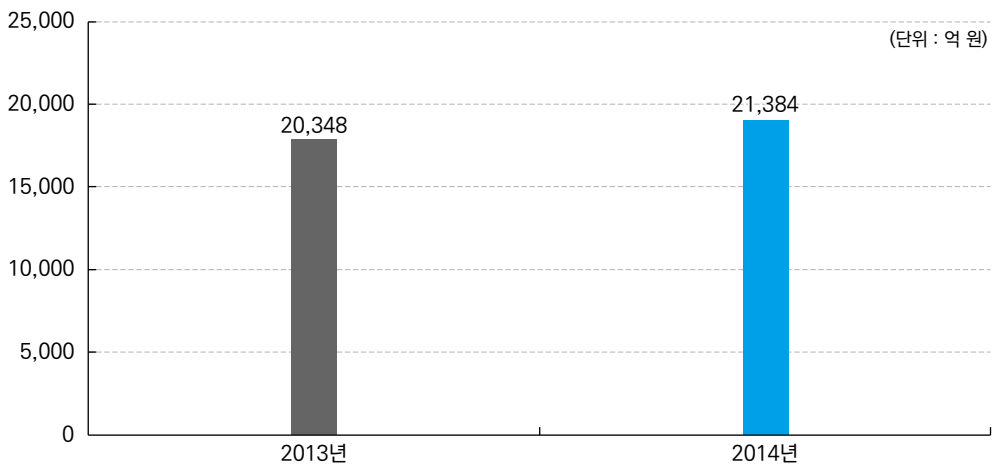
조사대상	2014년 조사방식	2013년 조사방식
기업	<b>2차 자료 활용</b> 1) 한국메세나협회 연차보고서 (Top500 기업+기업재단+한국메세나협회 회원사 등 700여개사)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건부 기부금 데이터 (기업+기업재단 전수조사)	조사를 진행하지 않음
기업재단		
기타재단	<b>직접 설문조사</b> 문화체육관광부를 주무관청으로 등록한 재단법인 중 기업재단과 공공부문 재단을 제외한 문화예술분야 재단 총 64개 전수조사	
개인 (일반기부)	<b>직접 설문조사 &amp; 2차 자료 활용</b> 1) 전문예술법인·단체 개인 기부금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나무운동 후원금 3) 문화예술분야 크라우드 펀딩 후원금	

### III 공공부문 예술지원 현황

#### 1. 총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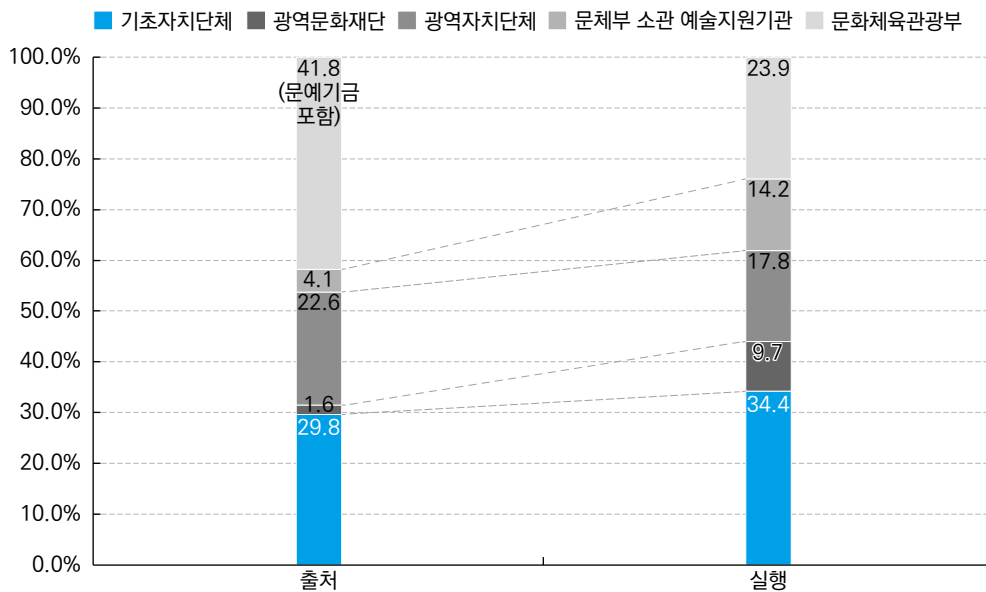
- 2014년 총 지원규모는 2조 1,384억 원으로 2013년 2조 348억 원에 비해 5.1% 증가

그림 | 2014 총 지원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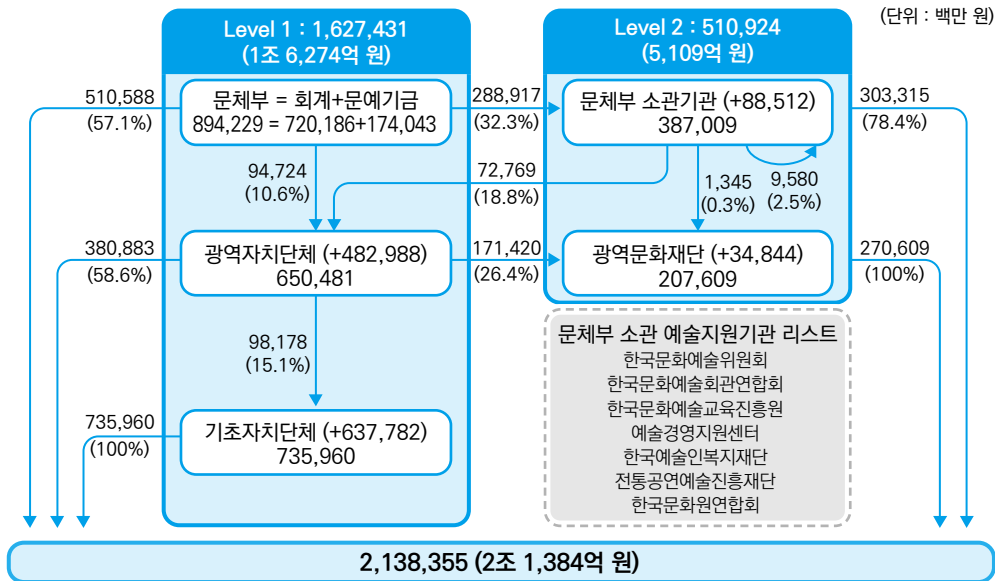
- 자원 구조를 보면 자원출처 차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기초자치단체 예산 비중이 가장 크나, 사업실행 차원에서는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과 광역문화재단 비중이 증가함
- 재원의 출처(재원을 동원한 주체) 측면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문예기금 포함) 41.8%, 기초자치단체가 29.8%, 광역자치단체 22.6% 등으로 중앙정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사업실행(사업을 실제로 집행한 주체) 측면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23.9%, 광역자치단체 17.8%, 기초자치단체 34.4%인 반면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이 14.2%, 광역문화재단 9.7%로 바뀜
- 전년도와 사업실행비를 비교해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2.0% 감소,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은 57.4% 증가, 광역자치단체는 1.6% 감소, 광역문화재단은 30.6% 증가, 기초자치단체는 5.0% 감소함

그림 | 예산의 출처와 실행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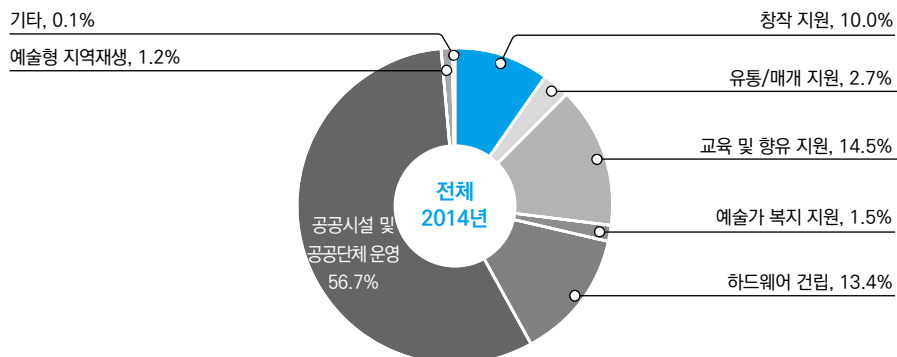
- 지원금 흐름도를 보면 레벨1 기관에서는 타기관으로의 이전금 비중이 높은 반면 레벨2 기관에서는 직접 사업수행 비중이 높음

### 그림 | 공공부문 지원금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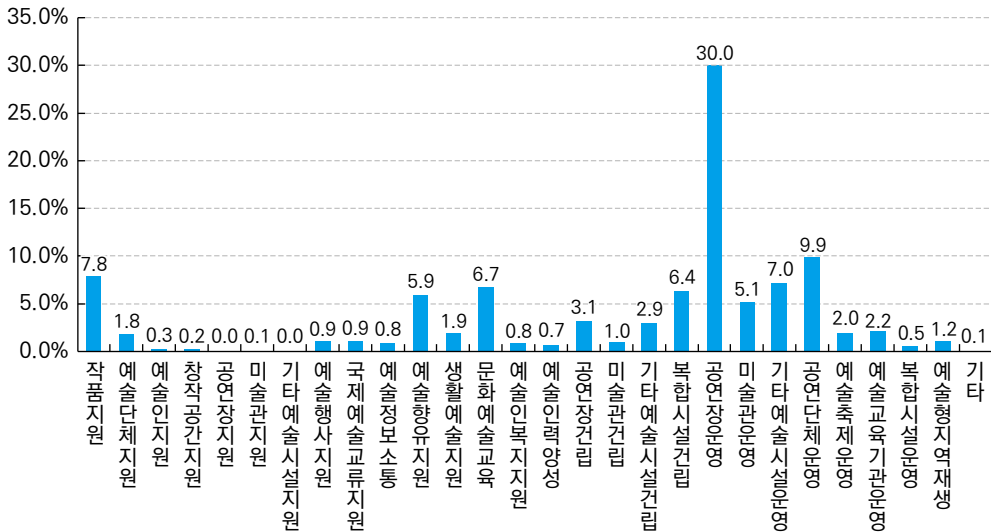
- 사업유형별로 보면 공공부문 지원사업은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비중이 56.7%로 가장 높고, 교육 및 향유 지원이 14.5%, 하드웨어 건립 13.4%, 창작 지원 10.0% 순(타기관 이전에 따른 중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그림** | 전체 사업유형별 규모



- 사업의 세부유형을 보면 공연장 운영이 30.0%로 가장 높고, 공연단체 운영 9.9%, 작품 지원 7.8%, 기타예술시설 운영 7.0%, 문화예술교육 6.7% 순임
  - 단, 예산서 세목구분의 한계로 공연장 소속 공연단체 운영과 공연장이 실행한 작품지원 등의 항목이 공연장 운영에 포함된 경우도 있음

그림 | 전체 사업 세부유형화



## 2. 지원주체별 지원규모

-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지원 예산은 타기관으로의 이전금이 42.9%로 가장 많고 실행한 사업 중에서는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비중이 가장 높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전체 예술지원 예산(문예기금 포함) 894,229백만 원 중 42.9%는 타기관(문화부 소관 예술지원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으로 이전하였고, 나머지 금액을 직접 실행함
    - 전체 예술지원 예산 894,229백만 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예산 4조 4,224억 원의 20.22%에 해당하고 문화예술부문 1,878,191백만 원의 47.6%에 해당함
  - 직접 실행한 사업의 경우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이 68.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하드웨어 건립이 25.6%, 교육 및 향유 지원 2.5%, 유통/매개 지원 1.7%, 예술형 지역재생 1.5%, 창작 지원 0.6% 순

-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은 교육 및 향유 지원 예산 비중이 가장 높음
  -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의 경우 전체 예술지원 예산 387,009백만 원 중 21.6%는 타기관(광역자치단체, 광역문화재단)으로 이전하였고, 나머지 금액을 직접 실행함
  - 직접 실행한 사업의 경우 교육 및 향유 지원이 54.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창작 지원 24.8%, 예술가 복지 지원 10.3%, 유통/매개 지원 6.6%, 하드웨어 건립 1.7%,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1.9% 순
- 광역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비중이 가장 높음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예술지원 예산 650,481백만 원 중 15.1%는 기초자치단체로 이전하였고, 나머지 금액을 직접 실행함(광역문화재단으로의 위탁/보조사업 포함)
  - 직접 실행한 사업의 경우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이 57.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창작 지원 13.7%, 교육 및 향유 지원 12.8%, 하드웨어 건립 12.6% 순, 유통/매개 지원 2.5%, 예술형 지역재생 1.3% 순
  - 광역자치단체 전체 예산 대비 예술지원 금액의 비율은 평균 0.59%임
- 기초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이 72.5%로 가장 높음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예술지원 예산 735,960백만 원을 직접 실행함
  - 직접 실행한 사업의 경우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이 72.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하드웨어 건립 10.9%, 교육 및 향유 지원 7.4%, 창작 지원 6.3%, 유통/매개 지원 1.7%, 예술형 지역재생 1.2% 순
  - 기초자치단체 전체 예산 대비 예술지원 금액 비율은 평균적으로 0.67%임
- 광역문화재단의 자체사업 중에서는 창작 지원이 37.7%로 가장 높음
  - 광역문화재단의 자체사업(광역자치단체 위탁/보조 사업 제외)은 창작 지원이 37.7%로 가장 높고,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27.1%, 교육 및 향유 지원 17.3%, 유통/매개 지원 10.3%, 예술형 지역재생 4.0% 순임
  - 전체 예술지원 예산 207,609백만 원 중 자체사업의 비중은 17.4%
- 기초문화재단은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이 61.0%로 가장 높음
  - 기초문화재단의 경우 전체 예술지원 예산 106,563백만 원을 직접 실행함
  - 직접 실행한 사업의 경우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이 61.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창작 지원 12.4%, 하드웨어 건립 10.3%, 교육 및 향유 지원 9.7%, 유통/매개 지원 6.0% 순

---

### 3. 사업유형별 지원주체 규모

- 창작 지원은 광역자치단체와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이 각각 35.4%와 35.2%로 가장 높음
  - 기관에서 직접 실행한 사업만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창작 지원 213,710백만 원의 실행주체는 광역자치단체가 35.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 35.2%, 기초자치단체 21.5%, 광역문화재단 6.4%, 문화체육관광부 1.4% 순임
- 유통/매개 지원은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이 34.6%로 가장 높음
  - 유통/매개 지원사업 58,118백만 원의 실행주체를 보면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이 34.6%로 가장 많이 하고, 다음으로 광역자치단체 23.3%, 기초자치단체 20.9%, 문화체육관광부 14.7%, 광역문화재단 6.4% 순
- 교육 및 향유 지원은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이 53.5%로 절반 차지
  - 교육 및 향유 지원사업 309,952백만 원의 실행주체를 보면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이 53.5%로 가장 많이 하고, 다음으로 광역자치단체 22.8%, 기초자치단체 17.5%, 문화체육관광부 4.2%, 광역문화재단 2.0% 순
- 예술가 복지 지원은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이 97.6%로 대부분 수행
  - 예술가 복지 지원 31,897백만 원 중 97.6%가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을 통해 지원됨
- 하드웨어 건립은 문화체육관광부(45.7%)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수행
  - 하드웨어 건립 286,039백만 원의 실행주체를 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45.7%로 가장 많이 하고,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 28.2%, 광역자치단체 24.3%,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 1.8%, 광역문화재단 0.1% 순
-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은 기초자치단체 비중이 44.1%로 가장 높음
  -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지원 1,211,873백만 원의 실행주체를 보면 기초자치단체가 44.1%로 가장 많이 하고,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28.7%, 광역자치단체 26.0%, 광역문화재단 0.8%,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 0.5% 순
- 예술형 지역재생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35.4%로 가장 많이 수행
  - 예술형 지역재생 24,629백만 원의 실행주체를 보면 기초자치단체가 35.4%로 가장 많이 하고,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30.5%, 광역자치단체 28.3%, 광역문화재단 5.9% 순

## 4. 지역별 예술지원규모

- 지역별 예술지원규모는 경기도가 18.1%로 가장 높음
  - 광역자치단체, 광역문화재단, 기초자치단체(기초문화재단으로의 출연금 및 위탁/보조사업 포함)의 실행금액을 합한 지역별 규모는 경기도가 18.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13.2%), 전라북도(7.1%), 대구광역시(6.9%), 경상북도(6.5%), 경상남도(6.3%), 대전광역시(5.2%) 순(이전에 따른 중복을 제외한 사업실행 예산 기준)
- 광역시의 경우 광역이 기초보다 규모가 큰 반면, 광역도의 경우 기초가 광역보다 규모가 큼
  - 광역(광역자치단체, 광역문화재단 합)에 해당하는 588,492백만 원(기초자치단체로 이전한 금액 제외)을 분석해 보면 서울특별시가 21.4%로 가장 많고, 대구광역시(12.0%), 대전광역시(11.3%), 광주광역시(9.1%), 부산광역시(8.2%) 순
  - 기초자치단체 735,960백만 원(광역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금액 포함)을 분석해 보면 경기도가 27.7%로 가장 많고, 경상북도(9.9%), 경상남도(9.2%), 전라북도(9.0%), 강원도(7.4%) 순

## IV 민간부문 예술지원 현황

### 1. 민간부문 총규모

- 2014년 민간부문 예술분야 지원 총규모는 1,569억 원임

표 | 2014년 민간부문 예술지원 총규모

지원 주체			지원규모 금액	지원규모 비중
기업	기업		736억 원	91.6%
	기업재단 (기업 출연 재단)		699억 원	
기업 지원주체 전체			1,436억 원	
개인	기타재단 (개인/단체 출연 재단)		43억 원	8.4%
	개인일반기부	전문예술법인·단체 기부	77억 원	
		예술나무운동 정기 후원	3억 원	
		크라우드 펀딩 후원	10억 원	
개인 지원주체 전체			133억 원	
합계			1,569억 원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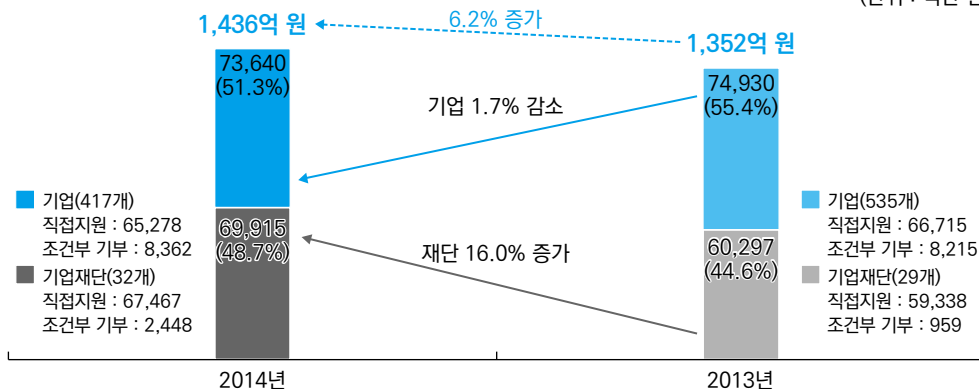
- 기업 주체의 지원규모는 1,436억 원(기업 736억 원, 기업재단 699억 원)으로 민간 전체 지원액의 91.6% 차지
- 개인이 주체가 되는 지원규모는 133억 원(기타재단 43억 원, 개인기부 90억 원)으로 민간 전체 지원액의 8.4% 비중

## 2. 기업 및 기업재단 지원규모

- 기업 및 기업재단 지원규모는 총 1,436억 원, 전년대비 6.2% 증가함
  - 기업의 지원금액은 736억 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51.3%, 기업재단의 지원금액은 699억 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48.7%를 차지함
  - 기업 417개, 기업재단 32개로 총 449개 사업체에서 문화예술을 지원함
  - 지원건수는 총 1,241건이며, 이 중 기업이 1,108건, 기업재단이 133건임
  - 건당 평균 지원금(지원액 합계÷지원건수)은 기업 6,600만 원, 기업재단 5억 2,600만 원으로 재단이 기업의 약 8배임

그림 | 2014년 기업 및 기업재단 지원규모

(단위 : 백만 원)



- 총 지원규모 1,436억 원 중 조건부 기부금 규모는 108억 원으로 7.5% 비중임
  - 조건부 기부금은 전년대비 17.8% 증가, 건수는 전년대비 25.5% 감소함
    - 기업의 조건부 기부금은 84억 원으로 전년대비 1.8% 증가, 기업재단의 조건부 기부금은 24억 원으로 전년대비 155.3% 증가함

- 지원총액에서 상위권 기업 및 기업재단의 지원금 비중이 매우 높음
  - 지원금 기준 Top20 기업의 지원총액은 기업 전체 지원총액의 91.0% 점유함
  - 지원금 기준 Top5 기업재단의 지원총액은 기업재단 전체 지원총액의 86.0% 점유함
- 사업유형 중에는 기업과 기업재단 모두 ‘문화예술시설 운영’ 지원금 비중이 가장 높음
  - 기업의 ‘문화예술시설 운영’ 지원금 비중은 33.5%, 기업재단의 ‘문화예술시설 운영’ 지원금 비중은 64.5%임
- 장르 중에는 기업과 기업재단 모두 ‘인프라 운영’ 지원금 비중이 가장 높음
  - 기업의 ‘인프라 운영’ 지원금 비중은 47.7%, 기업재단의 ‘인프라 운영’ 지원금 비중은 69.5%임

### 3. 기타재단 지원규모

- 기타재단 지원규모는 총 43억 원으로 집계됨
  - 기타재단의 지원건수는 총 113건이며 재단 당 평균 지원건수는 약 4건임
  - 재단당 평균 지원금액은 약 1억 5,000만 원, 건당 평균 지원금액은 약 4천만 원임
  - 기타재단의 지원규모는 기업재단 문화예술분야 지원(699억 원)의 1/16 수준

표 | 2014년 기타재단 지원규모

구분	2014년
지원 재단 수	29개사
지원금액 (무응답 재단 1개사 제외)	43억 3,520만 원
지원건수	113건
재단당 평균 지원건수	3.9건
재단당 평균 지원금액 (무응답 재단 1개사 제외)	1억 5,482만 원
건당 평균 지원금액 (무응답 재단 1개사의 사업 3건 제외)	3,941만 원

- 설문에 응답한 재단(38개)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 ‘개인’ 출연이 34개사(89.5%)이며, ‘기관/단체’ 출연은 4개사(10.5%)로 대학교, 예술단 등임
  - 정규직 5명 이하의 소규모 조직체로 구성된 재단이 33개(86.8%)임
  - ‘서울’에 위치한 재단은 26개(68.4%), 경기도까지 포함한 수도권은 28개(73.7%)임
  - 주 사업분야는 ‘미술/사진/전시’ 혹은 ‘문화예술교육’이 많음
- 응답 기타재단의 연간(2014년) 수입금 총합계는 154억 원, 지출금액 총합계는 150억 원임

- 수입 내역 비중을 보면, ‘지원금/기부금/회비’ 비중이 42.7%로 가장 높고, ‘기본재산 운영 수입’이 37.8%로 그다음으로 높음
- 지출 내역 비중을 보면, ‘인건비/경상비/운영비’가 52.9%, ‘사업비’가 45.5% 비중을 차지
- 지원사업의 유형을 보면, ‘창작 지원’, ‘유통/매개 지원’, ‘교육 및 향유 지원’ 순임
  - ‘창작 지원’ 사업유형이 지원금액 비중(46.1%)과 지원건수 비중(42.5%)에서 모두 가장 높음
  - ‘창작 지원’, ‘유통/매개 지원’, ‘교육 및 향유 지원’ 사업과 비교했을 시, 상대적으로 ‘예술가 복지 지원’, ‘하드웨어 건립’, ‘시설 및 단체 운영’ 사업은 지원금액 비중과 지원건수 비중 모두 낮음
- 장르를 살펴보면, 지원금액 비중으로는 ‘문화예술교육’이 가장 높으며, 지원건수 비중으로는 ‘미술/전시/사진’이 가장 높음
  - 지원금액 비중으로 보면, ‘문화예술교육’(25.9%), ‘미술/전시/사진’(22.4%), ‘문학/고전/서예’(20.0%), ‘국악/전통음악’(18.2%) 순
  - 지원건수 비중으로 보면, ‘미술/전시/사진’(40.7%), ‘문화예술교육’(15.0%), ‘국악/전통음악’(11.5%) 순

#### 4. 개인일반기부 지원규모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개인기부금 규모는 총 77억 3,000만 원임
  - 전문예술법인에 대한 개인기부금은 57억 원으로 전체 액수의 73.6%, 전문예술단체에 대한 개인기부금은 20억 원으로 전체 액수의 26.4%를 차지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개인기부금 규모는 전년대비 32.6% 감소(2013년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개인기부금 규모는 총 114억 6,200만 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나무운동 개인 정기 후원금 규모는 총 2억 5,800만 원임
  - 개인 후원자 수는 총 1,494명, 후원자의 후원비 납입건수는 총 12,650건
  - 정기 후원금 규모는 전년대비 230.8% 증가(2013년 예술나무운동 정기 후원금 규모는 총 7,800만 원)
  - 후원금 유형 중에서는 ‘순수예술 창작 지원’이 후원금 금액, 후원건수, 후원자수 모두에서 가장 많음
- 문화예술분야 클라우드 펀딩 후원금 규모는 총 9억 7,500만 원임
  - 성공 프로젝트 건수는 총 378건, 건당 평균 후원금액은 300만 원으로 집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ARKO 예술나무’ 클라우드 펀딩 서비스보다는 영리업체에서 운영한 클라우드 펀딩 서비스가 규모면에서는 더 큼

## V 시사점

### 1. 예술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예술분야 세출예산 계정 정비
  - 현실의 예술지원 정책을 토대로 예술지원 현황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제 예술지원 정책의 범주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관계로 현재는 조사팀에서 임의의 기준에 의해 사업의 유형을 분류한 후 집계함
  - 따라서 이 연구에서와 같이 ‘예술지원’에 한정된 조사 분석을 위해서는 지원대상이 되는 ‘예술사업’의 유형과 범주를 통일하는 방향으로 세출예산 계정을 정비하는 일이 중요함
  - 이러한 정비는 이 연구에서와 같이 ‘예술지원 실태’를 조사하는 데도 유용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등 예술지원 주체들이 실제 예술지원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면에서도 효과적이라 할 수 있음
- 예술지원과 관련 중기 재정운용 전략의 수립 필요
  - 재원과 지원 주체, 지원 대상 사업 간 매트릭스를 통한 국가 자원 관리의 전략적 목표의 설정 필요
  - 첫째, 지원 주체 기관들의 직접 사업과 위탁 사업의 구분 원칙 재정립
  - 둘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예술지원 비중에 대한 중장기 방향 설정 필요
  -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만으로 지원 주체 간 역할 분담이나 공공, 민간 협의체 역할을 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데이터가 축적된다면 지속적으로 다양한 이슈가 개발되고 새로운 방향성 모색이 가능하리라 봄. 따라서 데이터의 축적을 위한 조사연구의 지속적 수행이 중요해 보임
- 민간부문 예술지원액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
  - 현재 민간부문 예술지원은 기업 및 기업재단 중심이며, 개인기부는 미미한 수준이므로 이 부분에서 예술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 민간부문 지원은 재원의 양적 규모보다는 좀 더 많은 기업이나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의 다양화가 중요
  - 시설 및 단체 운영의 경우 재정 포트폴리오 전략 마련이 중요
- 공공부문 예술지원 실행기관의 정체성 및 자율성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2014년 공공부문 예술지원액에서 가장 주목되는 변화가 문화부 소관 예술지원기관과 지역문화재단의 실행 예산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예술지원에서 이들 기관들의 ‘실질적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말해줌
  - 따라서 그러한 역할 증대에 상응하는 기관의 정체성과 자율성이 확립되어야 단순한 전달자의 지위를 넘어 예술과 문화 생산의 플랫폼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임

- 예술지원기관의 정체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예술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둘째, 그를 위한 예술지원 프로그램 기획 역량이 구비되어야 하고, 셋째, 자체 사업 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2. 조사방법 개선에 대한 시사점

- 조사대상 체계의 안정화
  - 이 연구는 우리나라 예술지원 재원의 현황과 구조를 파악하는 조사로서 2차에 걸친 조사를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이원화하여 조사를 수행하였음
  - 다음 3회차 조사에서는 1, 2회차 조사의 성과를 지속하는 토대 위에서 중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조사대상의 틀을 확정하여 안정화하는 것이 과제임
  - 첫째, 공공부문에서는 레벨1과 레벨2의 큰 구조를 유지하되 레벨2에 기초문화재단을 필수 대상으로 포함하여 6개의 대상 집단으로 안정화
    - － 레벨1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레벨2에는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의 6개 집단으로 구성
  - 둘째, 민간부문에서는 기업과 개인의 2개 집단으로 나누는 것을 기업, 민간문화재단, 개인의 3개 집단으로 나누는 방안 검토
    - － 기업 출연 문화재단과 개인 출연 문화재단을 하나의 그룹으로 통합하여 ‘민간문화재단’을 기업, 개인과 별도의 조사대상으로 설정
- 조사 지표의 명확화와 단순화
  - 조사 지표를 명확화하고 조사 방법을 단순화하여 본 조사사업의 연구자가 변경된 상황에서도 안정된 결과값을 도출하는 것이 향후 과제라 할 수 있음
  - 특히 ‘예술지원’의 개념과 범위를 재확인하여 2016년도 3회차 조사부터 조사 체계를 안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예술지원액과 재원의 흐름을 연동한 분석 결과 산출 필요
  - 조사 결과의 산출 및 분석에서 ‘자원(財源)’의 흐름을 연동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개선 필요
  - 본 조사에서는 현재와 같이 지원주체별 예술지원액의 규모와 구조 파악을 기본으로 하되, 국고, 지방비(광역), 지방비(기초), 기금(중앙), 기금(지방), 민간(기업), 민간(개인) 등 자원 속성의 흐름을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조사가 이루어지면 ‘기금 고갈’ 등의 주된 요인 분석 등이 가능할 것임





2014

공공·민간 예술지원 실태조사

# 제 1 장

## 서론

1. 연구 배경
2. 조사범위
3. 조사절차







## 1. 연구 배경

### 가. 연구 배경

#### 1) 예술지원 재원구조의 변화

- 예술분야 지원규모는 증가 추세이며, 지원주체 및 재원은 다양화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예산과 기금은 최근 5년 간 연평균 8.6%의 증가율의 상승 추세임
    - 문화체육관광부 예산과 기금 중 문화예술부분의 비중은 평균 42.4%로 문화체육관광부 다른 분야(관광, 문화일반)보다 높음

그림 1-1 | 문화체육관광부 최근 5년간 문화예술부문 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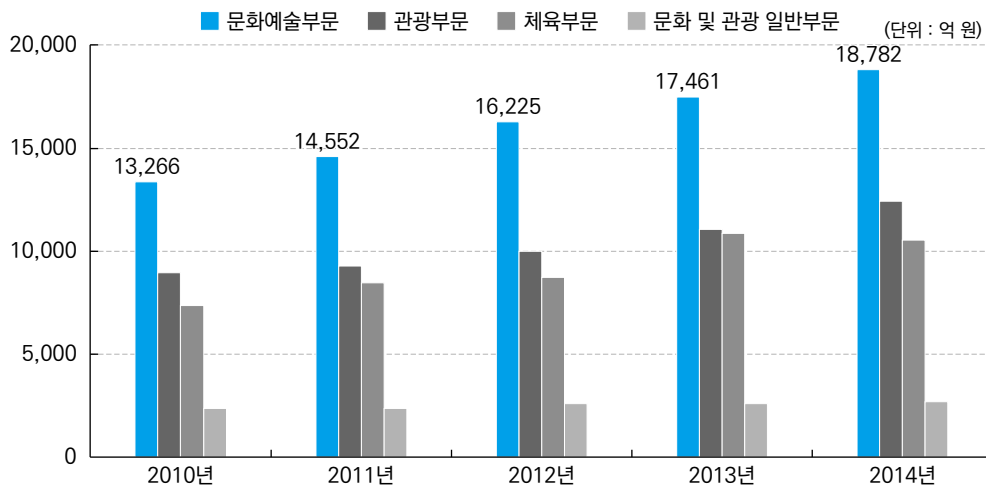


표 1-1 | 문화체육관광부 최근 5년간 재정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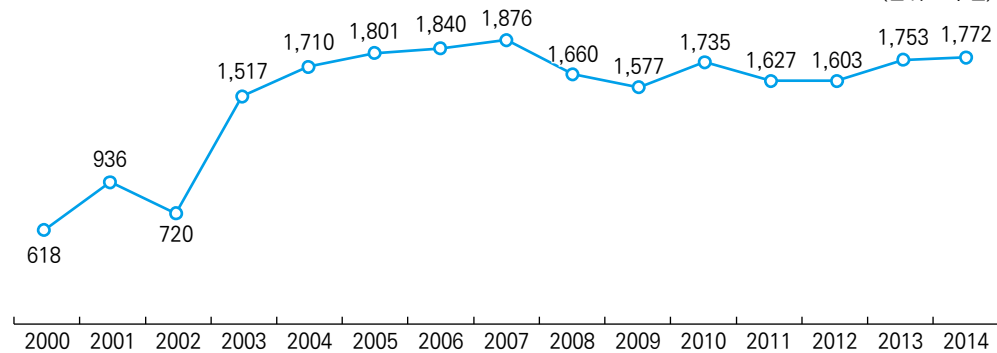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증감율
재원	31,741	34,558	37,194	41,723	44,224	8.6%
예산	18,167	19,604	20,933	22,876	23,208	6.3%
기금	13,580	14,954	16,261	18,847	21,016	11.5%
집행	31,747	34,558	37,194	41,723	44,224	8.6%
문화예술부문	13,266	14,552	16,225	17,461	18,782	9.1%
관광부문	8,901	9,257	9,829	10,964	12,316	8.5%
체육부문	7,303	8,403	8,634	10,744	10,463	9.4%
문화 및 관광 일반부문	2,277	2,346	2,506	2,554	2,663	4.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3 문화예술정책백서,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기업들은 단순 메세나 개념을 넘어 마케팅, 조직문화 관리 등 다양한 목적과 방식으로 예술에 대한 후원 및 지원 활동을 하고 있음
  - 한국메세나협회 발표에 의하면 2012년 1,603억 원에서 2013년 1,753억 원, 2014년 1,772억 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문화재단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공공, 민간 간의 협력 및 교류 방안에 대한 모색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그림 1-2 | 기업 및 기업재단 문화예술지원 추이

(단위 : 억 원)



[출처] 한국메세나협회(2015), 2014년 연차보고서

## 2) 예술지원에 대한 기대와 실망

- 예술지원에 대한 현장 인식의 편차 존재
  - 현 정부의 ‘문화예산 2%’ 추진 발표에 따라 문화예술지원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았으나, 최근 문예기금 고갈과 예술계 이슈들로 현장의 지원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는 등 편차가 커지고 있음
- 예술지원 현황에 대한 객관적 통계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데 유용함
  - 예술지원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한 통계는 현황을 이해하고 발전적 논의를 끌어가기 위해 필수적 요소임. 정책설계자, 지원기관, 지원사업 수혜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기반이 됨

## 3) 정책개발 및 평가를 위한 객관적 통계 필요성

- 전체 예술지원 구조 파악 및 지원정책 개발,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필요성 증대
  - 지원주체와 지원규모가 늘어나면서 지원사업 간 대체 및 보완관계 등 전체 지원구조 및 지원금 흐름을 파악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사업유형이나 장르에 따른 지원사업 통계가 미비하여 균형 잡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함
  - 자원 측면에서도 문예기금 대체재원 등 예술지원 재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 자원들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함
  - 예술지원 현황에 대한 통계는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내세운 현 정권에서 문화예술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평가하는데 필수적인 인프라라고 할 수 있음

## 나. 연구 목적

### 1) 공공·민간 예술지원 현황 파악

- 국내 예술지원 총규모 및 지원사업 파악
  - 국내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 자료를 분석, 총 지원규모 및 지원사업 현황에 대한 세부통계 제공
  - 2014년도 예술지원 실태조사의 후속연구로 전년도에 이은 시계열 자료를 축적, 전년도 대비 예술지원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 예술지원 구조 및 흐름 파악
  - 공공부문의 문화예술 지원 예산은 예산 편성, 이전, 집행 과정이 복잡하며 여러 기관들이 얹혀 있어 지원체계 파악이 어려움
    - 기금과 국고 등 재원의 출처가 다양하고 자금 흐름이 여러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어 지원체계에 대한 파악이 어려우며, 이와 같은 이유로 각 행정 레벨 또는 각 기관별로 비슷한 사업에 대한 중복 예산 편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왔음
  - 이에 지원사업별 재원출처를 파악하고 예산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전체 지원구조를 파악하고자 함

## 2) 예술지원 구조 파악을 위한 틀 개발

### □ 조사 프레임 설계 보완

- 국내 최초로 재정 기반의 예술지원 현황을 파악한 <2012-2013 공공·민간 예술지원 현황> 연구의 조사 설계를 보완, 통계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 공공재원 조사설계 보완
    - 조사대상 기관 추가: 기초문화재단 추가,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 재검토
    - 재원범위 추가: 문예기금 외 관광기금 중 문화예술지원 예산 포함
    - 지원사업 범위 재정비: 예술(진흥)형 지역재생, 복합시설 등 세부유형 신설
  - 민간재원 조사설계 보완
    - 조사대상 기관 추가: 기업 이외의 개인이나 단체(여러 명의 개인)에서 출연한 재단(본 보고서에서는 '기타재단'이라 칭함), 개인일반기부(전문예술법인·단체 기부, 크라우드 펀딩, 예술나무운동 등) 추가
    - 세부분석 강화: 기업 및 기업재단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건부 기부금 데이터 분석(2012-2013년에는 기본분석만 진행)
- 지원사업 내용에 따른 사업을 유형화하는 체계를 개발, 연구진이 달라져도 일관되게 자료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함

### □ 조사 협력체계 구축

- 본 조사는 범위가 넓어 하나의 조사기관이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기존 지원기관 및 조사기관과의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조사방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함
  - 공공부문: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광역문화재단-기초문화재단
  - 민간부문: 한국메세나협회-사회공헌센터-아름다운재단-예술경영지원센터-한국문화예술위원회-민간기업(크라우드 펀딩 업체) 등

## 3) 예술지원 정책 수립에 시사점 제공

### □ 공공과 민간부문의 예술지원사업 현황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 제안

- 국내 예술지원 현황조사 결과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를 통해 공공·민간부문의 다변화되고 복잡해진 예술지원 방식을 체계화하기 위한 시사점 도출
- 국고와 기금 등 공공 재원의 출처를 파악하고 지원주체 간 재원의 흐름을 추적하여 지원체계에 대한 쟁점 기반 마련

### □ 시계열 데이터의 축적을 통한 중장기적 정책 설계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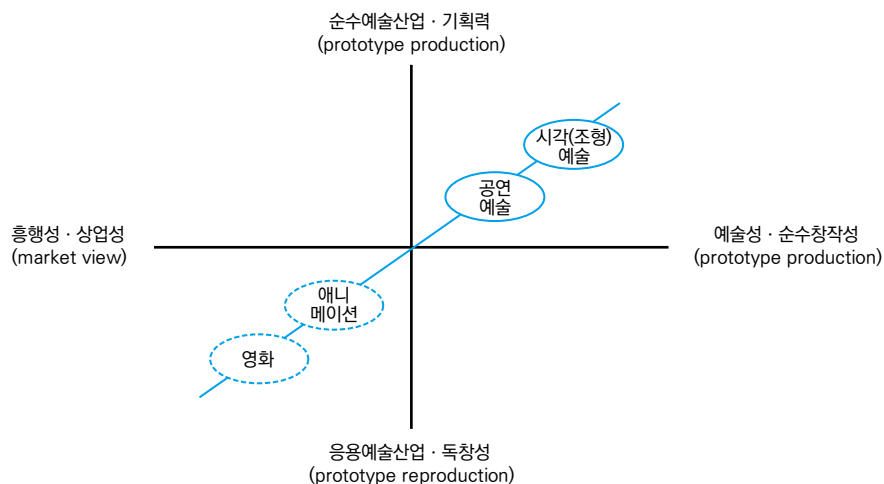
- 본 조사의 지속적 수행을 위해 조사설계 및 자료수집에 대한 제언점 도출
- 시계열 데이터 축적은 예술지원 방식의 변화를 감지하고 기관별 새로운 지원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되리라 기대함

## 2. 조사범위

### 가. 예술 장르 범위

- 예술 장르 중에서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 비상업적 성격이 강한 예술 장르 지원사업을 조사범위로 규정함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문화예술”의 범위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으로 되어 있으며, 본 연구는 이 중에서 지원정책의 중심이 되는 순수예술에 초점을 맞춤
  - 본 연구 조사범위에 속하는 장르들은 시장기반이 미약하여 예술의 지속보존을 위해 정부 재정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은 특성을 가지므로 조사범위를 영리 성격이 약한 장르에 한정함
  - 단, ‘교육 및 향유 지원’ 사업 중 장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 콘텐츠 장르도 부분 포함되어 있음
- 제외 장르는 건축, 박물관, 도서관, 출판, 콘텐츠(영화, 게임 등), 문화재 등임
  - 문화유산과 관련된 지원사업(유형 문화재 지원 등)이나 도서관은 제외시킴. 단, 인간문화재 공연지원은 예술지원으로 간주
  - 민속놀이, 예절교육(충효교실, 예절문화교육 등), 향토문화, 정월대보름제 등은 예술 장르로 보기 어려워 제외

그림 1-3 | 국내 문화예술 산업의 모형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문화예술분야 사업체조사 기초연구

## 나. 지원사업 범위

- 지원사업 조사범위는 사업목적 상 ‘예술진흥 목적’의 지원사업과 ‘예술시설 건립 및 운영’ 사업으로 규정함
  - 예술지원사업은 크게 예술지원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예술진흥 목적 지원사업), 예술지원을 위한 인프라 지원사업(예술시설 건립 및 운영 사업), 다른 목적을 위해 도구적 목적으로 예술을 지원하는 사업(타 목적의 예술활용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 조사는 “예술진흥 목적 지원사업”과 “예술시설 건립 및 운영 사업”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조사대상으로 규정함
    - 예술진흥 목적 지원사업: 예술가 및 향유자 지원 목적 사업(예. 창작 지원, 향유 지원)
    - 예술시설 건립 및 운영 사업: 예술 유통을 위한 시설 건립 및 운영 사업(예. 공연장, 미술관, 창작공간, 예술진흥형 지역재생)
    - 타 목적의 예술활용 사업: 예술을 활용하고 있지만 근본 목적이 예술지원이 아닌 목적 사업(예. 도시재생, 농촌활성화 사업). 다만, 예술형 지역재생 사업은 형식은 지역재생이나 목적이 예술진흥이므로 포함함
- 지원사업 범위에는 ‘창작’, ‘유통/매개’, ‘교육 및 향유’, ‘예술가 복지’, ‘하드웨어 건립’, ‘공공시설 및 단체 운영’, ‘예술형 지역재생’ 사업 등이 포함됨
  - 본 조사에 포함되는 지원사업은 그 목적이 ‘예술지원’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창작 지원, 유통 및 매개 지원, 교육 및 향유 지원, 예술가 복지 지원, 하드웨어 건립, 공공시설 및 단체 운영, 예술형 지역재생 사업 등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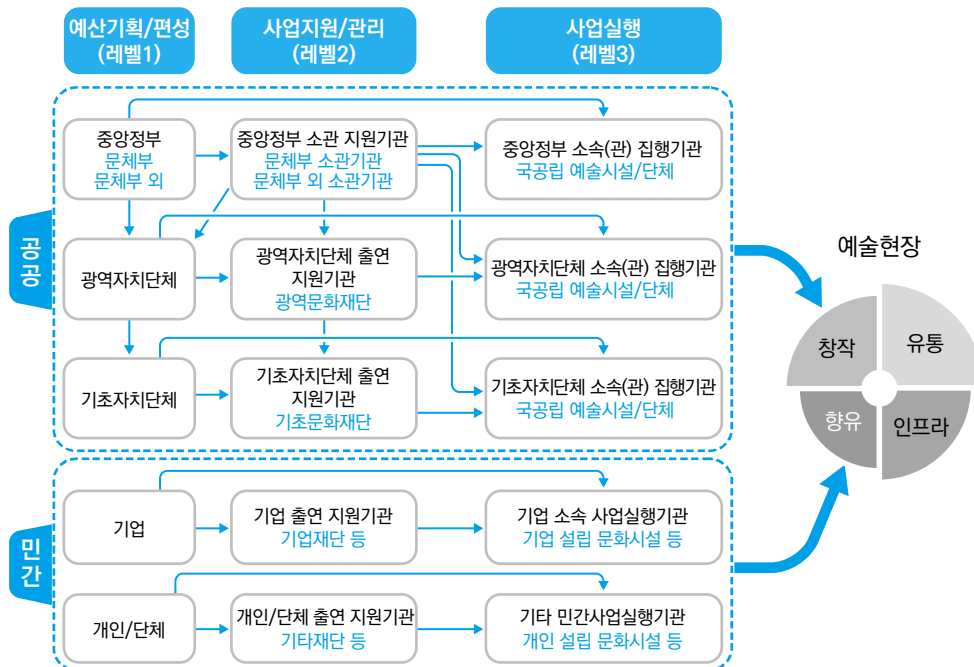
## 다. 조사기관 범위

- 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예산기획/편성 기관, 사업지원/관리 기관, 사업실행 기관을 모두 포함
  - 서비스 전달체계는 일반적으로 기능을 중심으로 기획, 지원, 관리와 관련된 행정체계와 직접적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집행체계로 구분됨<sup>2)</sup>
  -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지원사업 전달체계에 따라 그 역할을 ‘예산기획/편성’, ‘사업지원/관리’, ‘사업실행’으로 구분하고, 이들 지원주체들을 조사대상으로 규정함
- 공공부문 조사기관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 지역문화재단, 국공립문화시설, 국공립예술단체 등임
  - 지원규모 추정을 위한 조사기관은 위 모든 공공기관을 포함하나 예산서 조사대상은 예산기획/편성과 사업지원/관리 기관에 한함. 사업실행 기관 예산은 상위 기관의 예산서에서 추출함
    - 예산기획/편성 기관: 예술지원사업 예산을 기획/편성 역할을 주되게 하는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있음
    - 사업지원/관리 기관: 예술지원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하위 기관/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과 광역문화재단이 해당됨

2) 김세훈(2014), 지역문화진흥과 문화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 지역문화진흥 공동학술대회

- 사업실행 기관: 최종 수혜자에게 예술 사업을 직접 실행하는 주체
  - 국공립문화시설(예술의 전당 등), 국공립예술단체(국립발레단 등)이 대표적임
  - 기초문화재단은 개념적으로 레벨2에 해당하나 현재 시설을 운영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므로 본 조사에서는 레벨3 기관으로 포함시킴
- 민간부문의 조사기관은 기업, 기업재단, 기타재단 그리고 개인(일반기부)을 포함
  - 민간지원 부문에서는 예산기획/편성 기관의 대표적 주체를 '기업'과 '개인(단체)'으로 봄
  - 사업지원/관리 기관에 해당하는 민간 주체로는 문화사업을 하는 '재단'이 대표적이며, 본 조사에서는 '기업재단'과 '기타재단'을 포함시킴
    - 기업과 기업재단은 한국메세나협회 연차보고서 설문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건부 기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함
    - 기타재단(개인/단체가 하는 재단)은 직접 설문조사(서베이)를 통해 지원사업 현황자료를 수집함
  - 순수하게 개인이 문화예술분야에 기부한 '개인일반기부'의 금액을 집계하기 위해서 전문예술법인·단체 기부금, 크라우드 펀딩 후원금, 예술나무 정기후원금을 조사함

그림 1-4 | 공공·민간 예술지원 전달흐름



### 3. 조사절차

#### 가. 공공부문 조사절차

- 공공부문 조사대상 기관 세출예산서 수집
  - 조사기관 지원사업명 및 예산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세출예산서를 기관별로 수집
    - 예산서 수집은 예산기획/편성 기관과 사업지원/관리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업실행 기관은 상위 기관의 예산서에서 사업을 파악함
  - 예산서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각 기관의 담당자에게 조사 협조공문 발송, 전화, 이메일, 방문 등의 개별 접촉을 통해 예산서 자료 취합
- 세출예산서 기준 해당사업 예산 추출 및 유형 구분
  - 예산서에서 본 연구의 조사범위(장르 및 지원사업 범위)에 부합하는 사업 및 예산 추출
  - 지원주체, 지원금 데이터베이스화 후 지원사업 성격에 따라 유형 분류
- 총 지원규모 도출 및 세부 분석 수행
  - 행정기관 간 중복 예산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제거 후 공공예술지원 총규모 도출
  - 지원주체별 규모, 사업유형별 규모, 지역별 규모 등 세부 분석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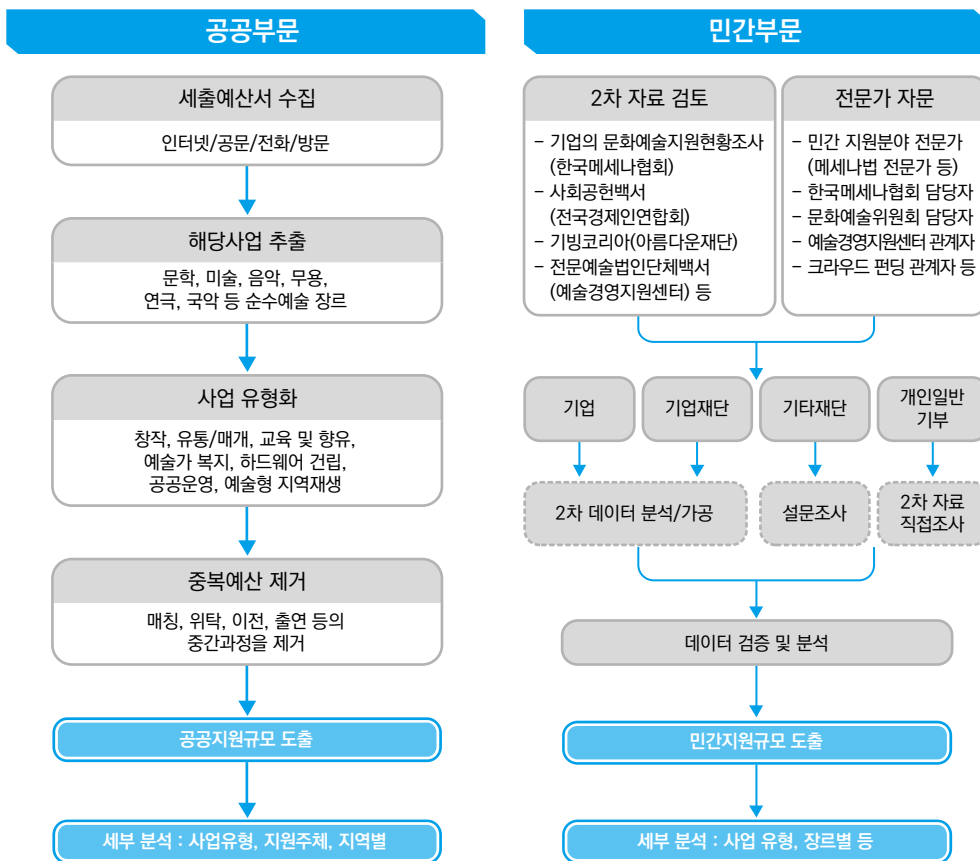
#### 나. 민간부문 조사절차

- 조사범위 및 대상 검토
  - 문헌조사 및 관련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민간부문 예술지원 주체, 범위 및 분야별 데이터 가용성 타진
    - 민간 예술 후원 관련 보고서,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 해당분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조사범위 검토
      - 한국메세나협회에서 발행하는 연차보고서 내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현황조사>,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행하는 <사회공헌백서>, 아름다운재단에서 발행하는 <기빙코리아>,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발행하는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 등
- 기업 및 기업재단 지원규모 추정
  - 한국메세나협회의 연차보고서에서 사용하였던 원본 설문데이터를 본 연구의 조사대상에 맞게 재분석, 데이터 가공 수행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 및 기업재단 조건부 기부금 데이터를 본 연구 범위에 맞게 가공하여 분석



- 기타재단 지원규모 추정
  -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기관 중 기업 출연 재단과 공공부문 기관(재단)을 제외하고, 문화예술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단 리스트 확보
  - 재단별 직접 설문조사를 통한 지원사업 및 지원금 데이터를 확보하고, 데이터 검증 및 보완을 위해 홈페이지 및 언론기사를 통해 추가 데이터 확보
- 개인일반 기부금 규모 추정
  - 비인허가단체(기관)기부는 실질적으로 조사 진행이 어려우므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정기부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개인의 일반기부)과 지정기부금(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개인의 일반 기부)을 조사하여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부분에 한해 분석
  - 문화예술분야의 크라우드 펀딩 후원금 자료 수집

그림 1-5 | 조사절차도







2014

공공·민간 예술지원 실태조사

## 제2장

### 조사설계

1. 공공부문 조사설계
2. 민간부문 조사설계





## 1. 공공부문 조사설계

### 가. 공공부문 지원체계

#### 1) 개요

- 공공부문의 예술 지원주체는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할 수 있음
  - 중앙정부는 17부 5처 16청과 각 소관기관들로 구성되며, 이 중 예술진흥 목적의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체육부 소관 예술지원기관이 주되게 담당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외 다른 부처에서도 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을 일부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 사업의 목적은 예술진흥이 아닌 각 부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술을 활용하는 성격이 강함

표 2-1 | 예술지원사업 담당 부처 및 소관기관

사업유형	담당 부처 및 소관기관
예술교육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법무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한국과학창의재단
마을조성(도시재생)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희망재단, 렛츠런재단
문화교류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국제교류재단, 통일부
문화산업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과 복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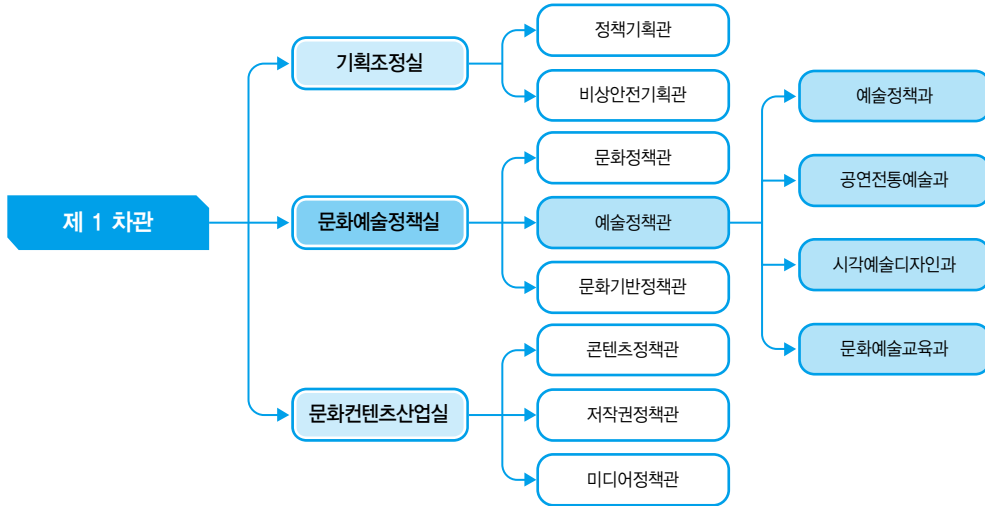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4), 2012~2013 공공·민간 예술지원 현황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별 예술지원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문화재단에서 담당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17개, 기초자치단체 227개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문화재단을 두고 예술지원사업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 전국의 광역문화재단은 총 13개, 기초문화재단은 총 50개로 매년 증가세를 보임

## 2) 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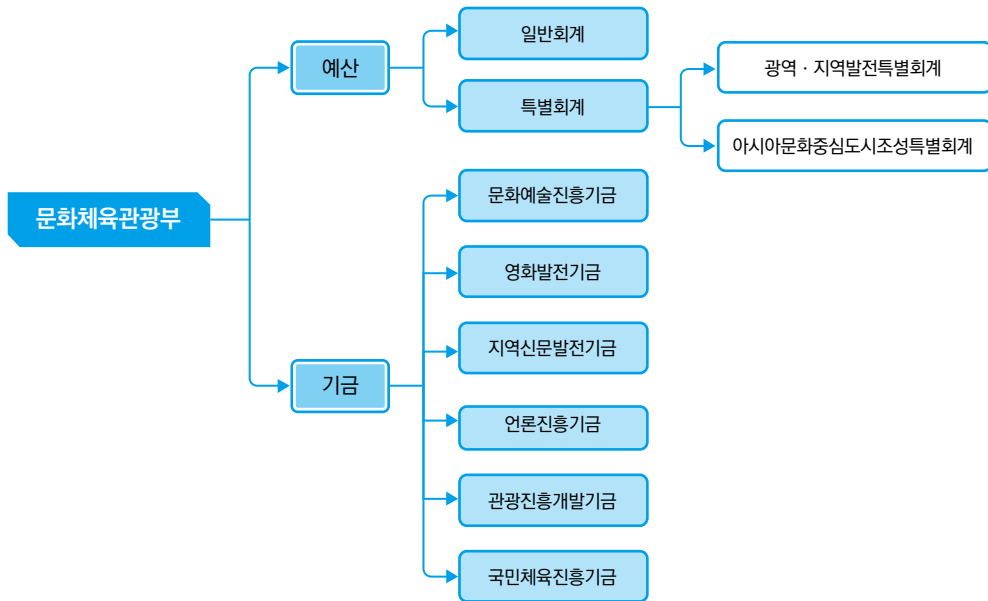
- 중앙정부 차원의 예술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에서 이루어짐
  -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지원사업은 문화예술정책실 내 예술정책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예술정책관에 예술정책과, 공연전통예술과, 시각예술디자인과, 문화예술교육과가 소속되어 있음

그림 2-1 | 문화체육관광부 조직도



- 문화체육관광부는 14개의 소속기관을 통해 전문예술교육, 연구, 예술기관운영을 지원함
  -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정책방송원, 국악중고등학교, 전통예술중고등학교 등
-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지원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지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문예기금)을 통해 이루어짐
    - 예술지원과 관련된 특별회계에는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6개가 있으며 그 중 예술지원은 문예기금을 통해 이루어짐

그림 2-2 |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 구조



## 3)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지원 소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기관은 준시장형 공기업 1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4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개, 기타공공기관 26개 등 총 33개이며 그 중 예술지원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은 총 7개임
- 예술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주요 소관기관으로는 문예기금을 운용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하여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한국문화원연합회 등이 있음

표 2-2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한국관광공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번역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태권도진흥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아시아문화개발원 세종학당재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국민생활체육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게임물관리위원회, (재)한국문화정보원 (재)체육인재육성재단, (재)예술의전당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명동·정동 극장 (재)국악방송, (사)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4)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17개와 기초자치단체 227개로 구성됨
  -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와 광역시·도를 포함하여 총 17개이고, 기초자치단체는 총 227개임
    - 광역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특별시와 광역시·도를 포함
    - 기초자치단체: 서울특별시 25개, 부산광역시 16개, 대구광역시 8개, 인천광역시 10개, 광주광역시 5개, 대전광역시 5개, 울산광역시 5개, 경기도 31개, 강원도 18개, 충청북도 12개, 충청남도 15개, 전라북도 14개, 전라남도 22개, 경상북도 23개, 경상남도 18개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예산 중 일부를 문화예술지원 예산으로 편성하며, 문화정책 관련 부서에서 지원사업을 수행함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은 문화예술, 문화재, 관광, 체육, 종무 등의 하위 분야로 세분화되며, 광역자치단체는 문화예술위원회의 기금과 국비 매칭사업 형태로 문화예술을 지원하기도 함
    - 국비 매칭 사업에는 지역협력형 사업(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지자체공연예술활성화지원), 예술강사지원사업 등이 있음. 대부분 광역문화재단으로 위탁하여 운영함

#### 5) 지역문화재단

- 지역문화재단은 2014년 말 기준 광역문화재단 13개, 기초단위문화재단 50개로 구성되어 있음
  - 지역문화재단은 비영리 민간단체로 분류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설립되기 때문에 공익적 성격이 강함
  - 사업의 주요 목적은 지역문화 활성화이며, 자체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자체에서 위탁받은 사업을 운영하여 지역 예술가 지원, 지역 내 예술 공간 운영, 지역 특성을 살린 향유 사업(축제 등) 등을 수행함
  - 광역문화재단은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과 '문화예술의 창작보급'을, 기초단위문화재단은 '지역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함<sup>3)</sup>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1), 지역문화재단의 운영성과 분석 및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정책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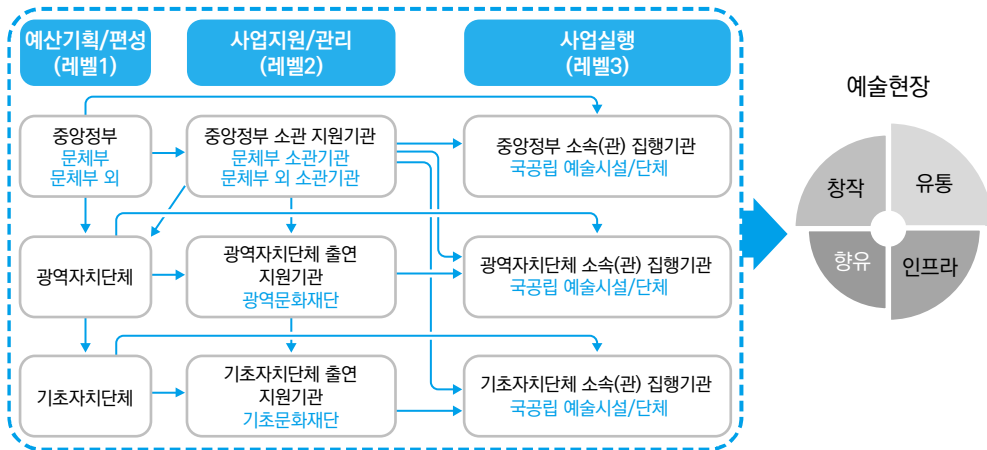
표 2-3 | 2014년 지역별 문화재단 현황

지역	광역문화재단	기초단위문화재단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강남구, 구로구, 마포구, 성북구, 영등포구, 종로구, 중구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재단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수성구, 달성구, 동구
인천광역시	인천문화재단	부평구
울산광역시		남구(고래문화재단)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대전광역시	대전문화재단	
세종특별시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부천시, 고양시, 성남시, 화성시, 안양시, 하남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군포시, 안산시
강원도	강원문화재단	강릉시, 정선군, 춘천시, 인제군, 원주시, 평창군
충청북도	충북문화재단	청주시
충청남도	충남문화재단	아산시, 당진시, 천안시, 부여군(백제문화재추진위원회)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 부안군
전라남도	전남문화예술재단	목포시, 담양군, 영암군
경상북도		경주시(경주문화재단,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청송군
경상남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거제시, 김해시, 창원시, 사천시, 통영시, 진주시
제주특별도	제주문화예술재단	

## 나. 공공부문 지원구조

- 지원구조 파악을 위해 사업 전달흐름에 따라 지원주체를 유형화시킴
  - 본 연구에서는 예술지원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지원사업 전달흐름에 따라 그 역할을 기획/편성, 지원/관리, 실행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지원주체들을 구분함
    - 서비스 전달체계는 일반적으로 기능을 중심으로 기획/편성, 지원/관리와 관련된 행정체계와 직접적 서비스 제공 즉 실행을 담당하는 집행체계로 구분됨<sup>4)</sup>

그림 2-3 | 공공부문 예술지원 전달흐름



- 예술지원주체를 역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레벨1’, ‘레벨2’, ‘레벨3’으로 명명함
  - **레벨1:**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예산을 기획/편성하는 지원주체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해당됨. 이들은 예산기획/편성 역할을 주되게 하고 공공시설, 공공단체, 축제 등을 직접 운영하기도 함
      - 중앙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7개 부
      - 광역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229개(기초자치단체 리스트는 부록 참고)<sup>5)</sup>
  - **레벨2:** 문화예술지원사업을 지원/관리하는 주체
    -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이 해당되며, 레벨1으로부터 이전 받은 예산을 집행하여 직접 사업을 운영하거나 하위 기관/단체에 예산을 지원함
      -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

4) 김세훈(2014), 지역문화진흥과 문화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 지역문화진흥 공동학술대회

5)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구분상 기초자치단체는 아니지만 구 단위이고 자체 예산서가 존재하여 본 연구범위에 포함시킴

원,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한국문화원연합회

- 광역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대구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광주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충남문화재단, 전남문화예술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제주문화예술재단<sup>6)</sup>
- 기초문화재단: 강릉문화재단, 원주문화재단, 인제군문화재단,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춘천시문화재단, 평창문화예술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오산문화재단, 용인문화재단, 하남문화재단, 화성시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수원문화재단, 안산문화재단, 고양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군포문화재단, 거제문화예술재단(거제문화예술회관), 사천문화재단, 진주문화예술재단, 창원문화재단, 통영문화재단, 김해문화재단, 경주문화재단, 청송문화관광재단,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달성문화재단, 동구문화재단, 수성문화재단, 도심재생문화재단, 강남문화재단, 구로문화재단, 마포문화재단, 성북문화재단, 영등포문화재단, 종로문화재단, 중구문화재단, 고래문화재단, 부평구문화재단, 담양문화재단, 목포문화재단, 영암문화재단, 부안문화재단, 익산문화재단, 전주문화재단, 당진문화재단, 아산문화재단, 천안문화재단,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 레벨3: 최종 수혜자에게 예술 사업을 직접 실행하는 주체
  - 국공립문화시설(예술의 전당 등), 국공립예술단체(국립발레단 등)가 이에 해당됨
  - 예술서비스를 직접 실행하는 주체이며, 재정적 소요가 크지 않은 사업이나 비재정적 문화예술지원사업을 실행하기도 함

6) 2014년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경상북도의 경우 문화재단이 없음

## 다. 공공부문 조사범위

### 1) 지원주체 범위

- 앞에서 유형화한 지원체계 중 레벨1, 레벨2, 레벨3에 속한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
  - 레벨1의 중앙정부 중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만 포함
    - 타부처 사업의 경우 예술지원이 사업의 일부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나 예술진흥이 목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며 예산서 상으로 예술지원 금액만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됨
  - 레벨3에 속한 기관들은 상위 기관에 예·결산 보고를 하므로 레벨1과 레벨2 기관 예산서를 통해 지원금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예술의 전당, 국립발레단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 예술정책관 예산서에서 파악 가능하고, 세종문화회관 예산은 서울특별시 예산서에서 파악 가능함
    - 기초문화재단은 개념적으로 레벨2의 성격을 지향하나, 현재 상황에서는 문화시설/공간 운영 성격이 강하고 예술지원사업 비중이 작으므로 본 조사에서는 레벨3으로 간주함
    - 레벨3 기관 중 부분적인 문화예술지원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별도의 재정적 소요가 발생하지 않거나 재정적 소요가 크지 않은 비예산사업인 경우가 많다고 추정되어 본 연구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함(레벨3의 자체수입에 의한 사업은 본 조사에 미포함 됨)
- 결과적으로 공공부문은 문화체육관광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 등 317개 기관이 조사대상에 해당됨
  - 총 지원규모 집계를 위해 기초문화재단을 제외한 267개 기관 예산서를 수집하였으며, 기초문화재단 사업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문화재단 예산서 50개를 추가 수집함
    - 기초자치단체 예산서에서 기초문화재단 출연금 및 위탁/보조사업이 포함됨

표 2-4 | 공공부문 조사대상

구분	지원기관	개수
정부 (레벨1)	중앙정부(문화체육관광부)	1
	광역자치단체	17
	기초자치단체	229
	소계	247
소관기관 (레벨2)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	7
	광역문화재단	13
	기초문화재단	50
	소계	70
계		317

## 2) 자원(예산내역) 범위

- 자원 측면에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부문 중 일반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문화예술진흥기금(문예기금)이 조사범위에 포함됨
  -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서상 관광부문, 체육부문, 문화관광일반부문은 제외됨
    - 기금 중 관광부문, 체육부문에 해당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제외됨
    -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일부가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및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등의 사업에 지원된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됨
  - 2014년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서상 문화예술부문 1,878,191백만 원 중 894,229백만 원(47.6%)이 해당됨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부문 중 본부는 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포함되며, 종무실, 콘텐츠정책관, 저작권정책관, 미디어정책국, 국가브랜드위원회, 국민통신통실,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은 제외됨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부문 중 소속기관은 예술원사무국,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예술종합학교, 국악중고등학교, 전통예술중고등학교가 포함되며, 국립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정책방송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제외됨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부문 중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포함되며,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은 제외됨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부문 중 이번 조사에 포함한 부분의 예산은 912,436백만 원이고, 그 중에서 세부 사업을 다시 장르 범위, 사업 범위로 검토하고 레벨2의 경상운영비를 제외하면 최종적으로 894,229백만 원이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됨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문화예술 관련 부서 담당사업을 조사대상으로 함
  - 문화예술과(국), 문화예술정책과(국) 등 문화예술과 하위 사업을 모집단으로 두고 사업별 예산을 파악하였음
    - 예술지원사업이 관광과, 체육과 등의 과에 있는 경우 예술진흥이 아닌 타목적 사업에 예술을 활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단, 예술시설(문화예술회관, 시립미술관 등)의 경우에는 예산이 타부서(예. 시설관련 부서)에 있더라도 조사대상으로 포함
- 레벨1과 레벨2의 경상운영비는 제외하되, 레벨3의 경상운영비는 포함
  - 레벨1, 레벨2 기관 예산서에서 특정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운영비는 미포함 하였으나, 레벨3의 경우 기관운영 경비 자체를 예술지원으로 간주하고 조사범위에 포함시킴

## 3) 예술 장르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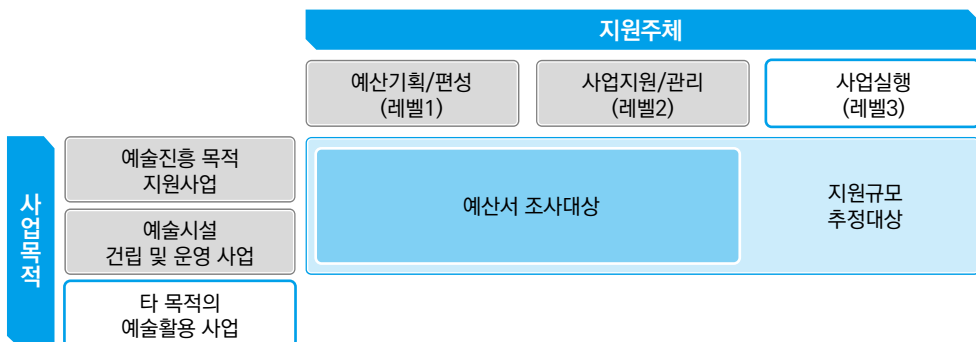
- 예술 장르 범위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 순수예술로 한정하며, 건축, 박물관, 도서관, 출판, 콘텐츠(영화, 게임 등), 문화재 등은 제외시킴

- 순수예술에 속하는 장르들은 시장기반이 미약하여 예술의 지속보존을 위해 정부재정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은 반면, 산업화된 예술 장르(영화, 대중음악, 방송 등)는 산업자본이 활발하게 투여되고 있어 정부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예술의 범위를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으로 정의함
- 교육 및 향유 지원사업 중 예술과 콘텐츠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콘텐츠도 일부 포함됨
- 문화재, 문화유산 등 문화재청 소관 장르와 박물관 관련 사업은 제외되며, 민속놀이, 예절교육(충효교실, 예절문화교육 등), 향토문화, 정월대보름제 등 예술 장르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제외시킴
  - 단, 무형문화재(예술가)의 공연지원은 예술지원으로 보고 포함시킴

#### 4) 사업 범위

- 지원사업 중 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조사범위 한정함
  - 예술지원사업은 크게 (1)예술진흥 목적 지원사업과 (2)예술시설 건립 및 운영 지원사업, (3)타 목적 사업이나 예술을 부분 활용하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예술진흥 목적 지원사업: 예술지원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예술가 및 향유자 지원 (예. 창작 지원, 향유 지원)
    - 예술시설 건립 및 운영 사업: 예술 유통을 위한 시설 건립 및 운영 사업 (예. 공연장, 미술관, 창작공간, 예술진흥형 지역재생)
    - 타 목적의 예술활용 사업: 예술을 도구적으로 활용할 뿐 근본 목적이 예술지원이 아닌 목적 사업(예. 도시재생, 농촌활성화 사업)
  - 본 연구는 예술진흥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과 예술시설 건립 및 운영을 통해 간접적으로 예술진흥을 지원하는 사업을 조사대상으로 함
    - 단, 대학로 문화지구 등 예술진흥이 목적인 예술형 지역재생은 포함하되 환경 등 정비 중심의 문화도시 사업은 제외함

그림 2-4 | 공공부분 조사대상(지원주체 및 사업목적에 의한 구분)



## 라. 사업유형화

- 지원사업은 내용에 따라 ‘창작’, ‘유통/매개’, ‘교육 및 향유’, ‘예술가 복지’, ‘하드웨어 건립’, ‘공공시설 및 단체 운영’, ‘예술형 지역재생’ 등 8개의 대유형으로 구분하고 이하 28개의 세부유형을 둠<sup>7)</sup>
  - ‘작품 지원’에는 예술가/예술단체 지원(복지, 교육 지원은 제외), 작품 지원, 축제 등 프로그램 참가 지원, 창작을 위한 공간 지원 등이 포함됨
    - ‘예술가 복지’는 ‘예술인 지원’의 세부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최근 관심이 높아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독립된 영역으로 구분함
  - ‘유통/매개 지원’ 중 민간 예술시설이나 예술행사 지원, 국제교류 지원, 예술정보 소통 등이 포함됨
    - 민간 공연장을 지원하는 경우 ‘유통/매개 지원’ 유형 중 ‘공연장 지원’에 해당되고,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공연장은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중 ‘공연장 운영’에 포함되며, 이러한 규칙은 미술관, 기타기반시설, 공연단체, 축제에도 적용됨
    - ‘예술정보소통’에는 실태조사, 기초연구, 시장조사, 세미나, 포럼, 컨설팅 등이 포함됨. 단,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하위 사업의 경우 목적에 해당하는 상위 사업의 유형으로 분류함. 예를 들어, 건립을 위한 시장조사는 ‘유통/매개 지원’의 ‘예술정보소통’이 아니라 ‘하드웨어 건립’에 포함됨
  - ‘교육 및 향유 지원’은 예술향유, 생활예술, 예술교육이 포함됨
    - 일반인의 예술창작 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면 ‘생활예술지원’이고, 관람 등 소비활동만 포함되어 있으면 ‘향유 지원’으로 구분함. 예를 들어, 예술동아리활동 지원은 전자에,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후자에 해당됨
    - 교육은 대상에 따라 유형이 달라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교육은 교육 및 향유 지원 중 ‘문화예술 교육’에, 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은 예술가복지 지원 중 ‘예술인력 양성’에 해당됨
    - 예술강사 지원은 교육 및 향유 지원 중 ‘문화예술교육’에 포함됨
  - ‘하드웨어 건립’에는 공공 공연장, 미술관, 복합시설, 기타시설 건립이 포함됨
    - 건물 보수(리노베이션/리모델링)는 ‘하드웨어 건립’에 포함됨
  -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은 민간시설이나 민간단체 지원과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함
    - 문예회관, 기초문화재단은 ‘공연장 운영’에 포함됨
    - 문화의집,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원은 ‘기타예술시설 운영’에 포함됨
  - ‘예술형 지역재생’ 유형<sup>8)</sup>은 대학로 문화지구, 미술의 거리, 아트빌리지 등 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한 지역재생을 포함함

7) <2012-2013 공공·민간 예술지원 현황조사>(이하 ‘전년도 연구’로 표기) 대비 ‘복합시설 운영’과 ‘예술형 지역재생’ 유형이 신설됨. 또한 전년도 ‘축제지원’으로 분류된 사업은 ‘예술행사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컨설팅’ 유형은 ‘정보소통’ 유형으로 포함시킴

8) 이번 연구에서 신설된 사업유형으로 전년도 기타기반시설 건립/운영 중 일부가 예술형 지역재생으로 분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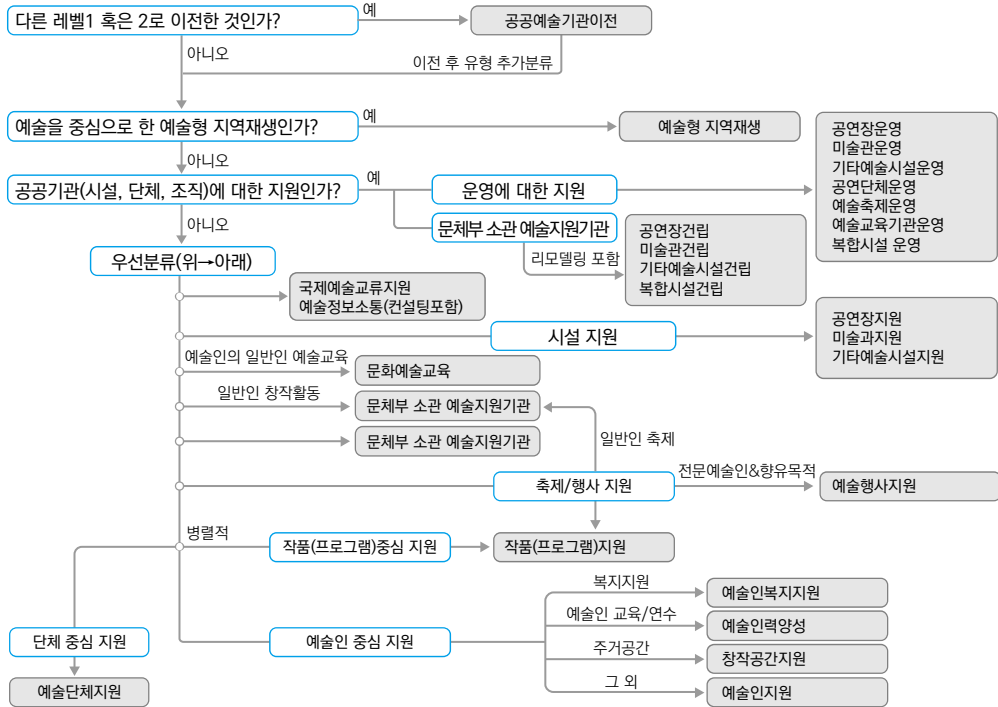
표 2-5 | 지원사업 세부유형

유형	세부유형	정의
창작 지원	작품(프로그램) 지원	프로젝트/프로그램 등을 통한 작품 창작 지원
	예술단체 지원	예술단체 운영 지원
	예술인 지원	예술인 지원 (단, 예술인 교육 및 복지 지원은 해당없음)
	창작공간 지원	예술인에게 창작공간(창작 혹은 생활) 지원
유통/매개 지원	공연장 지원	민간 공연장 지원
	미술관 지원	민간 미술관 지원
	기타예술시설 지원	공연장, 미술관 외 민간 예술시설 지원
	예술행사 지원	민간 예술행사(예술축제 등) 지원 (단, 종교, 관광 등의 축제는 제외)
	국제예술교류 지원	예술활동의 국제교류 지원
교육 및 향유 지원	예술정보소통	민간 예술기관(또는 단체)을 위한 컨설팅 지원, 일반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 활동 지원
	예술향유 지원	예술향유 목적의 사업 예) 찾아가는 문화행사, 문화바우처
	생활예술지원	일반인의 예술활동 지원이 목적인 경우 예) 예술동아리, 일반인 대상 백일장, 사생대회
	문화예술교육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교육 예) 예술강사지원,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예술가복지 지원	예술인 복지 지원	작품 지원, 전문교육지원 외 예술인에 대한 지원
	예술인력 양성	예술인의 전문교육지원(연수/역량강화)인 경우
하드웨어 건립	공연장 건립	공공 예술시설 건립 또는 시설 보수(리노베이션/리모델링)
	미술관 건립	
	기타예술시설 건립	
	복합시설 건립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공연장 운영	공공 공연장 운영
	미술관 운영	공공 미술관 운영
	기타예술시설 운영	공연장 미술관 외 공공 예술시설을 운영
	공연단체 운영	공공 공연단체 운영
	예술축제 운영	공공기관의 축제 직접 운영
	예술교육기관 운영	공공기관의 예술교육기관 운영
	복합시설 운영	예술과 다른 분야(예: 체육시설 등)가 결합된 시설 운영
예술형 지역재생	예술형 지역재생	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한 지역재생사업 예) 문화지구, 미술의 거리, 아트빌리지
기타	기타	위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예술지원



- 지원사업의 유형화를 위해 다음 순서도(flow chart)의 규칙을 적용함

그림 2-5 | 사업 세부유형 분류 순서도



## 마. 조사방법 및 자료수집

- 조사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세출예산서 수집, 예산서를 기준으로 지원사업 추출
  - 문화체육관광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예술 관련과(국),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 광역문화재단 317개 예술지원 기관의 세출예산서(본 예산서 기준)를 전수 조사
    - 각 기관의 세출예산서를 각 기관 홈페이지 접근, 조사 협조공문 발송, 전화통화, 이메일, 방문 등의 개별 접촉을 통해 예산서 자료 요청을 수행함
    - 단,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의 경우 사업정보가 상세한 결산서와 예산서 자료를 함께 사용함
    - 조사기관 317개 중 기초문화재단 두 개를 제외한 315개 기관의 예산서를 취합함
      - 2014년 기준 기초문화재단 총 50개 중 48개 재단으로부터 자료를 취합, 이 중 2개의 예산서는 조사 목적에 부적합하여 46개의 기초문화재단 예산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함
    - 총규모를 산출할 때에는 전년도 조사와 동일하게 기초문화재단을 제외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산정하였으며, 기초문화재단 예산서는 사업유형 조사를 위해 추가로 조사를 실시함
  - 조사범위에 해당하는 세부사업 선별, 해당 예산 파악
    - 각 기관의 세출예산서에 있는 세부사업을 하나하나 확인하여 본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세부사업만 추출함
    - 세출예산서는 아래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본 조사범위(사업 범위, 장르 범위 등)를 확인 후 포함되는 사업만 추출함

표 2-6 | 예산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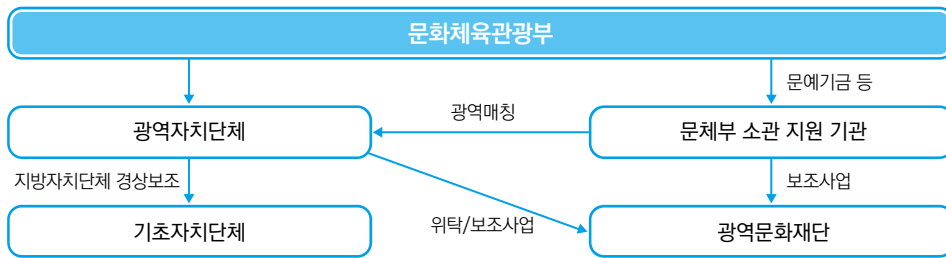
부서, 정책, 단위(회계), 세부사업, 편성목					예산액
부서					000
정책사업					000
단위사업					000
세부사업					000
000 편성목					000
000 통계목					000

- 사업유형화 및 지원규모 산출
  - 추출된 지원사업을 분류체계에 따라 창작, 유통/매개, 교육 및 향유, 예술가 복지, 하드웨어 건립, 공공 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예술형 지역재생 등의 유형으로 구분
  - 타 주체로 이전된 예산이나 출연금 등 두 주체 간 예산흐름으로 중복된 금액은 제거하여 전체 공공 지원규모를 도출하고 세부분석 수행

## 바. 총규모 산출 방법

- 공공부문 예산의 일부는 다음과 같이 다른 주체로 이전이 됨
  - 각 주체별로 예산서 금액을 단순히 합하게 되면 중복이 발생하게 됨

그림 2-6 | 지원주체 간 예산 이전 구조



- 총 지원규모는 조사범위에 해당하는 사업별 지원액을 지원주체별로 합산한 후 기관별 이전에 따른 중복 예산을 제외한 다음 식으로 계산함

그림 2-7 | 총 지원규모 계산식

총 지원규모 =

- 문화체육관광부 직접사업 예산
- +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 직접사업 예산
- + 광역자치단체 예산
  -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전한)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
- + 광역문화재단 자체사업 예산
- + 기초자치단체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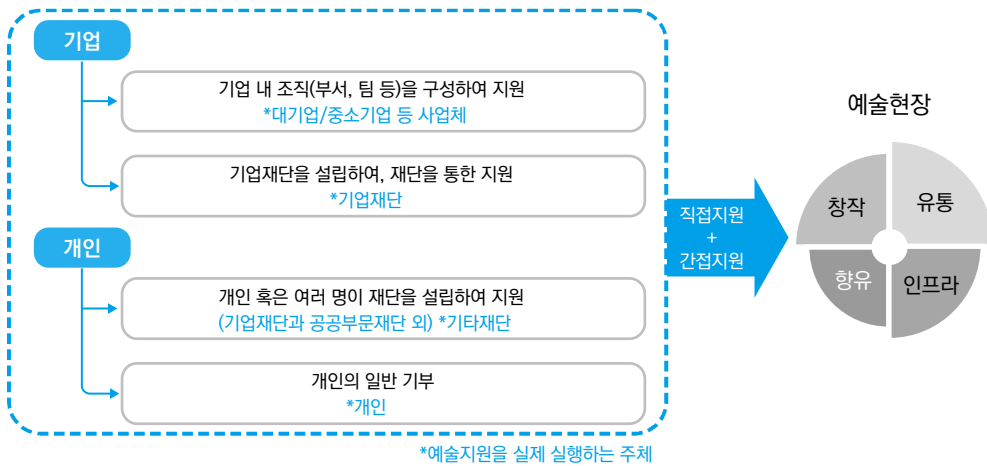
## 2. 민간부문 조사설계

### 가. 민간부문 지원체계

#### 1) 예술지원 주체

- 민간부문은 기업에 의한 예술지원과 개인에 의한 예술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업: 기업이 직접 사내에 조직(부서, 팀 등)을 구성하여 지원하는 경우와 법인형태로 기업재단을 설립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음
    - 기업: 국내 주요 기업들은 사내 사회공헌 전담조직을 두고, 여러 분야의 사회공헌활동을 담당시키고 있음  
(예) 한화그룹의 한화사회봉사단, CJ의 CSV경영실
    - 기업재단: 일부 기업에서는 문화예술분야의 사업을 운영하는 문화재단(기업재단)을 세우고 예술 지원활동을 진행함  
(예) 삼성문화재단, LG연암문화재단
    - 개인: 개인이 재단을 설립하여 지원하는 경우와 개인의 일반 기부로 나눌 수 있으며, 개인의 일반 기부에는 예술가(단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특정 단체(기관) 회원제도를 통한 참여, 모금 운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후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게 됨
      - 개인/단체 재단(=기타재단): 개인 혹은 다수의 발기인이 재단을 설립하여 문화예술을 지원하기도 하며, 기업재단은 출연기업명을 붙이는데 반해, 개인재단은 개인의 호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임  
(예) 원암문화재단, 방일영문화재단
      - 개인(일반기부): 개인의 일반적인 기부로는 예술법인이나 단체(기관)의 회원 등록을 통해 소액을 정기적으로 기부(납입)하거나 후원자로서 일시에 고액 금액을 기부하는 경우임  
(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나무운동 참여, 전문예술법인·단체 기부
      - 또한 온라인 환경에 맞추어, 대중에 의한 새로운 예술 후원 방식인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을 통한 후원이 늘어나고 있음  
(예) ARKO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서울발레시어터 호두까기 인형' 후원

그림 2-8 | 민간부문 예술 지원구조



## 2) 예술지원 형태

- 민간부문 문화예술 지원은 직접지원하는 형태와 간접지원하는 형태가 있음
  - **직접지원:** 외부공익법인을 거치지 않고 조직이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외부와의 협업을 통한 파트너십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로, 지원주체가 지원하고자 하는 예술가(단체)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 예술가 혹은 예술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및 후원(스폰서십), 공연·전시회 등 자체기획 프로그램 운영, 자체 인프라 운영 등이 이에 해당
    - 금전적 기부(현금) 뿐만 아니라 비금전적 기부(현물, 장소, 기술, 인력 등)를 하기도 함
  - **간접지원:** 외부공익법인(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을 거쳐 예술분야에 지원하는 경우로, 지원주체는 공익법인에 금전적 기부를 하고, 공익법인에서는 이러한 기부금을 운용하여 문화예술분야를 지원하게 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조건부 기부금<sup>9)</sup> 형태로 지정 기탁하는 지원(조건부 기부)이 이에 해당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나무운동을 통한 개인의 정기 후원은 개인이 문화예술분야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예

표 2-7 | 민간 지원주체별 주요 지원 형태

지원 주체	지원 형태	
	직접 지원	간접 지원
기업	- 자체 기획/주최(운영)	
기업재단	- 자체 인프라 건립/운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건부 기부
기타재단	- 협찬/후원, 파트너십	
개인(일반기부)	- 예술가(단체) 직접 기부 - 크라우드 펀딩 참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나무운동

9) 조건부 기부금: 기업이나 재단이 특정 공익법인(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 특정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건으로 기탁하는 기부금

## 나. 민간부문 조사범위

### 1) 지원주체 범위

- 조사대상이 되는 지원주체는 ‘기업’, ‘기업재단’, ‘기타재단’, ‘개인(일반기부)’으로 구성함
  - 기업과 기업재단: 우리나라는 개인의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기업과 기업재단이 민간부문의 대표적인 지원주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민간부문 총 지원규모에서 기업과 기업재단의 지원규모는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
    - 기업에서의 지원과 기업재단에서의 지원을 금액 규모면에서 비교하자면 비슷한 수준임
  - 기타재단: 기업 출연 재단이나 공공부문 재단 이외에 개인 혹은 여러 발기인(단체)이 출연한 재단을 ‘기타재단’으로 칭함
    -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개인이나 여러 발기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만든 문화재단이 많지 않음
    - 우리나라 기업재단과 비교하면 그 규모는 매우 작아, 민간부문 총 지원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을 것으로 여겨짐
  - 개인(일반기부): 비록 규모면에서는 작지만, 개인의 일반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나 프로그램들이 일부 있고, 문화예술분야 크라우드 펀딩 시장도 성장하고 있음
    - 타 사회공헌분야보다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개인 후원규모는 매우 작아, 민간부문 총 지원규모 중 그 비중은 매우 낮을 것으로 여겨짐

### 2) 장르 범위

- 공공부문 예술지원과 조사범위와 일치할 수 있도록 2차 자료의 조사범위를 순수예술 장르로 한정하여 조사함(영상/미디어 장르 등의 콘텐츠 장르는 제외)
  - 민간 조사대상이 되는 장르 범위는 2차 자료(데이터) 활용의 측면에서 규정함
  - 구체적으로, ‘국악’, ‘서양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미술’, ‘문학’, ‘전통예술’,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운영<sup>10)</sup>’ 등이 포함됨

표 2-8 | 민간부문 조사범위에 해당하는 장르

국악/전통음악	서양음악/클래식	무용/발레	연극	뮤지컬
미술/전시/사진	문학/고전/서예	전통예술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운영

- ‘전통예술’ 장르에서는 예술창작활동과 관련 없는 민속놀이(제기차기 등), 예절교육(충효교실 등), 향토 문화, 정월대보름제 등은 제외함
- 기업과 기업재단 유형 중 ‘문화예술교육’과 ‘인프라 운영’은 엄밀히 말하면 예술 장르가 아니지만, 민간부문 조사기관에서 별개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기에 본 조사에서도 이러한 관행을 따름

10) ‘인프라 운영’에서 인프라(시설) 건립과 관련된 지원사업은 미포함 되어 있음

- ‘문화예술교육’과 ‘인프라 운영’ 사업의 경우에는, 예술과 콘텐츠의 구분이 불가능하여 콘텐츠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 (예) 복합장르 프로그램을 개설한 예술아카데미 지원, 종합공연장 및 복합공연시설 지원 등
- 기업과 기업재단의 경우 ‘인프라 운영’에는 예술 장르와 관련된 박물관 지원사업과 영화관 지원사업이 포함되며, 이 부분은 공공부문 장르범위와 차이가 나는 부분임
  - 예술 장르 이외의 박물관(김치박물관, 기계박물관 등) 지원사업은 제외하였으나 다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한 조건부 기부로 시행한 박물관 지원사업은 포함되어 있음 (예) 네이버문화재단의 국립한글박물관 후원
  - ‘인프라 운영’ 장르 내에서의 영화관 지원사업은 포함되나 대부분 상업적 목적의 시설후원이 아닌 예술영화나 특수목적의 영화관임 (예) 실버영화관 지원

### 3) 사업 범위

- 조사대상 사업은 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으로 한정
  - 조사대상이 되는 사업 범위는 장르 범위와 동일하게 2차 자료(데이터) 활용의 측면에서 고려하였으며, 이에 한국메세나협회에서 조사한 사업 범위 중 본 보고서의 조사범위와 일치할 수 있도록 예술진흥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만을 대상으로 함
  - 한국메세나협회에서는 예술진흥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예술목적 차원), 마케팅 전략으로 예술을 활용하는 사업(마케팅 차원), 조직 관리에 예술을 활용하는 사업(조직관리 차원)의 3가지 차원<sup>11)</sup>으로 조사를 진행하나, 본 보고서에서는 마케팅과 조직관리 목적의 사업은 제외함

표 2-9 | 기업과 기업재단 지원사업 세부 유형

예술목적차원: 주요 세부 유형
예술영재 지원 활동
문화예술 단체 순수 지원
문화예술 시설 운영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또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전개
예술가 또는 문화예술행사의 협찬/후원

11) 한국메세나협회 조사에서는 예술지원의 사업유형을 ‘사회공헌 전략’, ‘마케팅 전략’, ‘경영 전략’으로 명명

## 다. 조사방법 및 자료수집

그림 2-9 | 민간부문 조사대상별 조사방법

조사대상	2014년 조사방식	2013년 조사방식
기업	<b>2차 자료 활용</b> 1) 한국메세나협회 연차보고서 (Top500 기업+기업재단+한국메세나협회 회원사 등 700여개사)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건부 기부금 데이터 (기업+기업재단 전수조사)	조사를 진행하지 않음
기업재단		
기타재단	<b>직접 설문조사</b> 문화체육관광부를 주무관청으로 등록한 재단법인 중 기업재단과 공공부문 재단을 제외한 문화예술분야 재단 총 64개 전수조사	
개인 (일반기부)	<b>직접 설문조사&amp;2차 자료 활용</b> 1) 전문예술법인·단체 개인 기부금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나눔운동 후원금 3) 문화예술분야 크라우드 펀딩 후원금	

### 1) 기업 및 기업재단

- 1차 자료를 직접 수집하지 않고 2차 자료 활용을 통해서도, 본 조사목적과의 관련성, 타당성, 신뢰성 확보가 가능함
  - 유사한 목적으로 기업 및 기업재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들이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조사결과 비교를 통한 타당성 검토가 가능
  - 기존 조사에서 발표된 민간부문 예술 지원규모의 편차가 크지 않고, 조사에 응하는 기업 및 기업재단의 수가 유사
- 2차 자료를 본 연구목적 및 범위에 맞게 재분석하는 것이 조사의 효율성 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 기업에서 예산 공개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조사와 같은 목적의 조사 진행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전문가 인터뷰 결과)
  - 상반기에 동일한 목적의 조사가 기업 및 기업재단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에(한국메세나협회 연차보고서),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도 그 결과는 유사할 것으로 판단
- 한국메세나협회 조사를 토대로 조사범위/장르 조정 및 재분석함
  - 발표된 민간부문 예술 지원규모 조사 중에 기업 및 기업재단 표본 수가 가장 많고 조사항목이 다양하며 본 조사 목적과 동일한 영역이 있음
    - 한국메세나협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기업 및 기업재단을 대상으로 예술지원사업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연차보고서로 공개
    - 한국메세나협회 조사대상은 대한상공회의소 발표기준 매출액 및 자산총계 기준 500대 기업과 기업



출연 문화재단, 그리고 한국메세나협회 회원사 등으로 700여개사임

- 한국메세나협회 조사에는 기업의 예술 지원활동을 그 사업 목적에 맞추어 사회공헌, 마케팅, 조직관리 차원으로 구분되어 있음
- 본 조사는 한국메세나협회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본 조사목적에 맞게 조사범위/장르 조정 및 재분석 실시
  - 본 조사의 조사대상 중 기업과 기업재단은 한국메세나협회 조사대상표본과 동일하므로 조사대상은 그대로 유지
  - 한국메세나협회 예술지원의 사업유형 중에서 본 조사에서는 예술지원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유형만을 포함
  - 한국메세나협회 사업 장르 중에서 본 조사에서는 순수예술 장르만을 포함 (한국메세나협회 조사 장르 중에서 영상/미디어와 기타 장르를 제외)
- 기업과 기업재단의 간접지원에 대해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공받은 조건부 기부금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기업 및 기업재단이 조건부 기부금 형태로 지정 기탁한 지원규모를 파악함
    - 기업 및 기업재단의 조건부 기부금 납부 실적을 토대로 본 조사범위에 맞는 사업 활동만을 추출하여 전수 파악

## 2) 기타재단

- 기타재단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예술분야 지원 현황을 파악함
  - 기타재단 리스트를 확보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주무관청으로 등록한 재단법인 중 본 조사의 예술 분야에 해당하는 재단명을 정리, 총 64개 기타재단 리스트를 확보함
    - 기타재단의 예술지원과 관련해서는 최근 조사를 진행한 보고서가 없으므로 2차 자료에 기반하여 지원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움
  - 시장조사기관인 미디어리서치사를 통해서 2015년 11월 초 부터 약 40일간 우편, 이메일, 전화, 직접 방문 등의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표 2-10 | 기타재단 조사설계

조사 대상	문화체육관광부를 주무관청으로 등록한 재단법인 중 기업(출연)재단과 공공부문 재단을 제외한 문화예술분야 <sup>12)</sup> 재단
조사 규모	64개사 재단 전수 <sup>13)</sup>
조사 방법	우편, 이메일, 전화, 직접 방문 등의 방식으로 설문조사 실시
조사 기간	2015년 11월 5일 ~ 12월 15일 (40일간)
조사 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12) 재단 중 주 사업영역이 '출판', '건축', '언론', '종교', '문화재/문화유산 보호', '박물관 관리'인 경우는 본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13) 2015년 9월 기준 문화체육관광부를 주무관청으로 등록한 재단법인 중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개인 출연으로 설립한 '현대차정몽구 재단'은 특성상 기업재단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사에서는 기업재단으로 분류함

- 기타재단의 설문지 구성은 ‘재단의 일반정보’, ‘2014년 기준 수지현황’, ‘2014년 사업활동 현황’의 3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음
  - 설문응답의 편의를 위해, ‘2014년 사업활동 현황’ 파트의 경우, 재단에서 수행한 모든 사업활동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후에 데이터 분석 시, 각 재단에서 설문에 응답한 사업활동 중 ‘영상/미디어’, ‘대중음악/콘서트’, ‘기타’ 장르에 해당하는 사업은 배제하고 순수예술 장르에 해당하는 사업만을 분석함

표 2-11 | 기타재단 설문지 조사내용

구분	조사내용
재단 일반정보	재단명/ 설립년도/ 설립자 이름/ 설립자 유형/ 대표자 이름 / 대표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 사업분야
	정규직원 수/ 비정규직원 수/ 문화예술 전문가 수
	재단의 기본재산 출연금
2014년 기준 수지현황	총 수입 금액 및 수입 세부내역 비중
	총 지출 금액 및 지출 세부내역 비중
2014년 사업활동 현황	지원활동명/ 사업명
	사업 장르, 사업유형
	자체 기획(운영) 여부/ 지원방식(현금 또는 현물)/ 조건부 기부 여부
	지원활동 금액: 사업비, 발생수입, 순수지원금

### 3) 개인일반기부

- 우리나라는 개인의 문화예술분야 일반기부 현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사 자료가 사실상 없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하기에도 데이터의 질 대비 노력이 많이 들어 비효율적임
  - 미국은 기부현황을 공개하는 비영리단체 GIVING USA에 의해 개인기부 금액 총액 및 분야별 기부 규모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도 개인이 국제청 신고를 통한 세제혜택을 받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관련 기관(단체)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법정기부금 지정단체로서 이 기관을 통해 문화예술분야에 기부하면 법정기부금으로 인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대표적인 제도로는 예술나무운동이 있음
    - 비영리 전문예술법인·단체에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문화예술분야 지원의 대표적인 제도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관리 중임
  - 또한 개인일반기부의 또 다른 형태인 크라우드 펀딩은 크라우드 펀딩 업체 조사를 통해서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음
- 이에, 개인의 일반기부는 전문예술법인·단체 개인기부금, 예술나무운동 정기 후원금, 문화예술분야 크라우드 펀딩 후원금을 합산하여 추정함
  - 전문예술법인·단체 개인기부금: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매년 발간하는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에서

공개한 개인기부금 데이터를 통해 조사

-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 매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운영 현황조사를 진행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를 발간, 전문예술법인·단체에 지정기부금 형태로 기부한 개인의 기부금액을 공개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개인기부금 자료는 예술분야에 개인이 직접 기부한 금액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데이터임

#### 참고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 제도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 제도란, 수준 있는 민간 직업예술법인·단체, 공연(장)·전시(시설) 운영 법인·단체 등을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로 지정하는 제도
- 문화예술분야의 대표적인 자원(후원/기부) 제도로서,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게 기부금 모집 및 세제 등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기관·단체로의 육성을 목표로 2000년부터 도입·실시되고 있음
-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법인 및 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해 공공 자원이나 기업 혹은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창작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 **예술나무운동 정기 후원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제공받은 예술나무운동의 정기 후원금(개인의 정기 납입금 총액) 데이터를 통해 기부규모 조사
- 예술나무운동은 개인이 정기 후원(정기 납입)을 통해 예술분야에 후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임

#### 참고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나무운동

- 예술나무운동이란, 예술을 우리가 키워야 할 나무로 형상화하여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개인의 예술후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부금 사업의 브랜딩 캠페인
- 2012년 10월 '예술나무운동 발족식' 개최 후, 개인의 문화예술에 대한 소액 후원과 관련해서는 크라우드 펀딩(ARKO 예술나무)<sup>14)</sup>과 정기 후원의 사업 활동을 진행 중
- 개인의 정기 후원은 '1인 1예술나무 키우기'로 월 3,000원부터 후원 가능

- **문화예술분야 크라우드 펀딩 후원금**: 2014년에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한 업체 11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개인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예술분야 후원규모를 조사
- 조사방법은 이메일 설문조사 및 홈페이지에 공개된 프로젝트 정보를 수집하여 원데이터를 얻는 방법과 2차 자료 및 전문가 의견에 의한 추정치를 얻는 방법을 이용
- 총 11개 업체 중 2014년 예술분야 성공 프로젝트가 있는 업체는 영리업체 6개사(텀블벅, 와디즈, 유캔펀딩 등)와 비영리업체 1개사(ARKO 예술나무)이며, 4개사(굿펀딩, 펀딩21, 오마이컴퍼니, 펀루)는 없음
- 예술분야 성공 프로젝트가 있는 7개사 중, 5개사는 원데이터를 확보하였고, 2개사는 2차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통한 추정치를 확보

14) 'ARKO 예술나무'는 개인의 크라우드 펀딩 참여에 의한 문화예술분야 지원이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 후원금 규모에 데이터를 합산하여 개인일반기부 규모 파악에 활용함

표 2-12 | 조사대상 클라우드 펀딩 업체

업체명	홈페이지	설립연도	2014년 예술분야 성공 프로젝트 유무
텀블벅	www.tumblbug.com	2011	있음
와디즈	www.wadiz.kr	2012	있음
유캔펀딩	2015년 초 사업종료	2011	있음
유캔스타트	www.ucanstart.com	2012	있음
키다리펀딩	www.keedari.com	2013	있음
씨펀	crowd.cfun.co.kr	2013	있음
ARKO 예술나무	www.artistree.or.kr/main.do	2011	있음
굿펀딩	www.goodfunding.net	2012	없음
펀딩21	www.funding21.com	2013	없음
오마이컴퍼니	www.ohmycompany.com	2012	없음
펀루	www.funroo.net	2011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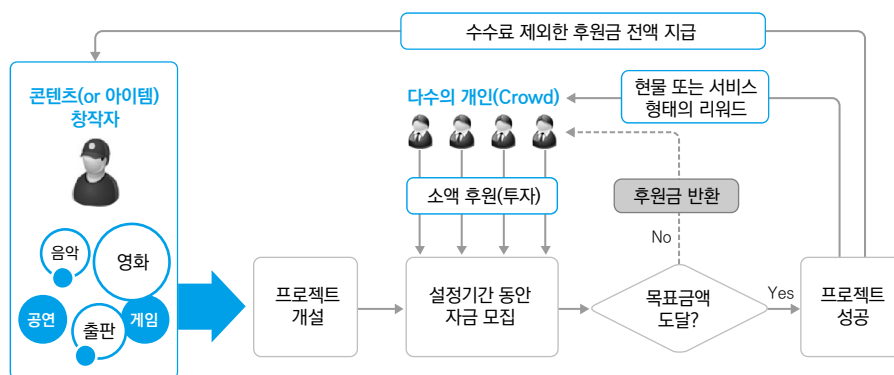
## 참고 | 클라우드 펀딩

- 클라우드 펀딩이란,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규모 후원이나 투자를 받기 위해 인터넷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
  - 최근 클라우드 펀딩이 스타트업 붐과 맞물려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문화예술분야에서도 금전적으로 어려운 창작자 혹은 예술가에게 문화예술 활동 등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창구로 작용
- 클라우드 펀딩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지분투자형, 대출형, 후원형, 기부형으로 구분 가능하나 국내의 문화예술분야 클라우드 펀딩은 현재 '후원형' 서비스임
  - 후원형 서비스는 다수의 후원자들이 모금자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 대신 비금전적 보상(현물, 서비스 등)을 받는 구조임

클라우드 펀딩 유형 및 특징

유형	특징	대표업체
투자형	지분형	기업 자금 공급이나 스타트업 지분투자자 지분과 이자 등의 보상을 받음 오픈트레이드 오퍼툼
	대출형	개인 및 개인 사업자를 위한 소액 신용 대출로 온라인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임 머니옥션 팝펀딩
비투자형	후원형	프로젝트에 자금을 후원하는 대신에 제품이나 서비스 등의 현물로 보상을 받음(주로 콘텐츠 및 문화예술분야 프로젝트 후원) 텀블벅 와디즈
	기부형	순수 기부 목적의 자금 지원으로, 사회/환경 문제 해결이나 소외계층을 도움 위제너레이션 위시플렉스

후원형 클라우드 펀딩 서비스 구조



※ 콘텐츠 혹은 아이템 창작자가 클라우드 펀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프로젝트를 개설하고 모금액과 모금기간을 정하면, 다수의 개인들이 설정 기간 동안 소액 후원을 하게 되고, 그 기간 내 목표금액이 모이면 프로젝트는 성공함. 프로젝트 성공 시, 창작자는 후원금 전액을 지원받고, 후원자들은 비금전적 보상을 받게 됨





## 제3장

### 공공부문 예술지원

1. 공공부문 총규모
2. 지원주체별 지원규모
3. 사업유형별 지원규모
4. 지역별 지원규모
5. 기타 분석
6. 2013년, 2014년 지원규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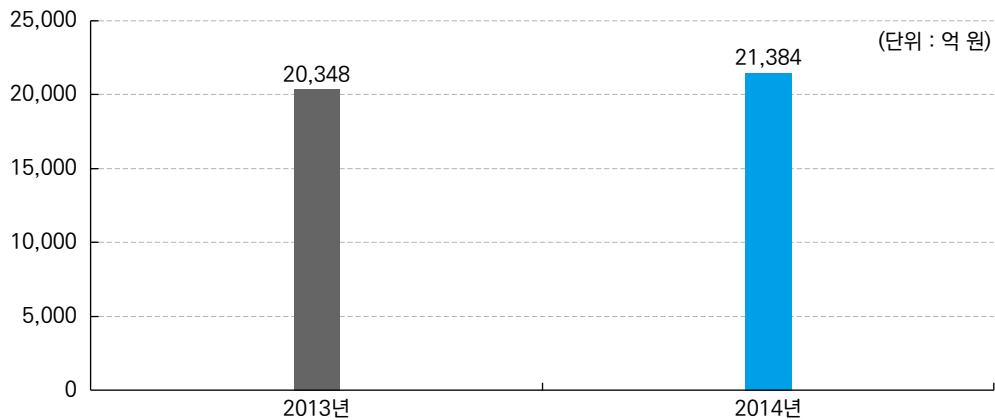


## 1. 공공부문 총규모

### 가. 총 지원규모

- 2014년 공공부문 예술지원 총규모는 2조 1,384억 원
- 2014년 총 지원규모는 2조 1,384억 원으로 2013년 총 지원규모인 2조 348억 원에 비해 5.1% 증가함

그림 3-1 | 2014 총 지원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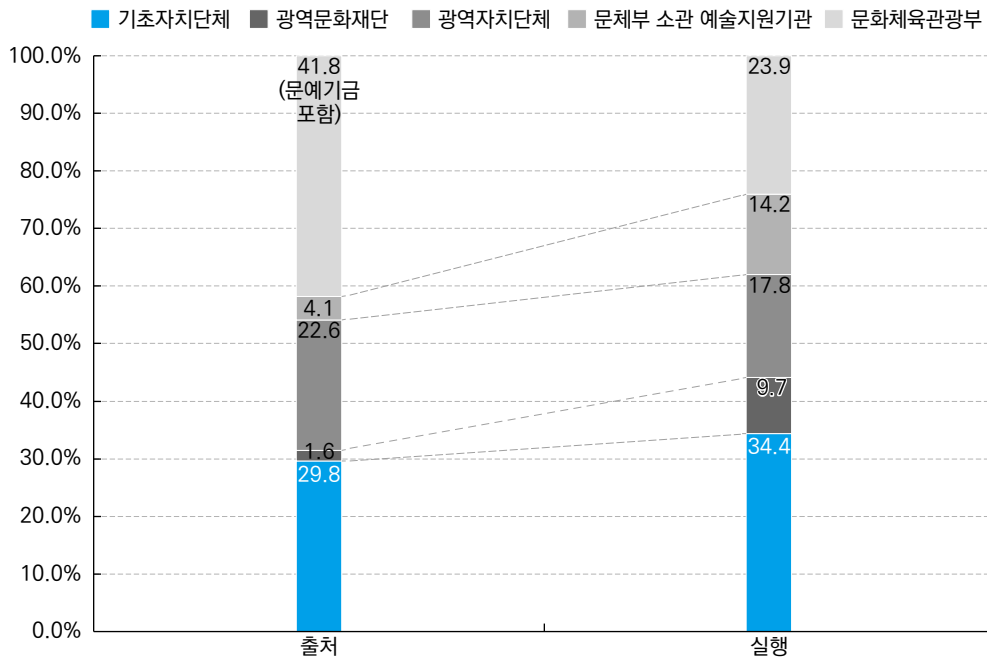


## 나. 지원구조

### 1) 예산의 출처와 실행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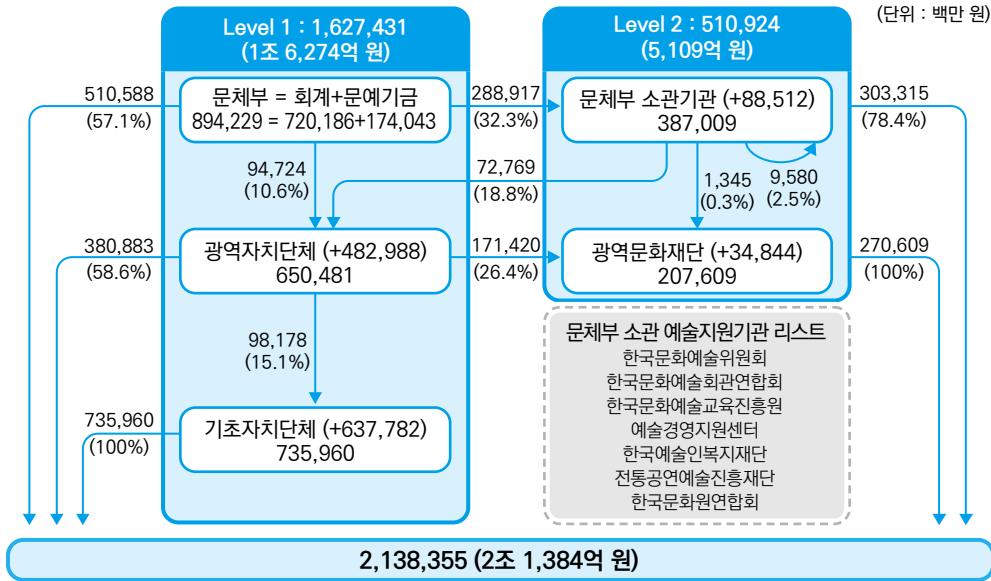
- 지원금의 출처(재원을 동원한 주체)를 보면 문화체육관광부(문예기금 포함)가 41.8%로 가장 높고, 실행(사업을 실제로 집행한 주체) 차원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34.4%로 가장 높음
  - 2014년 총 지원규모인 2조 1,384억 원의 출처를(재원을 동원한 주체 기준) 보면 문화체육관광부(문예기금 포함)가 41.8%로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가 29.8%, 광역자치단체 22.6% 순임
  - 사업실행(사업을 실제로 집행한 주체) 차원에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역자치단체의 비율이 23.9%, 17.8%로 각각 낮아지고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과 기초자치단체, 광역문화재단의 비중이 14.2%, 9.7%로 높아짐
- 광역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사업의 경우 출처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 실행에서는 광역문화재단에 포함되어 있음

그림 3-2 | 예술지원 예산의 출처와 실행 비중



## 2) 예산 흐름도

그림 3-3 | 예산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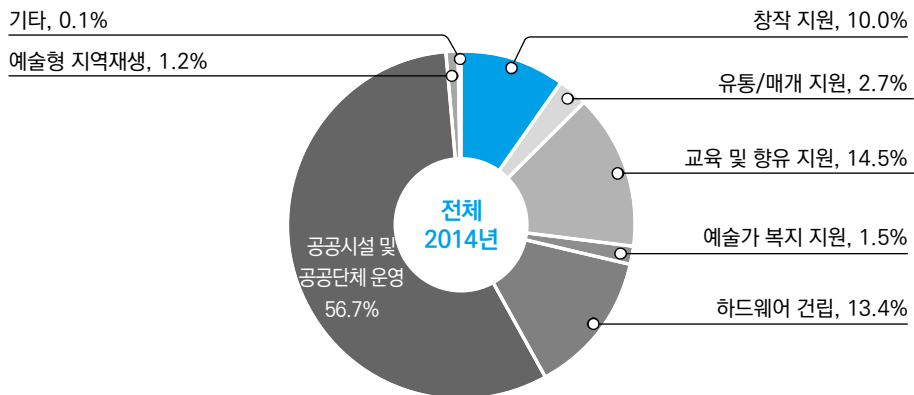
- 총규모 2조 1,384억 원 중 37.4%(894,229백만 원)의 출처는 문화체육관광부(문예기금 174,043백만 원 포함)임
  - 894,229백만 원 중에서 288,917백만 원(32.3%, 문예기금 174,043백만 원 포함)은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에게, 94,724백만 원(10.6%)은 광역자치단체에게 이전시킴
  - 이전(42.9%)시키고 남은 나머지 510,588백만 원(총 실행규모의 23.9%,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의 57.1%)은 레벨3에게 지원하거나 예술가 혹은 향유자에게 직접 실행함
- 총규모 2조 1,384억 원 중 1.6%(88,512백만 원)의 출처는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임
  - 자체적으로 동원한 88,512백만 원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이전받은 288,917백만 원(문예기금 174,043백만 원 포함) 그리고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 간 이전 금액인 9,580백만 원을 합한 387,009백만 원이 예산서상 총 금액임
    -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 간 이전 금액에는 예를 들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기금)가 한국문화원연합회에게 이전한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이 있음
  - 387,009백만 원 중에서 72,769백만 원(18.8%)은 광역자치단체에게, 1,345백만 원(0.3%)은 광역문화재단에게, 9,580백만 원(2.5%)은 다른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에게 이전시킴
  - 이전시키고 남은 나머지 303,315백만 원(총 실행 규모의 14.2%,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 예산의 78.4%)은 레벨3에게 지원하거나 예술가 혹은 향유자에게 직접 실행함

- 총규모 2조 1,384억 원 중 22.6%(482,988백만 원)의 출처는 광역자치단체임
  - 자체적으로 동원한 482,988백만 원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이전받은 94,724백만 원 그리고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72,769백만 원을 합한 650,481백만 원이 예산서상 총 금액임
    -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으로부터 광역자치단체로 이전된 금액에는 예를 들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기금)의 사랑티켓, 문화바우처,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지자체공연예술활성화지원) 사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회문화 예술교육지원사업 등 ‘매칭’ 사업이 있음
  - 650,481백만 원 중에서 171,420백만 원(26.4%)은 광역문화재단에게, 98,178백만 원(15.1%)은 기초자치단체에게 이전시킴
  - 이전시키고 남은 나머지 380,883백만 원(총 실행 규모의 17.8%, 광역자치단체 예산의 58.6%)은 레벨3에게 지원하거나 예술가 혹은 향유자에게 직접 실행함
  
- 총규모 2조 1,384억 원 중 1.6%(34,844백만 원)의 출처는 광역문화재단임
  - 자체적으로 동원한 34,844백만 원과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171,420백만 원 그리고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1,345백만 원을 합한 207,609백만 원이 예산서상 총 금액임
    -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광역문화재단으로 이전된 금액에는 예를 들어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이 광역자치단체로 이전한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등이 있음 (광역문화재단으로의 위탁사업도 이전으로 봄)
  - 예산서 상 금액 207,609백만 원은 모두 레벨3에게 지원하거나 예술가 혹은 향유자에게 직접 실행함
  
- 총규모 2조 1,384억 원 중 29.8%(637,782백만 원)의 출처는 기초자치단체임
  - 자체적으로 동원한 637,782백만 원과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98,178백만 원을 합한 735,960백만 원이 예산서상 총 금액임
    -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기초자치단체로 이전된 금액에는 예를 들어 지방문화원 특성화 사업지원, 문화학교 지원, 하드웨어 건립 사업 등이 있음
  - 예산서 상 금액 735,960백만 원은 레벨3에게 지원하거나 직접 지원사업을 실행함

### 3) 전체 사업유형

-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교육 및 향유 지원
  - 이전에 따른 중복을 제외하고 유형화하면, 총규모 2조 1,384억 원 중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이 56.7%로 가장 많고, 교육 및 향유 지원 14.5%, 하드웨어 건립 13.4%, 창작 지원 10.0% 순

그림 3-4 | 전체 사업유형별 비중



- 세부유형으로 보면, 공연장 운영(30.0%)이 가장 많고, 공연단체 운영(9.9%), 작품 지원(7.8%) 순
  - 공연장 운영에는 공연장 경상운영비 뿐만 아니라 공연장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및 단체 지원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그림 3-5 | 전체 사업 세부유형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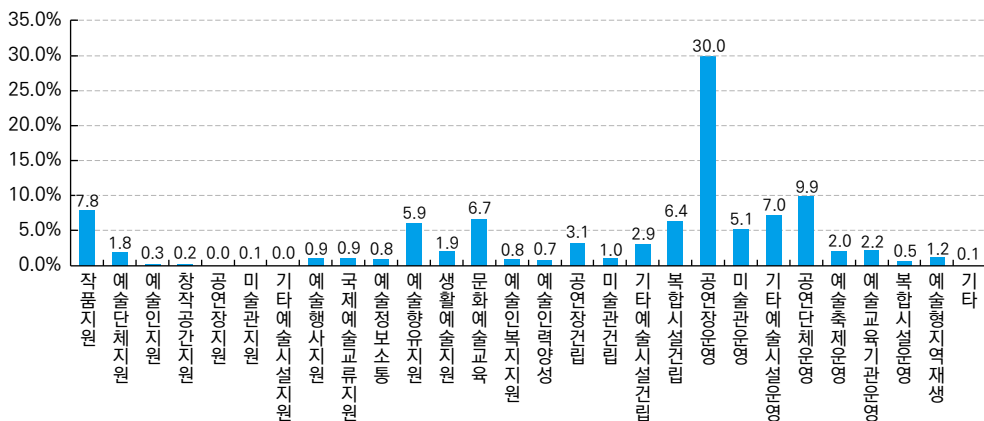


표 3-1 | 전체 사업유형별 금액과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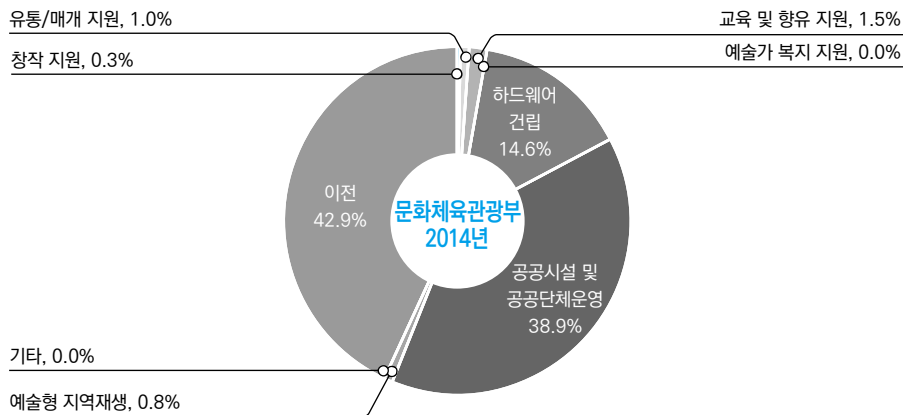
유형	금액 (백만 원)	비율	세부유형	금액 (백만 원)	비율
창작 지원	213,710	10.0%	작품지원	166,050	7.8%
			예술단체지원	37,837	1.8%
			예술인지원	5,408	0.3%
			창작공간지원	4,415	0.2%
유통/매개 지원	58,118	2.7%	공연장지원	327	0.0%
			미술관지원	1,915	0.1%
			기타예술시설지원	814	0.0%
			예술행사지원	19,250	0.9%
			국제예술교류지원	19,079	0.9%
			예술정보소통	16,733	0.8%
			예술향유지원	125,568	5.9%
교육 및 향유 지원	309,952	14.5%	생활예술지원	41,229	1.9%
			문화예술교육	143,155	6.7%
			예술인복지지원	17,912	0.8%
예술가복지지원	31,897	1.5%	예술인력양성	13,985	0.7%
			공연장건립	66,455	3.1%
하드웨어 건립	286,039	13.4%	미술관건립	20,647	1.0%
			기타예술시설건립	61,858	2.9%
			복합시설건립	137,079	6.4%
			공연장운영	641,669	30.0%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1,211,873	56.7%	미술관운영	110,029	5.1%
			기타예술시설운영	149,925	7.0%
			공연단체운영	211,304	9.9%
			예술축제운영	42,559	2.0%
			예술교육기관운영	46,139	2.2%
			복합시설운영	10,249	0.5%
			예술형 지역재생	24,629	1.2%
예술형 지역재생	24,629	1.2%	예술형지역재생	24,629	1.2%
기타	2,137	0.1%	기타	2,137	0.1%
총금액	2,138,355	100%	총금액	2,138,355	100%

## 2. 지원주체별 지원규모

### 가. 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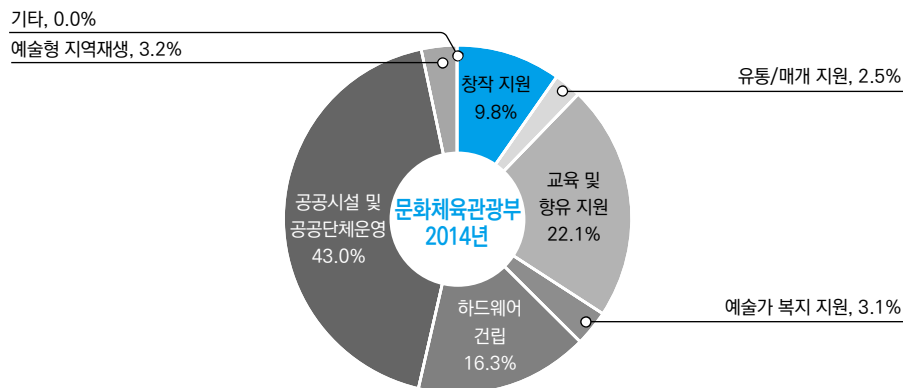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지원 예산은 타기관으로의 이전금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이 높음
-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예산(문예기금 포함) 중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과 광역자치단체 이전금(42.9%)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38.9%)과 하드웨어를 건립(14.6%) 비중이 높음

그림 3-6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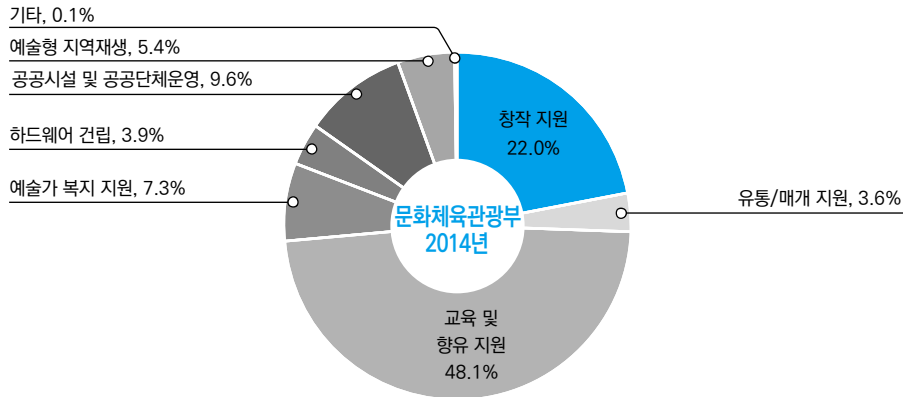
-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을 이전금의 사용내용까지 합쳐서 분석해 보면,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43.0%)이 가장 많고, 교육 및 향유 지원(22.1%), 하드웨어 건립(16.3%), 창작 지원(9.8%) 순임

그림 3-7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타기관 이전 포함)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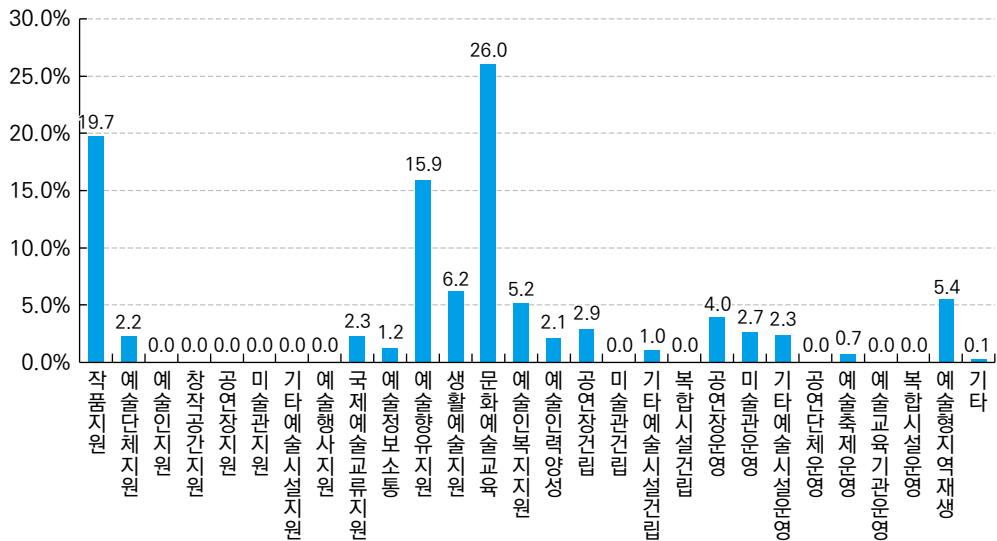
- 문화체육관광부가 타기관으로 이전한 383,641백만 원이 어떤 유형으로 실행되는지를 분석해 보면, 교육 및 향유 지원이 48.1%로 가장 많고, 창작 지원(22.0%), 공공시설/단체 운영(9.6%) 순임

그림 3-8 | 문화체육관광부 타기관 이전 금액 사업유형화



- 타기관으로 이전한 금액을 세부유형화해보면, 문화예술교육(26.0%)이 가장 많고, 작품 지원(19.7%), 예술향유 지원(15.9%)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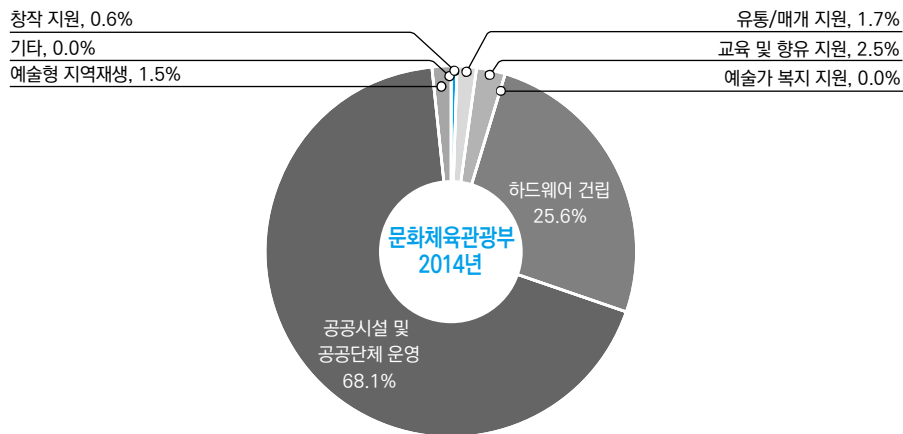
그림 3-9 | 문화체육관광부 타기관 이전 금액 사업 세부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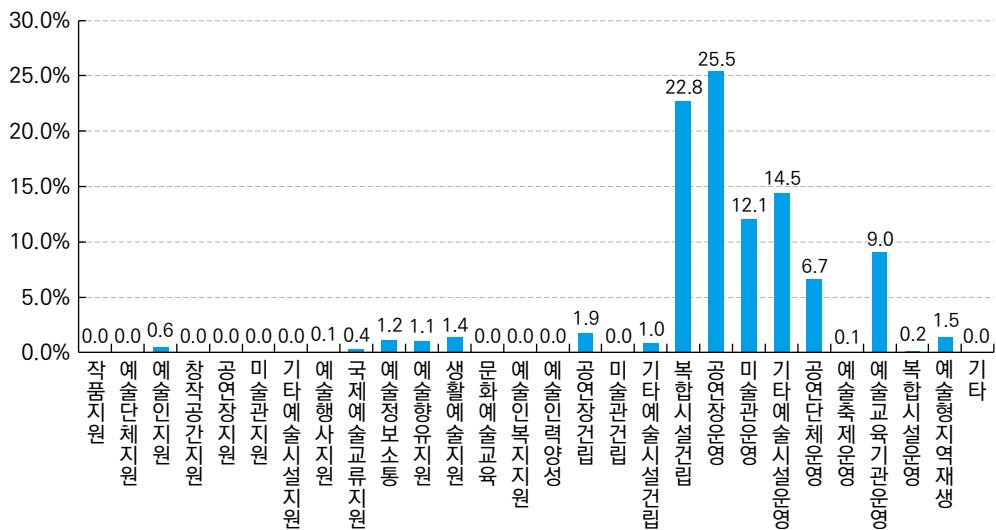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실행한 사업은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과 하드웨어 건립이 대부분임
- 타기관에 이전한 금액을 제외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실행한 510,588백만 원 중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이 68.1%로 가장 많고, 하드웨어 건립 25.6%, 교육 및 향유 지원 2.5% 순임

그림 3-10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타기관 이전 제외) 유형화



- 세부유형으로 보면, 공연장 운영(25.5%)이 가장 많고, 복합시설 건립(22.8%), 기타예술시설운영 (14.5%), 미술관 운영(12.1%) 순임

그림 3-11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타기관 이전 제외) 세부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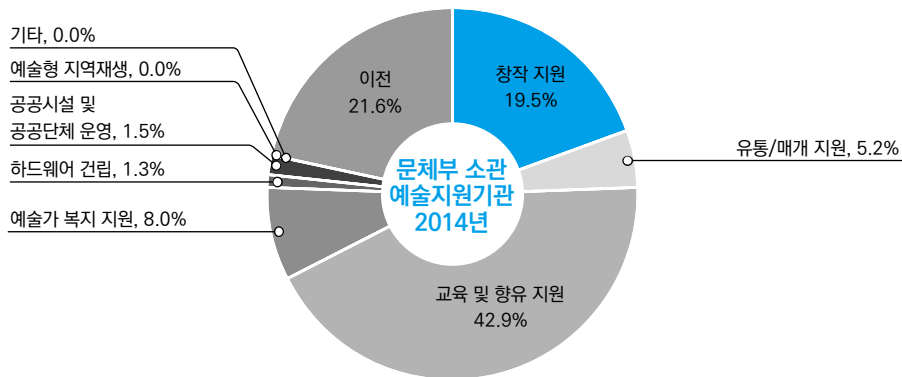
**표 3-2 | 문화체육관광부 직접 실행 사업유형별 금액과 비율**

유형	금액 (백만 원)	비율	세부유형	금액 (백만 원)	비율
창작 지원	3,048	0.6%	작품지원	-	0.0%
			예술단체지원	200	0.0%
			예술인지원	2,848	0.6%
			창작공간지원	-	0.0%
유통/매개 지원	8,551	1.7%	공연장지원	-	0.0%
			미술관지원	-	0.0%
			기타예술시설지원	-	0.0%
			예술행사지원	420	0.1%
			국제예술교류지원	1,977	0.4%
			예술정보소통	6,154	1.2%
			예술향유지원	5,700	1.1%
교육 및 향유 지원	13,010	2.5%	생활예술지원	7,110	1.4%
			문화예술교육	200	0.0%
			예술가복지지원	-	0.0%
예술가복지지원	-	0.0%	예술인력양성	-	0.0%
			공연장건립	9,500	1.9%
하드웨어 건립	130,654	25.6%	미술관건립	-	0.0%
			기타예술시설건립	4,952	1.0%
			복합시설건립	116,202	22.8%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347,825	68.1%	공연장운영	130,057	25.5%
			미술관운영	61,873	12.1%
			기타예술시설운영	73,980	14.5%
			공연단체운영	34,376	6.7%
			예술축제운영	400	0.1%
			예술교육기관운영	46,139	9.0%
			복합시설운영	1,000	0.2%
			예술형 지역재생	7,500	1.5%
			기타	-	0.0%
총금액	510,588	100%	총금액	510,588	100%

##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술지원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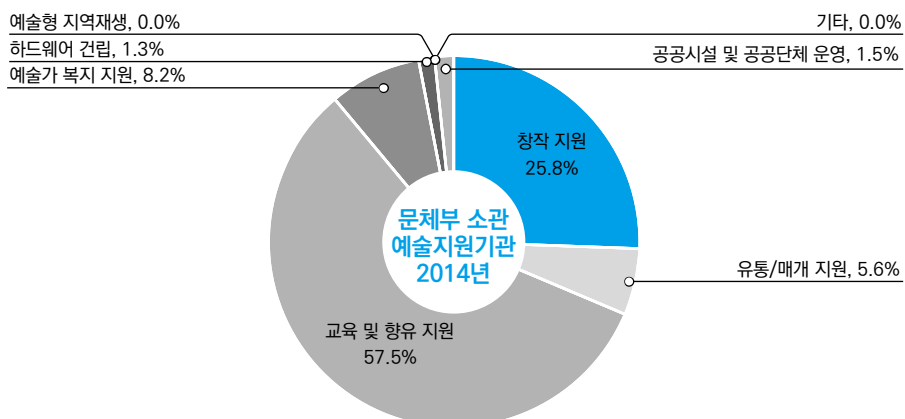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술지원기관 사업은 교육 및 향유 비중이 42.9%로 가장 높음
  -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은 예산서상 금액 387,009백만 원을 교육 및 향유 지원(42.9%)에 사용하였고, 창작 지원(19.5%)과 타기관 이전(21.6%)이 다음 순임

그림 3-12 |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 사업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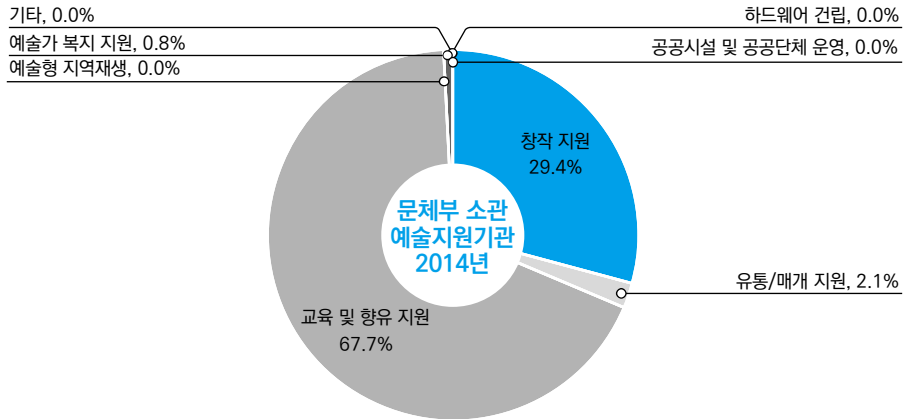
- 타기관으로 이전한 금액까지 유형화하여 분석해 보면, 교육 및 향유 지원(57.5%)이 가장 많고, 창작 지원(25.8%), 예술가 복지 지원(8.2%) 순임

그림 3-13 |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 사업(타기관 이전 포함)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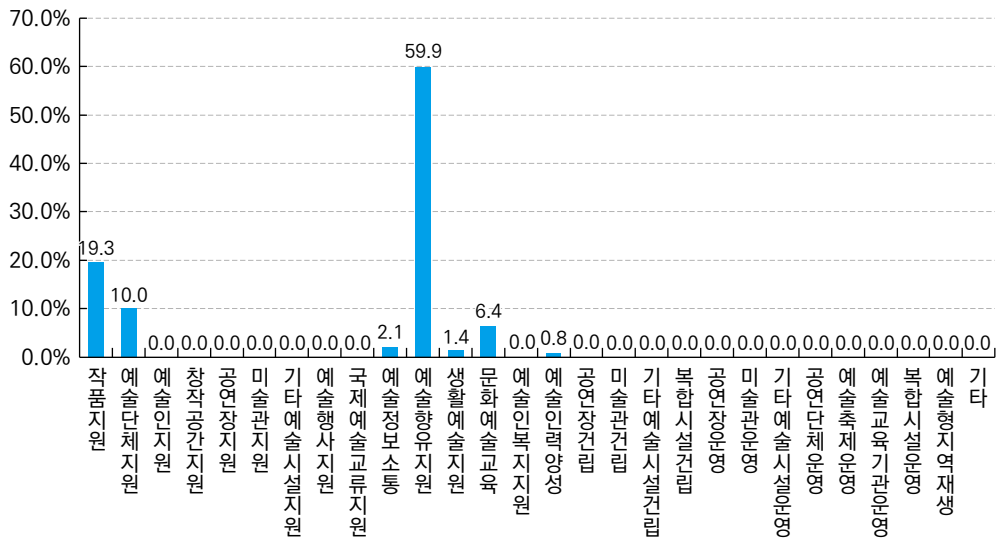
- 타기관으로 이전한 83,694백만 원이 어떤 유형으로 실행되는지를 분석해 보면, 교육 및 향유 지원이 67.7%로 가장 많고, 창작 지원(29.4%) 순임

그림 3-14 |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 타기관 이전 금액 사업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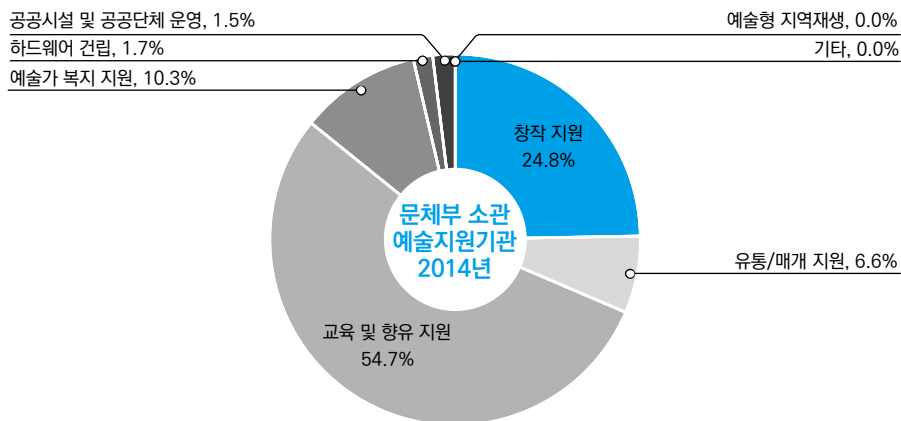
- 타기관으로 이전한 금액을 세부유형화해보면, 예술향유 지원(59.9%)이 가장 많고, 작품 지원(19.3%), 예술단체 지원(10.0%), 문화예술교육(6.4%) 순임

그림 3-15 |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 타기관 이전 금액 사업 세부유형화



-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에서 직접 실행한 사업은 교육 및 향유 비중이 가장 높고, 창작, 예술가 복지 순임
- 타기관에 이전한 금액을 제외하고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이 직접 실행한 303,315백만 원 중 교육 및 향유 지원이 54.7%로 가장 많고, 창작 지원(24.8%), 예술가 복지 지원(10.3%), 유통/매개 지원(6.6%) 순임

그림 3-16 |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 사업(타기관 이전 제외) 유형화



- 세부유형화하면, 문화예술교육(35.9%)이 가장 많고, 작품 지원(23.1%), 예술향유 지원(12.5%), 생활예술 지원(6.3%) 순임

그림 3-17 |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 사업(타기관 이전 제외) 세부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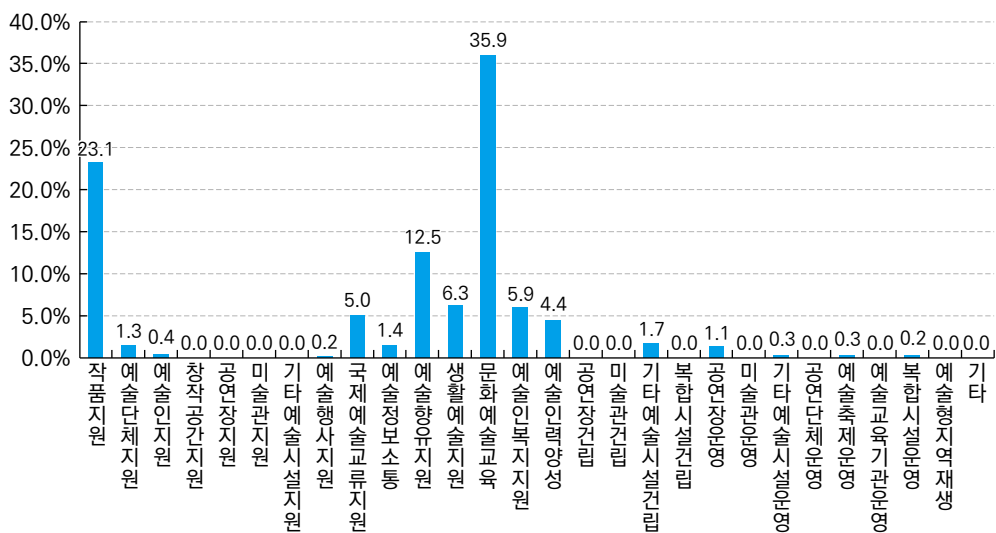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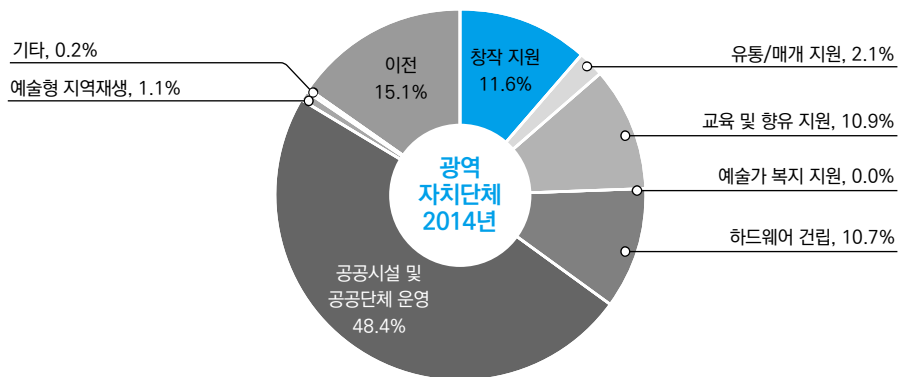
표 3-3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술지원기관 직접 실행 사업유형별 금액과 비율

유형	금액 (백만 원)	비율	세부유형	금액 (백만 원)	비율
창작 지원	75,313	24.8%	작품지원	70,095	23.1%
			예술단체지원	4,020	1.3%
			예술인지원	1,198	0.4%
			창작공간지원	-	0.0%
유통/매개 지원	20,111	6.6%	공연장지원	-	0.0%
			미술관지원	-	0.0%
			기타예술시설지원	-	0.0%
			예술행사지원	520	0.2%
			국제예술교류지원	15,309	5.0%
			예술정보소통	4,282	1.4%
			예술향유지원	37,894	12.5%
교육 및 향유 지원	165,876	54.7%	생활예술지원	18,983	6.3%
			문화예술교육	108,999	35.9%
			예술인복지지원	17,878	5.9%
예술가복지지원	31,117	10.3%	예술인력양성	13,239	4.4%
			공연장건립	-	0.0%
하드웨어 건립	5,200	1.7%	미술관건립	-	0.0%
			기타예술시설건립	5,200	1.7%
			복합시설건립	-	0.0%
			공연장운영	3,391	1.1%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5,698	1.9%	미술관운영	109	0.0%
			기타예술시설운영	784	0.3%
			공연단체운영	-	0.0%
			예술축제운영	790	0.3%
			예술교육기관운영	-	0.0%
			복합시설운영	624	0.2%
			예술형 지역재생	-	0.0%
예술형 지역재생	-	0.0%	예술형지역재생	-	0.0%
기타	-	0.0%	기타	-	0.0%
총금액	303,315	100%	총금액	303,315	100%

#### 다. 광역자치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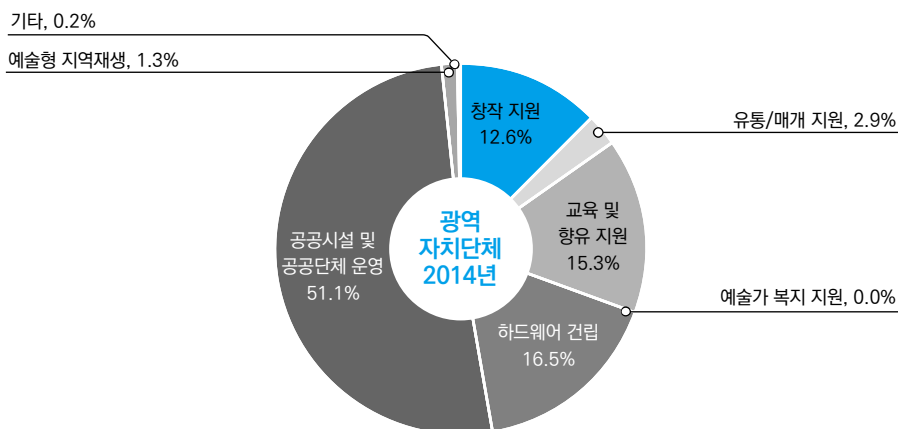
- 광역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비중이 가장 높고 하드웨어 건립과 타기관으로 이전이 다음임
- 광역자치단체는 예산서상 금액 650,481백만 원을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48.4%)에 사용하였고, 창작 지원(11.6%), 교육 및 향유(10.9%), 하드웨어 건립(10.7%)이 그 다음임
- 광역자치단체에서 광역문화재단으로 위탁한 사업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사업으로 포함시켜 분석함

그림 3-18 | 광역자치단체 사업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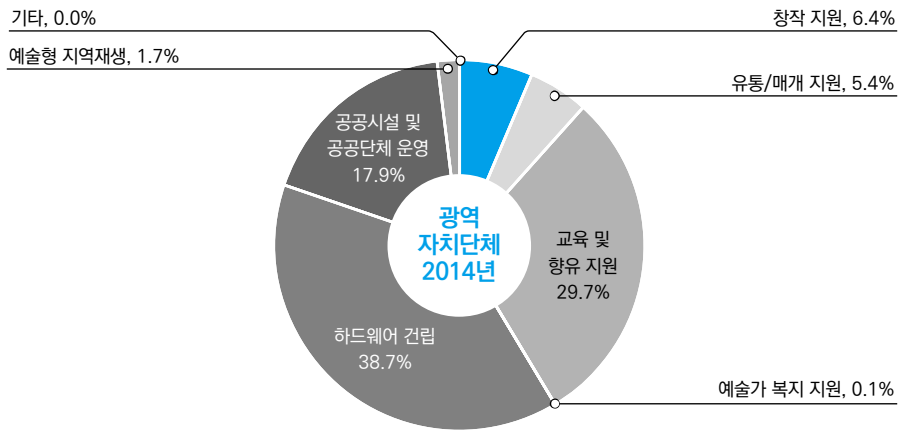
- 타기관으로 이전한 금액까지 합쳐서 광역자치단체 사업을 유형화하면,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51.1%)이 가장 많고, 하드웨어 건립(16.5%), 교육 및 향유 지원(15.3%), 창작 지원(12.6%) 순임

그림 3-19 | 광역자치단체 사업(타기관 이전 포함)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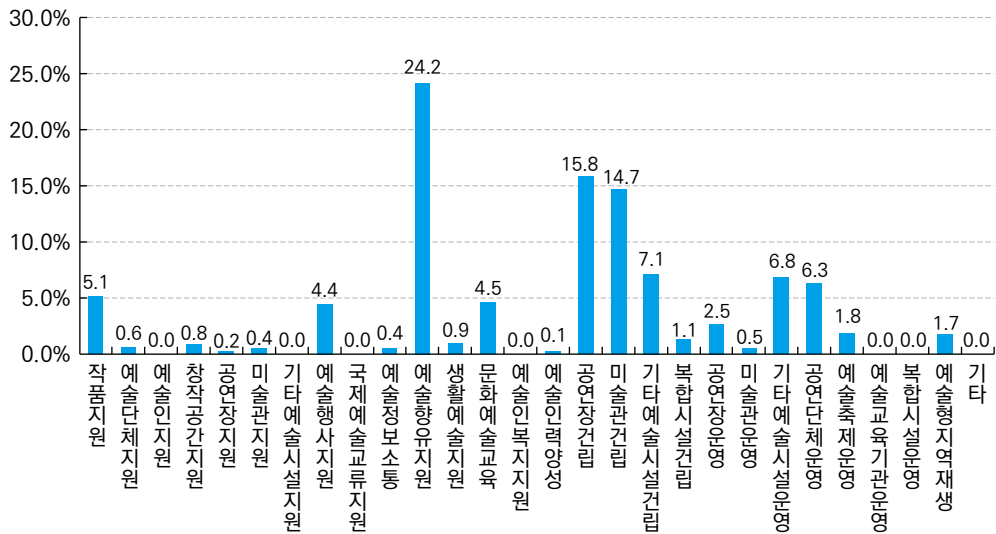
-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전한 98,178백만 원(광역자치단체 예산의 15.1%)이 어떤 유형으로 실행되는지를 보면, 하드웨어 건립이 38.7%로 가장 많고, 교육 및 향유 지원(29.7%),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17.9%) 순임

그림 3-20 | 광역자치단체 타기관 이전 금액 사업유형화



- 기초자치단체로 이전한 금액을 세부유형화해보면, 예술향유 지원(24.2%)이 가장 많고, 공연장 건립(15.8%), 미술관 건립(14.7%)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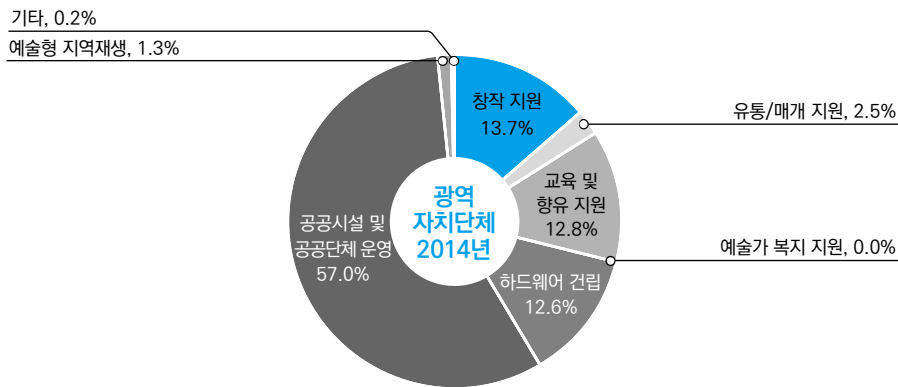
그림 3-21 | 광역자치단체 타기관 이전 금액 사업 세부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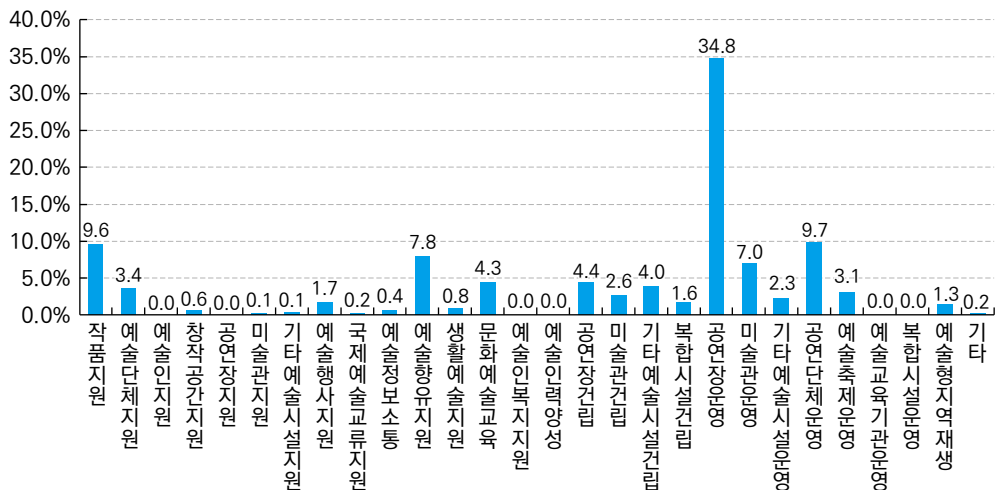
- 광역자치단체에서 직접 실행한 사업은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이 가장 많고, 창작 지원, 교육 및 향유 지원, 하드웨어 건립 순임
- 타기관에 이전한 금액을 제외하고 유형화하면,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실행한 552,303백만 원 중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이 57.0%로 가장 많고, 창작 지원(13.7%), 교육 및 향유 지원(12.8%), 하드웨어 건립(12.6%) 순임<sup>15)</sup>

그림 3-22 | 광역자치단체 사업(타기관 이전 제외) 유형화



- 세부유형화하면, 공연장 운영(34.8%)이 가장 많고, 공연단체 운영(9.7%), 작품 지원(9.6%), 예술향유 지원(7.8%) 순임<sup>16)</sup>

그림 3-23 | 광역자치단체 사업(타기관 이전 제외) 세부유형화



15) 광역자치단체에서 광역문화재단으로 위탁한 사업 171,420백만 원을 광역자치단체 사업으로 포함하여 분석

16) 공연장 운영에 해당하는 사업 중 세부내역 파악이 가능한 사업(138건 중 34건)을 추가분석한 결과 공연장 운영 금액의 36.6%는 해당 공연장에 속한 공연단체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집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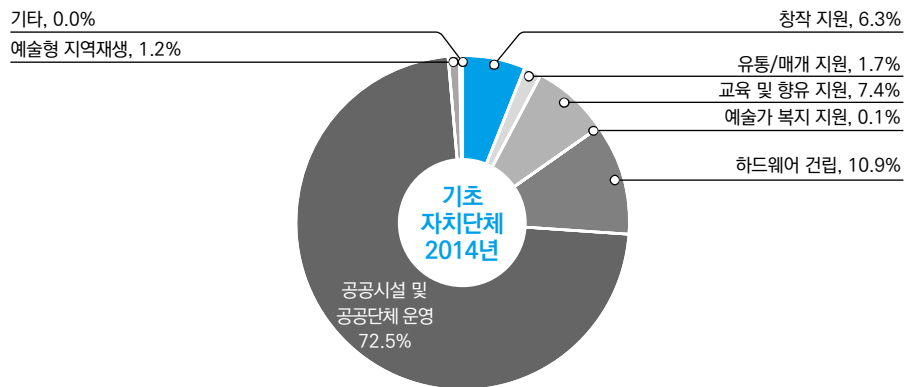
표 3-4 | 광역자치단체 직접 실행 사업유형별 금액과 비율

유형	금액 (백만 원)	비율	세부유형	금액 (백만 원)	비율
창작 지원	75,663	13.7%	작품지원	53,288	9.6%
			예술단체지원	18,983	3.4%
			예술인지원	230	0.0%
			창작공간지원	3,162	0.6%
유통/매개 지원	13,561	2.5%	공연장지원	217	0.0%
			미술관지원	301	0.1%
			기타예술시설지원	300	0.1%
			예술행사지원	9,357	1.7%
			국제예술교류지원	905	0.2%
			예술정보소통	2,481	0.4%
			예술향유지원	42,862	7.8%
			생활예술지원	4,211	0.8%
교육 및 향유 지원	70,676	12.8%	문화예술교육	23,603	4.3%
			예술가복지지원	-	0.0%
			예술인력양성	157	0.0%
예술가복지지원	157	0.0%	예술인복지지원	-	0.0%
			예술인력양성	157	0.0%
			공연장건립	24,576	4.4%
			미술관건립	14,340	2.6%
하드웨어 건립	69,487	12.6%	기타예술시설건립	21,818	4.0%
			복합시설건립	8,753	1.6%
			공연장운영	192,417	34.8%
			미술관운영	38,812	7.0%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314,652	57.0%	기타예술시설운영	12,564	2.3%
			공연단체운영	53,717	9.7%
			예술축제운영	17,142	3.1%
			예술교육기관운영	-	0.0%
			복합시설운영	-	0.0%
			예술형 지역재생	6,970	1.3%
			기타	1,137	0.2%
			총금액	552,303	100%
예술형 지역재생	6,970	1.3%	예술형 지역재생	6,970	1.3%
기타	1,137	0.2%	기타	1,137	0.2%
총금액	552,303	100%	총금액	552,303	100%

## 라. 기초자치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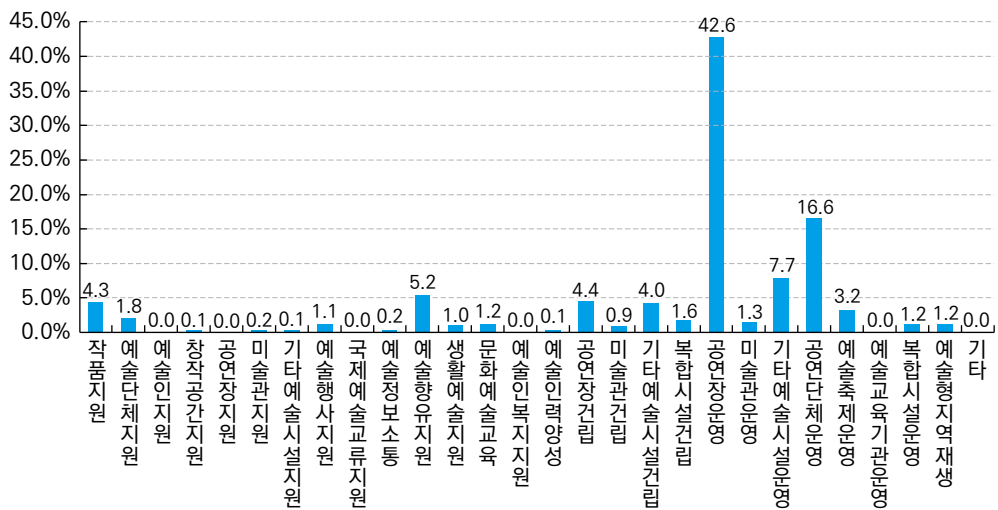
- 기초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하드웨어 건립 순
- 기초자치단체 실행 735,960백만 원 중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이 72.5%로 가장 많고, 하드웨어 건립(10.9%), 교육 및 향유 지원(7.4%) 순임

그림 3-24 | 기초자치단체 사업유형화



- 세부유형화하면, 공연장 운영(42.6%)이 가장 많고, 공연단체 운영(16.6%), 기타예술시설 운영(7.7%), 예술향유 지원(5.2%) 순임<sup>17)</sup>

그림 3-25 | 기초자치단체 사업 세부유형화



17) 공연장 운영에 해당하는 세부사업 중 파악이 가능한 일부 사업(312건 중 12건)을 추가 분석한 결과 공연장 운영 금액의 7.2%는 해당 공연장에 속한 공연단체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집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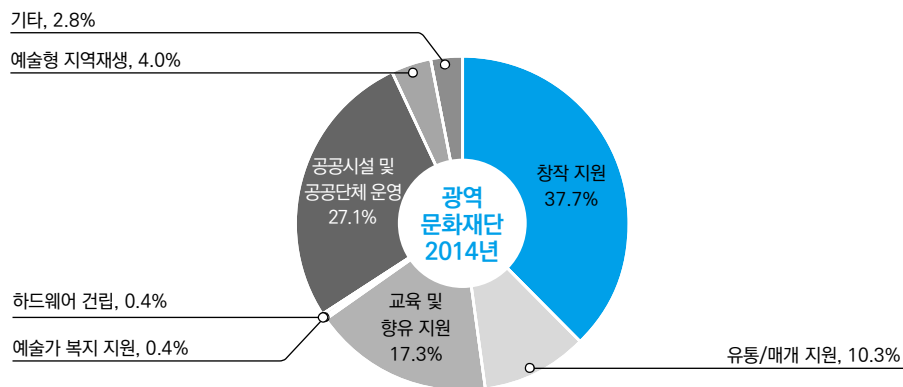
표 3-5 | 기초자치단체 직접 실행 사업유형별 금액과 비율

유형	금액 (백만 원)	비율	세부유형	금액 (백만 원)	비율
창작 지원	46,028	6.3%	작품지원	31,515	4.3%
			예술단체지원	13,189	1.8%
			예술인지원	231	0.0%
			창작공간지원	1,093	0.1%
유통/매개 지원	12,166	1.7%	공연장지원	110	0.0%
			미술관지원	1,614	0.2%
			기타예술시설지원	514	0.1%
			예술행사지원	8,433	1.1%
			국제예술교류지원	363	0.0%
			예술정보소통	1,132	0.2%
			예술향유지원	38,582	5.2%
			생활예술지원	7,075	1.0%
교육 및 향유 지원	54,125	7.4%	문화예술교육	8,468	1.2%
			예술인복지지원	4	0.0%
			예술인력양성	471	0.1%
예술가복지지원	475	0.1%	예술인복지지원	4	0.0%
			예술인력양성	471	0.1%
하드웨어 건립	80,548	10.9%	공연장건립	32,379	4.4%
			미술관건립	6,307	0.9%
			기타예술시설건립	29,738	4.0%
			복합시설건립	12,124	1.6%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533,898	72.5%	공연장운영	313,868	42.6%
			미술관운영	9,235	1.3%
			기타예술시설운영	56,430	7.7%
			공연단체운영	121,939	16.6%
			예술축제운영	23,802	3.2%
			예술교육기관운영	-	0.0%
			복합시설운영	8,625	1.2%
			예술형지역재생	8,717	1.2%
예술형 지역재생	8,717	1.2%	예술형지역재생	8,717	1.2%
기타	4	0.0%	기타	4	0.0%
총금액	735,960	100%	총금액	735,960	100%

## 마. 광역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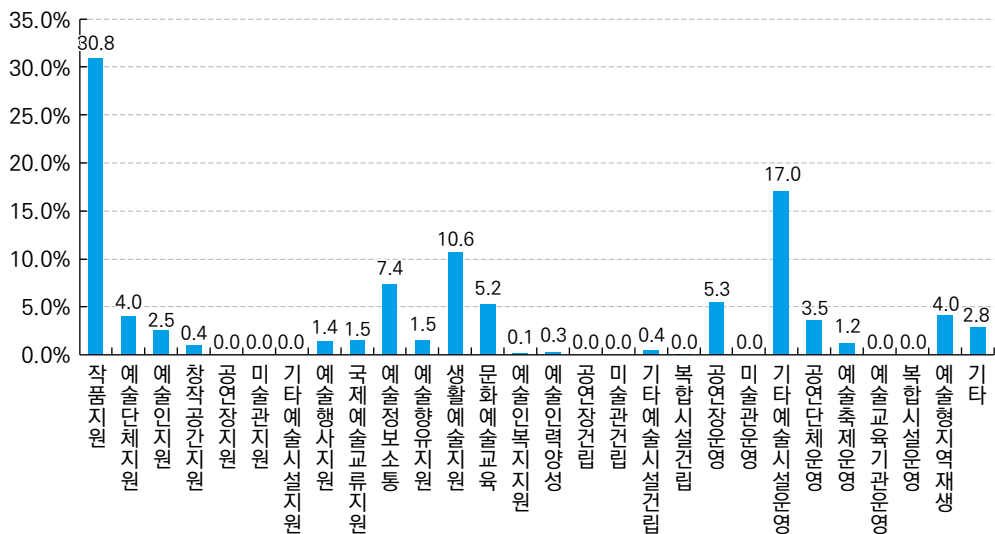
- 광역문화재단은 창작 지원이 가장 많고,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교육 및 향유 지원 순
  - 광역문화재단 자체사업 36,189백만 원 중 창작 지원(37.7%),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27.1%), 교육 및 향유 지원(17.3%) 순임<sup>18)</sup>

그림 3-26 | 광역문화재단 자체사업유형화



- 세부유형화하면, 작품 지원(30.8%)이 가장 많고, 기타예술시설 운영(17.0%), 생활예술 지원(10.6%) 순임

그림 3-27 | 광역문화재단 자체사업 세부유형화



18) 광역자치단체에서 광역문화재단으로 위탁한 사업은 광역자치단체 사업으로 포함시켜 분석하였고, 광역문화재단은 자체사업만 분석한 결과임

표 3-6 | 광역문화재단 자체사업유형별 금액과 비율

유형	금액 (백만 원)	비율	세부유형	금액 (백만 원)	비율
창작 지원	13,659	37.7%	작품지원	11,152	30.8%
			예술단체지원	1,446	4.0%
			예술인지원	901	2.5%
			창작공간지원	160	0.4%
유통/매개 지원	3,729	10.3%	공연장지원	-	0.0%
			미술관지원	-	0.0%
			기타예술시설지원	-	0.0%
			예술행사지원	520	1.4%
			국제예술교류지원	525	1.5%
			예술정보소통	2,684	7.4%
			예술항유지원	530	1.5%
교육 및 향유 지원	6,265	17.3%	생활예술지원	3,850	10.6%
			문화예술교육	1,885	5.2%
			예술인복지지원	30	0.1%
예술가복지지원	148	0.4%	예술인력양성	118	0.3%
			공연장건립	-	0.0%
하드웨어 건립	150	0.4%	미술관건립	-	0.0%
			기타예술시설건립	150	0.4%
			복합시설건립	-	0.0%
			공연장운영	1,936	5.3%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9,800	27.1%	미술관운영	-	0.0%
			기타예술시설운영	6,167	17.0%
			공연단체운영	1,272	3.5%
			예술축제운영	425	1.2%
			예술교육기관운영	-	0.0%
			복합시설운영	-	0.0%
			예술형 지역재생	1,442	4.0%
예술형 지역재생	1,442	4.0%	예술형지역재생	1,442	4.0%
기타	996	2.8%	기타	996	2.8%
총금액	36,189	100%	총금액	36,189	100%

- 광역문화재단 사업 중 자체사업은 17.4%를 차지<sup>19)</sup>
  - 광역문화재단 사업을 자체사업과 위탁/보조사업으로 구분하고 자체사업 비율을 계산한 결과 자체사업 비율은 평균 17.4%로 나타남
  - 재단별 자체사업 비율은 평균 13.3%, 최대비율 40.6%임
    - 자체사업 비중에 대한 중앙값은 6.5%, 표준편차는 13.5%로 재단별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자체사업 0%는 2014년 신설된 재단의 경우임
    - 금액으로 보면 자체사업의 전체금액은 36,189백만 원이고, 재단별 평균은 2,784백만 원, 중앙값은 1,283백만 원임
  - 위탁/보조사업 비율은 82.6%, 재단별 평균 비율은 86.7%임
    - 위탁/보조사업 비중에 대한 중앙값은 93.5%, 표준편차는 13.5%임
    - 위탁/보조사업의 전체금액은 171,420백만 원이고, 재단별 평균은 13,186백만 원이며, 중앙값은 10,507백만 원임

표 3-7 | 광역문화재단 자체사업 비중

구분		총액	재단 평균	표준편차	최댓값	최솟값
자체사업	금액 (백만 원)	36,189	2,784 (1,283)	4,790	18,664	0
	비율	17.4%	13.3% (6.5%)	13.5%	40.6%	0%
위탁/보조사업	금액 (백만 원)	171,420	13,186 (10,507)	7,687	32,793	5,112
	비율	82.6%	86.7% (93.5%)	13.5%	100%	5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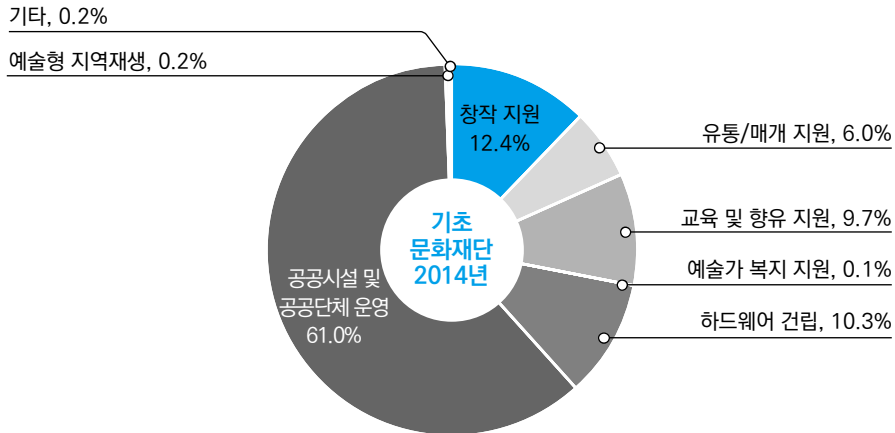
( ) 중앙값

19) 광역자치단체에서 이전된 출연금으로 수행한 재단 고유사업 중 세출예산서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사업으로 분류하여 분석함

## 바. 기초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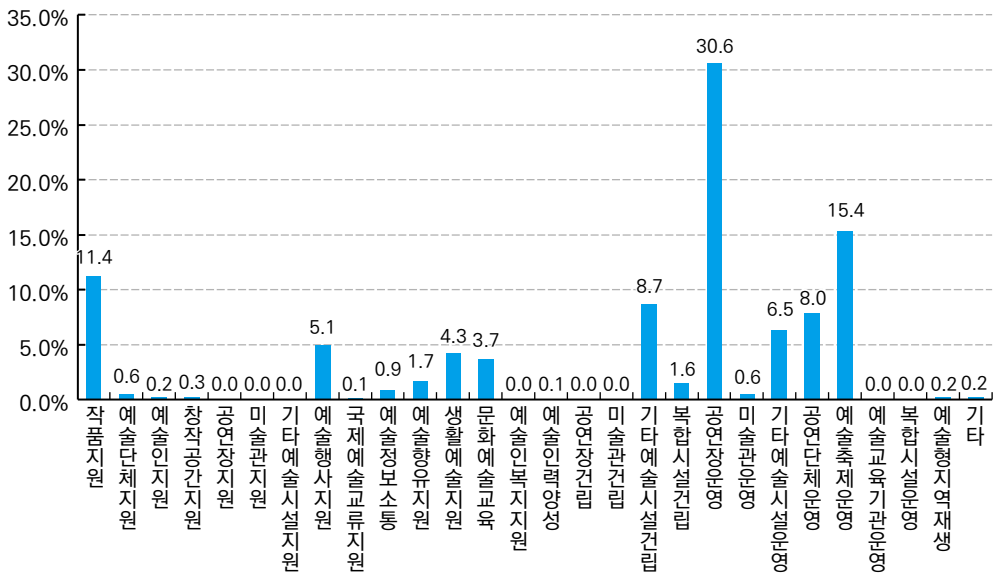
- 기초문화재단은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창작 지원, 하드웨어 건립 순임
- 기초문화재단 실행사업(기초자치단체 보조사업 포함) 106,563백만 원 중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61.0%)이 가장 많고, 창작 지원(12.4%), 하드웨어 건립(10.3%), 교육 및 향유 지원(9.7%) 순임

그림 3-28 | 기초문화재단 사업유형화



- 세부유형화하면, 공연장 운영(30.6%)이 가장 많고, 예술축제 운영(15.4%), 작품 지원(11.4%) 순서를 보임

그림 3-29 | 기초문화재단 사업 세부유형화





### 3. 사업유형별 지원규모

#### 가. 창작 지원

- 창작 지원은 광역자치단체와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이 가장 많이 하고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 순임
- 사업실행 차원에서 지원주체를 분석해 보면, 창작 지원 213,710백만 원 중 광역자치단체(35.4%)와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35.2%)이 유사한 수준으로 가장 많이 하고, 기초자치단체(21.5%)가 다음 순을 보임

그림 3-30 | 창작 지원 실행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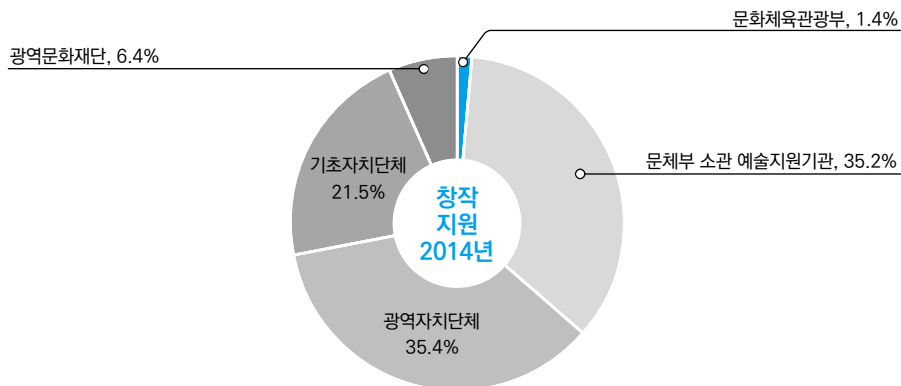


표 3-8 | 창작 지원 실행주체별 금액과 비율

창작 지원	금액(백만 원)	비율
문화체육관광부	3,048	1.4%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술지원기관	75,313	35.2%
광역자치단체	75,663	35.4%
기초자치단체	46,028	21.5%
광역문화재단	13,659	6.4%
합계	213,710	100%

## 나. 유통/매개 지원

- 유통/매개 지원은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이 가장 많이 하고, 다음으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순임
- 사업실행 차원에서 지원주체를 분석해 보면, 유통/매개 지원 58,118백만 원 중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34.6%) 사업 비중이 가장 높고, 광역자치단체(23.3%), 기초자치단체(20.9%), 문화체육관광부(14.7%) 순임

그림 3-31 | 유통/매개 지원 실행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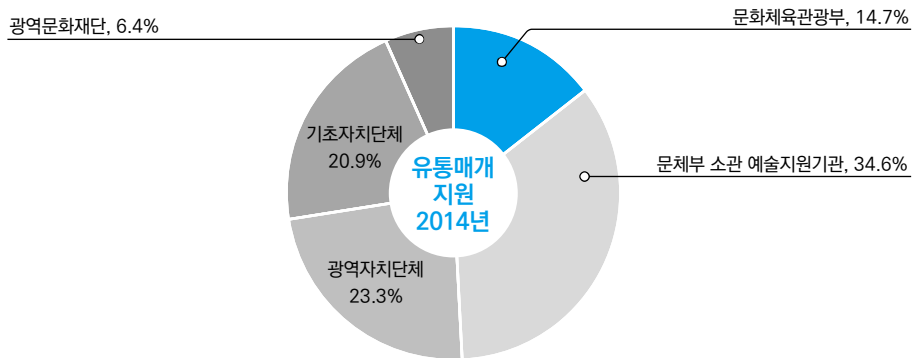


표 3-9 | 유통/매개 지원 실행주체별 금액과 비율

유통/매개 지원	금액(백만 원)	비율
문화체육관광부	8,551	14.7%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술지원기관	20,111	34.6%
광역자치단체	13,561	23.3%
기초자치단체	12,166	20.9%
광역문화재단	3,729	6.4%
합계	58,118	100%

#### 다. 교육 및 향유 지원

- 교육 및 향유 지원은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이 과반 이상을 차지함
  - 사업실행 차원에서 교육 및 향유 지원 주체를 분석해 보면, 지원금 309,952백만 원 중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이 53.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광역자치단체(22.8%), 기초자치단체(17.5%) 순임

그림 3-32 | 교육 및 향유 지원 실행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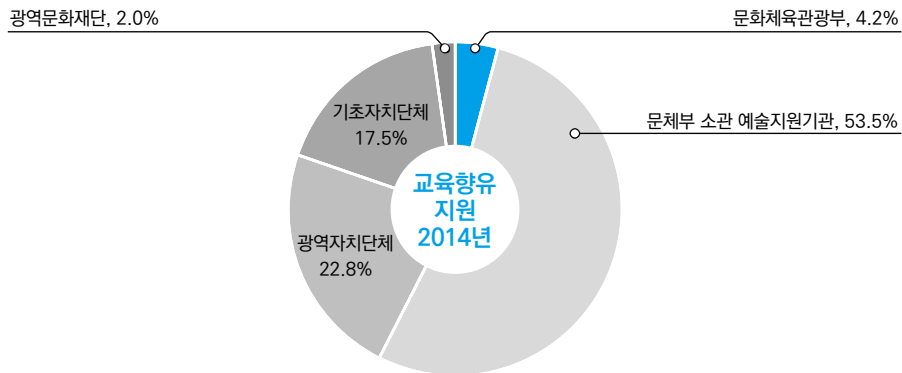


표 3-10 | 교육 및 향유 지원 실행주체별 금액과 비율

교육 및 향유 지원	금액(백만 원)	비율
문화체육관광부	13,010	4.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술지원기관	165,876	53.5%
광역자치단체	70,676	22.8%
기초자치단체	54,125	17.5%
광역문화재단	6,265	2.0%
합계	309,952	100%

## 라. 예술가 복지 지원

- 예술가 복지 지원은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이 대부분
  - 사업실행 차원에서 예술가 복지 지원 31,897백만 원 중 97.6%가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을 통해 지원되고 있음

그림 3-33 | 예술가 복지 지원 실행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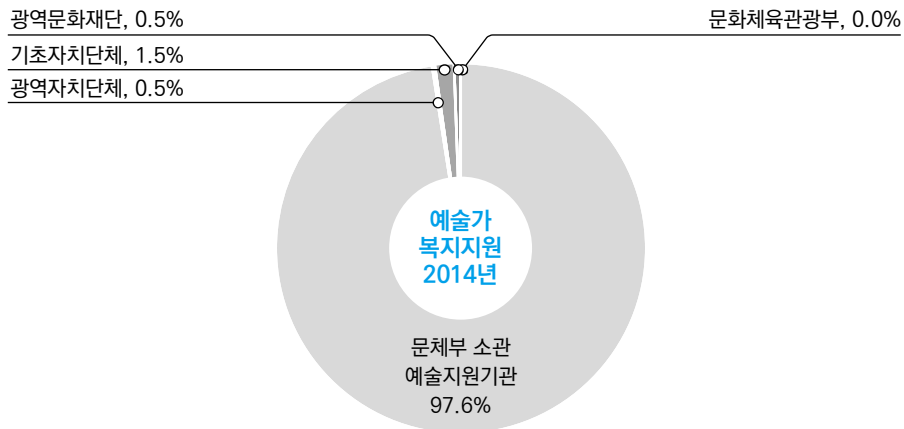


표 3-11 | 예술가 복지 지원 실행주체별 금액과 비율

예술가 복지 지원	금액(백만 원)	비율
문화체육관광부	-	0.0%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술지원기관	31,117	97.6%
광역자치단체	157	0.5%
기초자치단체	475	1.5%
광역문화재단	148	0.5%
합계	31,897	100%

## 마. 하드웨어 건립

- 하드웨어 건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
  - 사업실행 차원에서 지원주체를 분석해 보면, 하드웨어 건립 286,039백만 원 중 문화체육관광부가 45.7%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기초자치단체(28.2%)와 광역자치단체(24.3%)가 다음으로 유사한 비중을 보임

그림 3-34 | 하드웨어 건립 실행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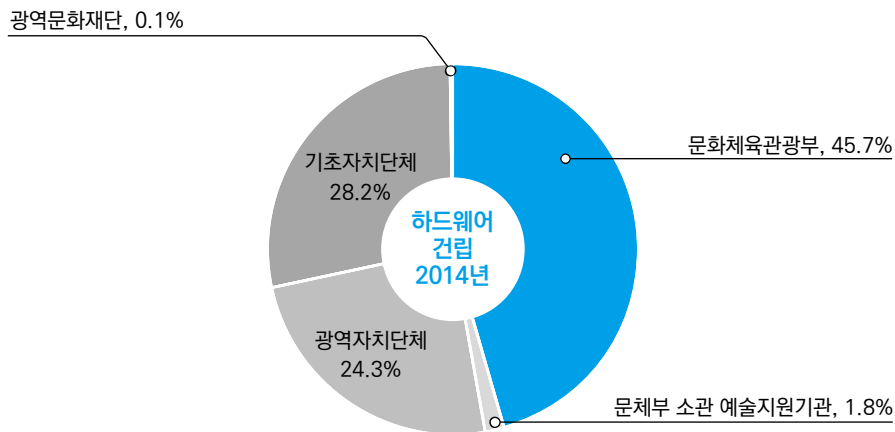


표 3-12 | 하드웨어 건립 실행주체별 금액과 비율

하드웨어 건립	금액(백만 원)	비율
문화체육관광부	130,654	45.7%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술지원기관	5,200	1.8%
광역자치단체	69,487	24.3%
기초자치단체	80,548	28.2%
광역문화재단	150	0.1%
합계	286,039	100%

## 바.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은 기초자치단체 비중이 가장 높고, 문화체육관광부, 광역자치단체 순으로 레벨 10이 대부분을 차지함
- 사업실행 차원에서 지원 주체를 분석해 보면,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1,211,873백만 원 중 기초자치단체가 44.1%로 가장 많이 하고, 문화체육관광부(28.7%), 광역자치단체(26.0%) 순을 보임

그림 3-35 |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실행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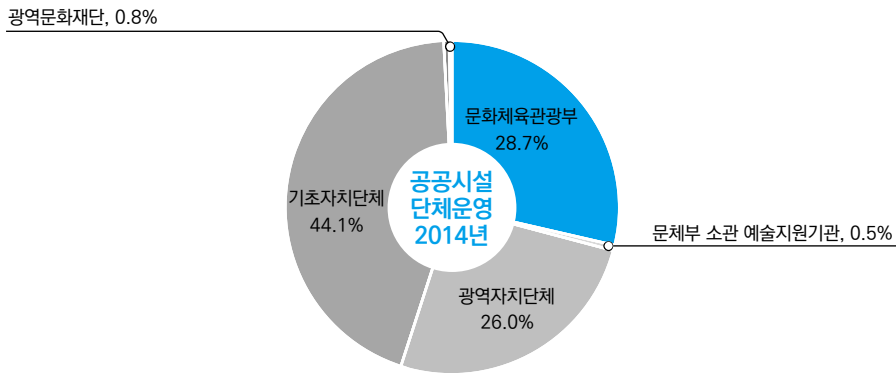


표 3-13 |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실행주체별 금액과 비율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금액(백만 원)	비율
문화체육관광부	347,825	28.7%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술지원기관	5,698	0.5%
광역자치단체	314,652	26.0%
기초자치단체	533,898	44.1%
광역문화재단	9,800	0.8%
합계	1,211,873	100%

## 사. 예술형 지역재생

- 예술형 지역재생 사업은 기초자치단체 비중이 가장 높고, 문화체육관광부, 광역자치단체 순으로 정부 차원의 사업이 대부분임
- 사업실행 차원에서 보면, 예술형 지역재생 지원금 24,629백만 원 중 기초자치단체가 35.4%로 가장 많이 하고, 문화체육관광부(30.5%), 광역자치단체(28.3%)가 다음 순임

그림 3-36 | 예술형 지역재생 사업 실행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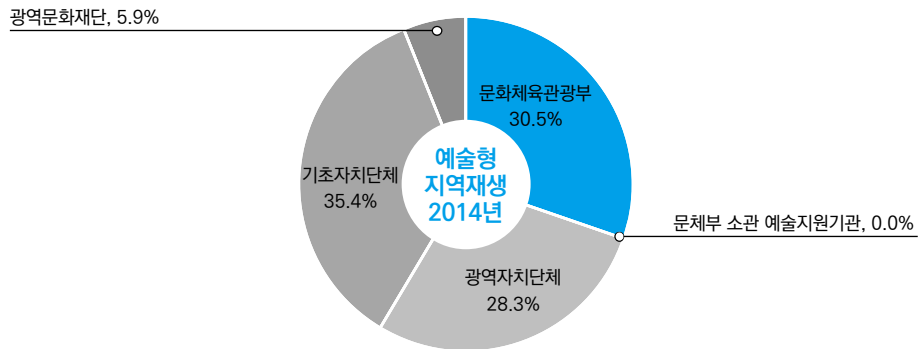


표 3-14 | 예술형 지역재생 실행주체별 금액과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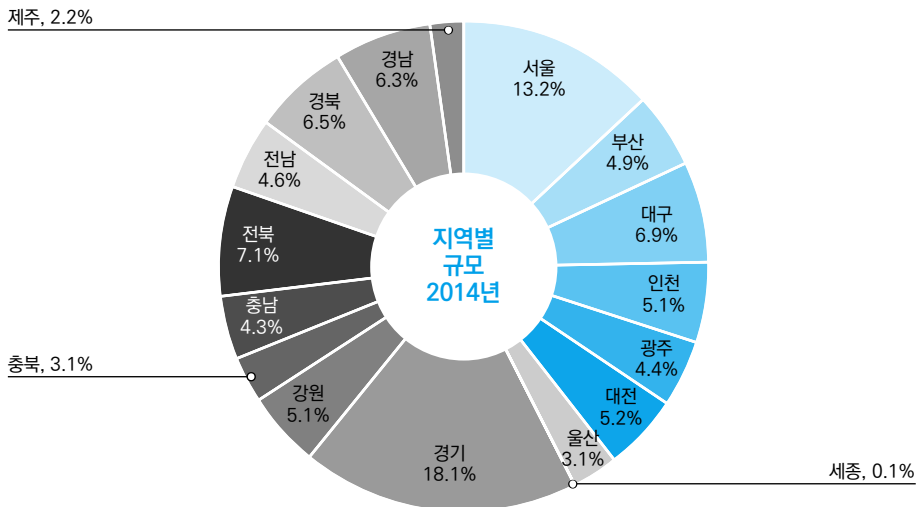
예술형 지역재생	금액(백만 원)	비율
문화체육관광부	7,500	30.5%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술지원기관	-	0.0%
광역자치단체	6,970	28.3%
기초자치단체	8,717	35.4%
광역문화재단	1,442	5.9%
합계	24,629	100%

## 4. 지역별 지원규모

### 가. 지역별 총규모

- 지역별 예술지원규모 분석 결과 경기도(18.1%)와 서울시(13.2%) 비중이 가장 높음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광역문화재단의 사업실행 금액을 합한 지역별 규모 산정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광역문화재단 간 이전에 따른 중복을 제외한 후 계산한 지역별 총 지원규모는 1,324,452백만 원(광역자치단체 552,303백만 원 + 기초자치단체 735,960백만 원+ 광역문화재단 자체사업 36,189백만 원)으로 추정됨
  - 경기도가 18.1%로 가장 많고, 서울특별시(13.2%), 전라북도(7.1%), 대구광역시(6.9%), 경상북도(6.5%), 경상남도(6.3%), 대전광역시(5.2%) 순을 보임

그림 3-37 | 지역별 지원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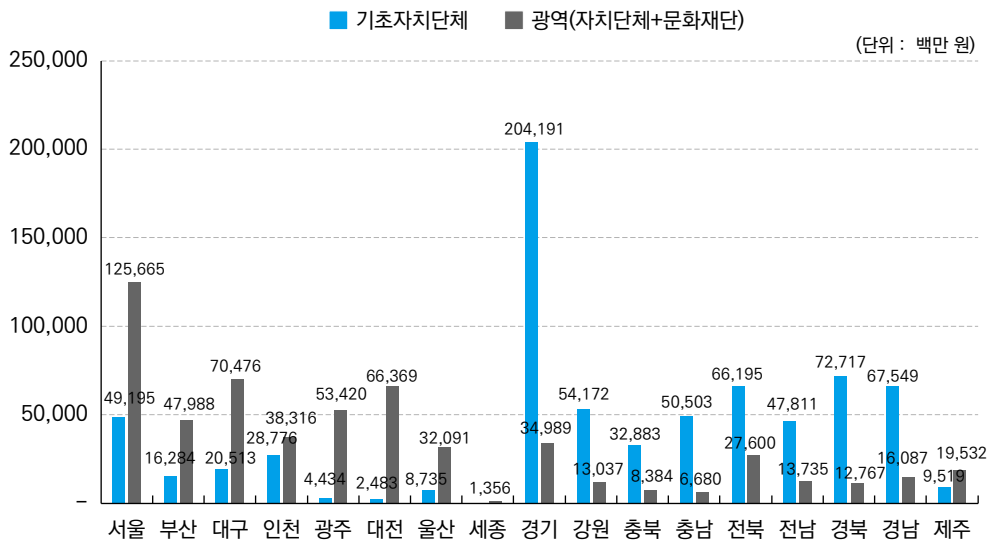




## 나.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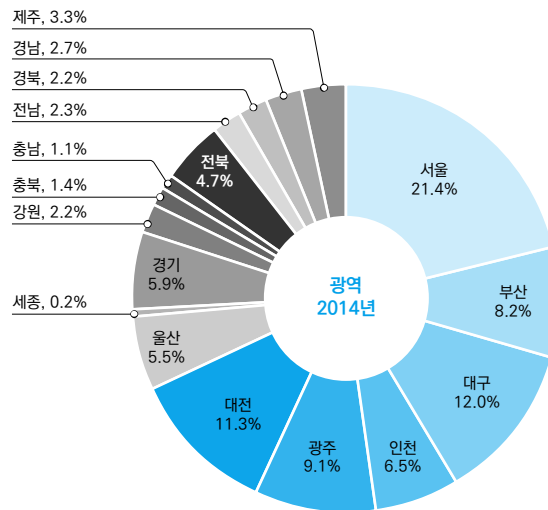
- 지역별 기초자치단체와 광역(광역자치단체+광역문화재단) 단위의 예술지원규모를 비교하면 광역시의 경우 광역이 기초보다 규모가 크고, 광역도의 경우 기초가 광역보다 규모가 큼
- 광역시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의 경우 광역 규모가 기초 규모보다 큼
- 광역도에 해당하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경우 기초 규모가 광역 규모보다 큼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광역시와 마찬가지로 광역 규모가 기초 규모보다 큼

그림 3-38 | 기초자치단체와 광역(광역자치단체+광역문화재단) 지역별 지원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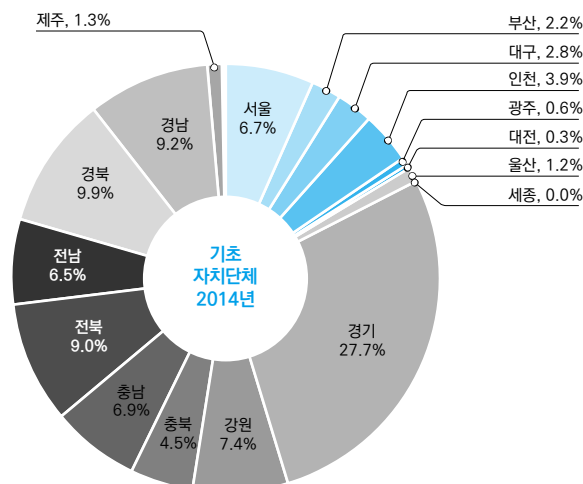
- 광역(광역자치단체+광역문화재단 합)의 총 지원금 588,492백만 원(기초자치단체로 이전한 금액 제외)을 분석해 보면 서울특별시가 21.4%로 가장 많고, 대구광역시(12.0%), 대전광역시(11.3%), 광주광역시(9.1%), 부산광역시(8.2%) 순

그림 3-39 | 광역(광역자치단체+광역문화재단) 지역별 지원 비중



- 기초자치단체 735,960백만 원(광역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금액 포함)을 분석해 보면 경기도가 27.7%로 가장 많고, 경상북도(9.9%), 경상남도(9.2%), 전라북도(9.0%), 강원도(7.4%)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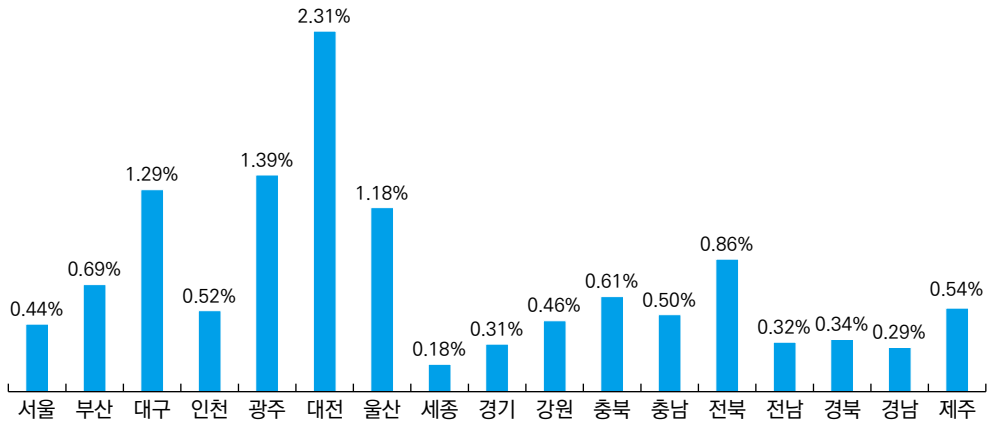
그림 3-40 | 기초자치단체 지역별 지원 비중



#### 다. 지역별 예술지원 예산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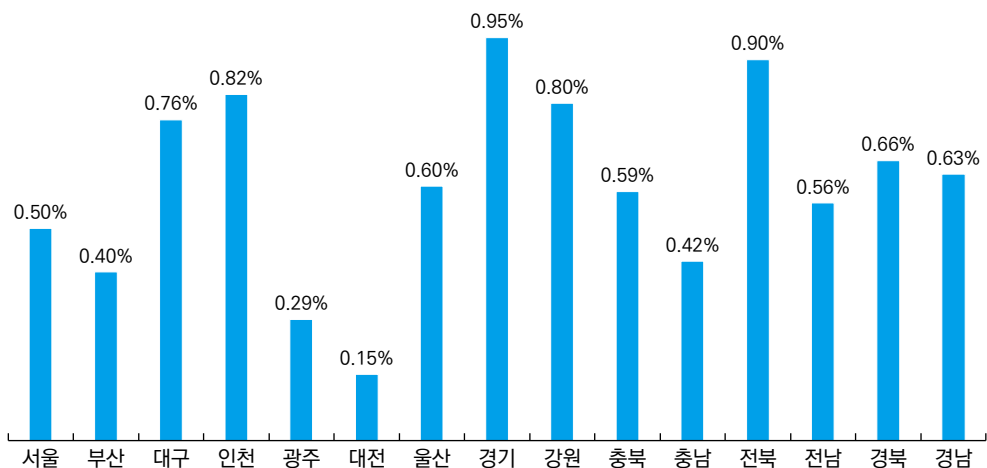
- 광역자치단체 전체 예산 대비 예술지원(타기관 이전금액 포함) 비율은 0.59%
- 광역자치단체 전체 예산 대비 예술지원 금액 비율은 0.59%이며, 지역별로 보면 광역시 중에서는 대전광역시(2.31%)가 광역도 중에서는 전라북도(0.86%)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41 | 광역자치단체 전체 예산 대비 예술지원 금액 비중



- 기초자치단체 전체 예산 대비 예술지원 금액(타기관 이전금액 포함) 비율은 0.67%
- 기초자치단체의 전체 예산 대비 예술지원 금액 비율은 평균 0.67%이며, 경기도와 전라북도 비율이 각각 0.95%와 0.90%로 가장 높게 나타남<sup>20)</sup>

그림 3-42 | 기초자치단체 전체 예산 대비 예술지원 금액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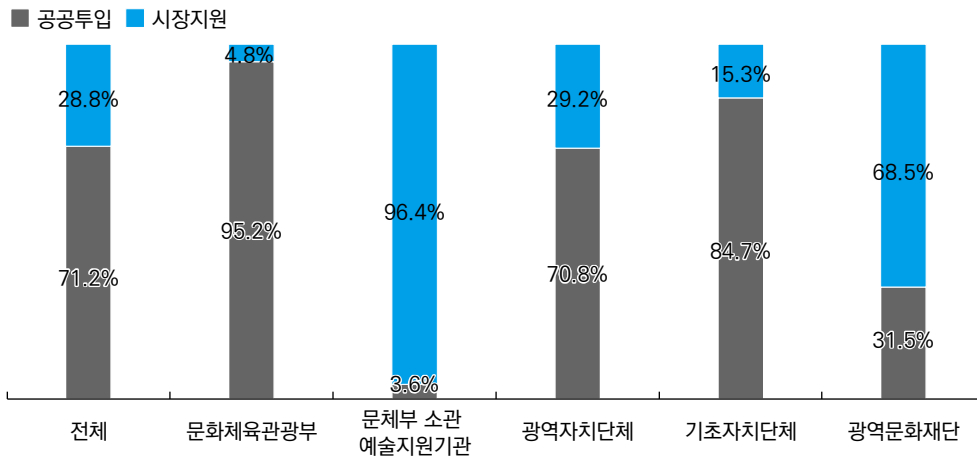
20)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미포함

## 5. 기타 분석

### 가. 공공투입 대 시장지원

- 공공투입 대 시장지원 비중 분석 결과 총규모 2조 1,384억 원 중 공공투입(71.2%)이 시장지원(28.8%)보다 비중이 2배 이상 높음(이전금 제외한 총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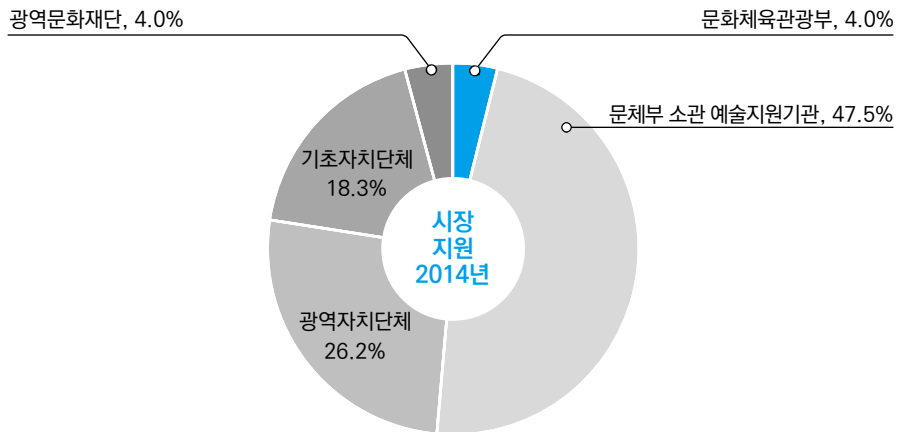
그림 3-43 | 지원주체별 공공투입과 시장지원 비교 분석



- 공공투입은 유형 중 하드웨어 건립,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예술형 지역재생을 합한 1,522,541백만 원이고, 시장지원은 그 외 창작 지원, 유통/매개 지원, 교육 및 향유 지원, 예술가 복지 지원, 기타 유형을 합한 615,814백만 원임
- 직접 실행한 사업만 분석해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는 공공투입이 시장지원보다 많은 반면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과 광역문화재단은 시장지원이 공공투입보다 많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직접실행 510,588백만 원 중 95.2%가 공공투입이고 나머지 4.8%가 시장지원임
  -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의 경우 직접실행 303,315백만 원 중 3.6%가 공공투입이고 나머지 96.4%가 시장지원임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552,303백만 원(광역문화재단 위탁/이전 금액 포함) 중 70.8%가 공공투입이고 나머지 29.2%가 시장지원임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직접실행 735,960백만 원 중 84.7%가 공공투입이고 나머지 15.3%가 시장지원임
  - 광역문화재단의 경우 자체사업 36,189백만 원 중 31.5%가 공공투입이고 나머지 68.5%가 시장지원임

- 지원주체별 시장지원 비중을 보면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이 가장 높음
- 시장 지원(615,814백만 원)의 경우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이 47.5%, 광역자치단체가 26.2%, 기초자치단체가 18.3% 순으로 담당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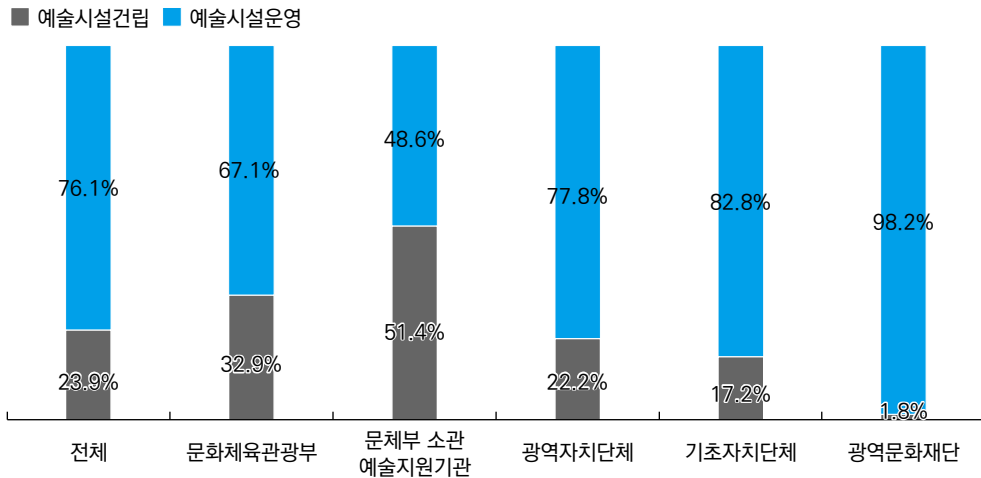
그림 3-44 | 시장지원 주체별 분석



## 나. 예술시설 건립 및 운영 지원

- 예술시설 건립 및 운영과 관련된 1,197,911백만 원 중 예술시설 운영(76.1%)이 예술시설 건립(23.9%)보다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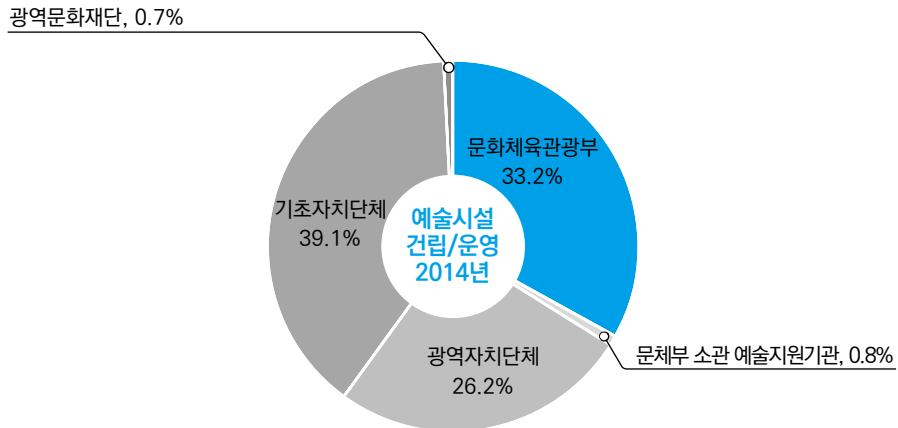
그림 3-45 | 지원주체별 하드웨어 건립과 하드웨어 운영 비교 분석



- 예술시설 건립은 유형 중 하드웨어 건립인 286,039백만 원이고, 예술시설 운영은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중 세부유형이 공연장 운영, 미술관 운영, 복합시설 운영, 기타예술시설 운영을 합한 911,872백만 원임
- 직접 실행한 사업만 분석해 보면,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만 예술시설 건립이 예술시설 운영보다 많고 나머지 주체에서는 예술시설 건립보다 예술시설 운영이 많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예술시설 관련 사업 397,564백만 원 중 32.9%가 예술시설 건립이고 나머지 67.1%가 예술시설 운영임
  -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의 경우 예술시설 관련 사업 10,108백만 원 중 51.4%가 예술시설 건립이고 나머지 48.6%가 예술시설 운영임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예술시설 관련 사업 313,280백만 원(광역문화재단 위탁/이전 금액 포함) 중 22.2%가 예술시설 건립이고 나머지 77.8%가 예술시설 운영임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예술시설 관련 사업 468,706백만 원 중 17.2%가 예술시설 건립이고 나머지 82.8%가 예술시설 운영임
  - 광역문화재단의 경우 자체사업 중 예술시설 관련 사업 8,253백만 원 중 1.8%가 예술시설 건립이고 나머지 98.2%가 예술시설 운영임

- 지원주체별로 보면 예술시설 건립/운영(1,197,911백만 원)의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39.1%, 문화체육관광부가 33.2%, 광역자치단체가 26.2% 순으로 담당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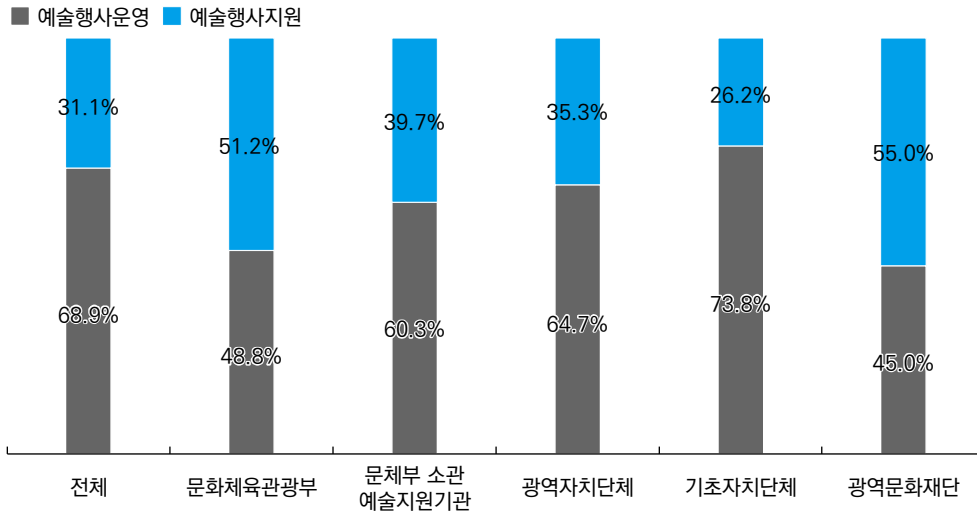
그림 3-46 | 지원주체별 예술시설 건립/운영 분석



#### 다. 예술행사 운영 및 지원

- 공공에 해당하는 예술행사(축제) 운영(68.9%)이 민간 지원에 해당하는 예술행사 지원(31.1%) 보다 다소 많음

그림 3-47 | 지원주체별 예술행사 운영과 예술행사 지원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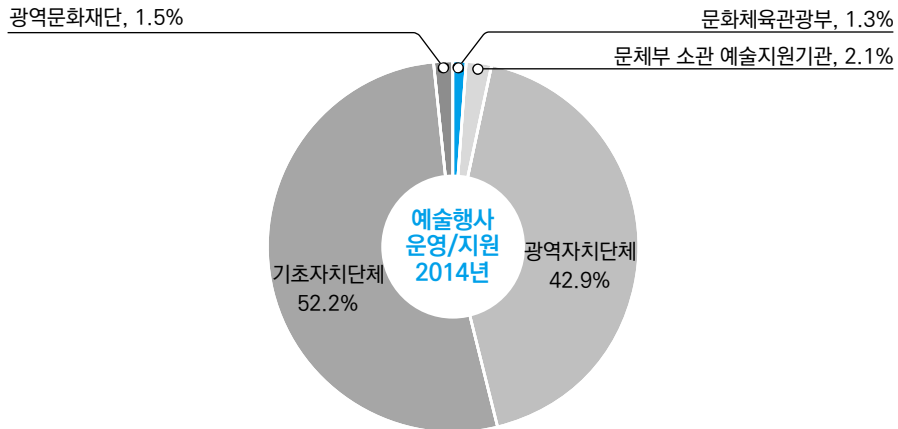


- 예술행사 운영은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중 세부유형이 예술행사 운영인 42,559백만 원이고, 예술 행사 지원은 유통/매개 지원 중 세부유형이 예술행사 지원인 19,250백만 원임
- 직접 실행한 사업만 분석해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역문화재단의 경우 예술행사 지원이 운영보다 더 많으나,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예술행사 운영이 지원보다 많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예술행사 운영 및 지원사업 820백만 원 중 48.8%가 운영이고 나머지 51.2%가 지원임
  -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의 경우 예술행사 운영 및 지원사업 1,310백만 원 중 60.3%가 운영이고 나머지 39.7%가 지원임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예술행사 운영 및 지원사업 26,499백만 원(광역문화재단 위탁/이전 금액 포함) 중 64.7%가 운영이고 나머지 35.3%가 지원임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예술행사 운영 및 지원사업 32,235백만 원 중 73.8%가 운영이고 나머지 26.2%가 지원임
  - 광역문화재단의 경우 자체사업 중 예술행사 운영 및 지원사업 945백만 원 중 45.0%가 운영이고 나머지 55.0%가 지원임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축제의 대부분(90.1%)을 운영하거나 지원하고 있음
  - 직접 실행한 사업만 분석해 보면, 예술행사 운영 및 지원과 관련된 사업 61,809백만 원 중 52.2%가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고, 42.9%는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음

그림 3-48 | 지원주체별 예술행사 운영/지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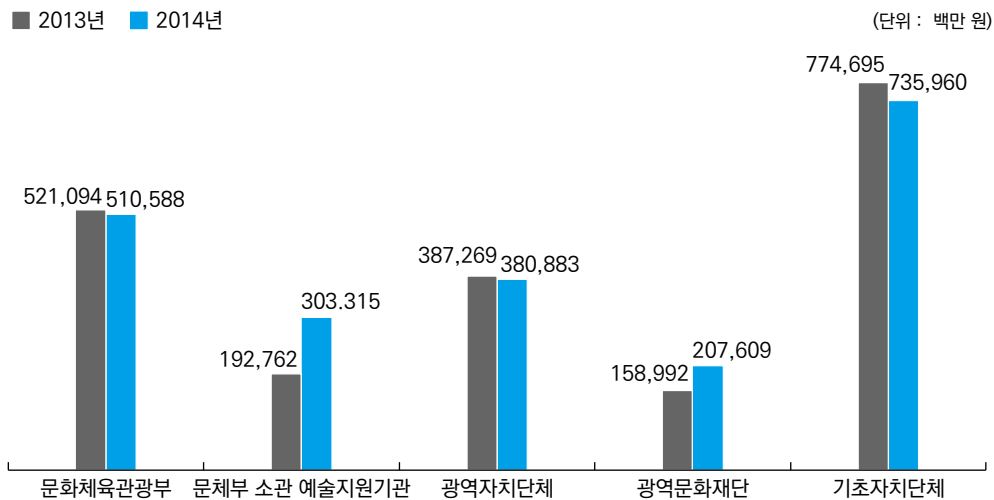


## 6. 2013년, 2014년 지원규모 비교

### 가. 지원주체별 비교

- 공공부문 예술지원 총규모는 2013년 2조 348억 원에서 2014년 2조 1,384억 원으로 5.1% 증가함

**그림 3-49 | 지원주체별 사업실행비**



- 사업실행비 기준으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2013년 521,094백만 원에서 2014년 510,588백만 원으로 2.0% 감소
-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은 2013년 192,762백만 원에서 2014년 303,315백만 원으로 57.4% 증가
  -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의 실행금액 증가는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사업(전문무용수센터지원,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예술경영지원센터지원 등)이 문예기금사업으로 이관함으로 인한
- 광역자치단체는 2013년 387,269백만 원에서 2014년 380,883백만 원으로 1.6% 감소<sup>21)</sup>
- 광역문화재단은 2013년 158,992백만 원에서 2014년 207,609백만 원으로 30.6% 증가함
  - 광역문화재단의 실행금액이 증가한 이유는 통합문화이용권, 바우처 사업, 토요문화학교 등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매칭하여 위탁 운영하는 사업의 예산이 증가하였기 때문
- 기초자치단체는 2013년 774,695백만 원에서 2014년 735,960백만 원으로 5.0%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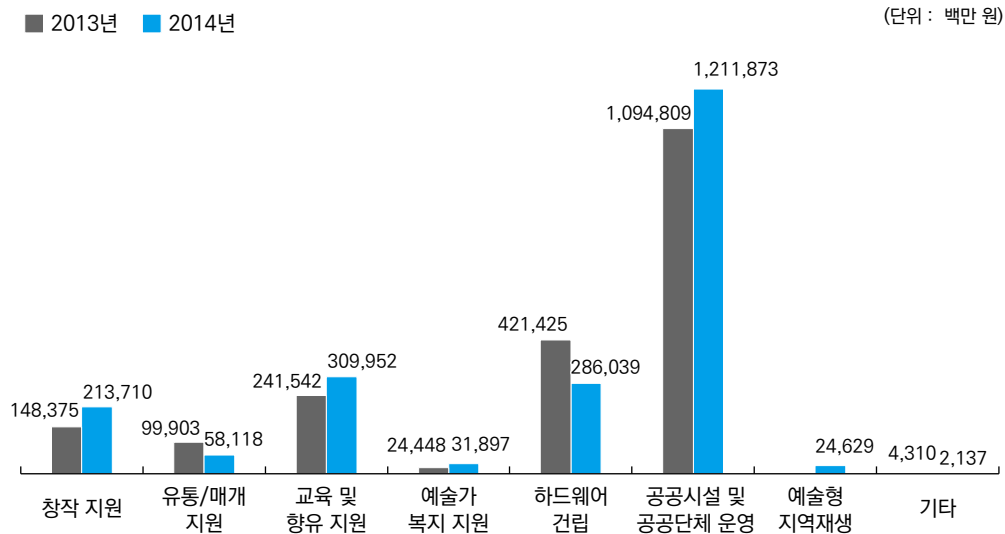
21) 광역문화재단으로의 위탁사업은 광역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실행하였다고 간주함

## 나. 사업유형별 비교

### 1) 총규모

- 총규모에서는 유통/매개 지원 및 하드웨어 건립은 감소하고 나머지 유형에서는 증가함
- 사업실행비 기준으로 보면, 유통/매개 지원 및 하드웨어 건립은 감소하고 나머지 유형에서는 증가함<sup>22)</sup>

그림 3-50 | 유형별 사업실행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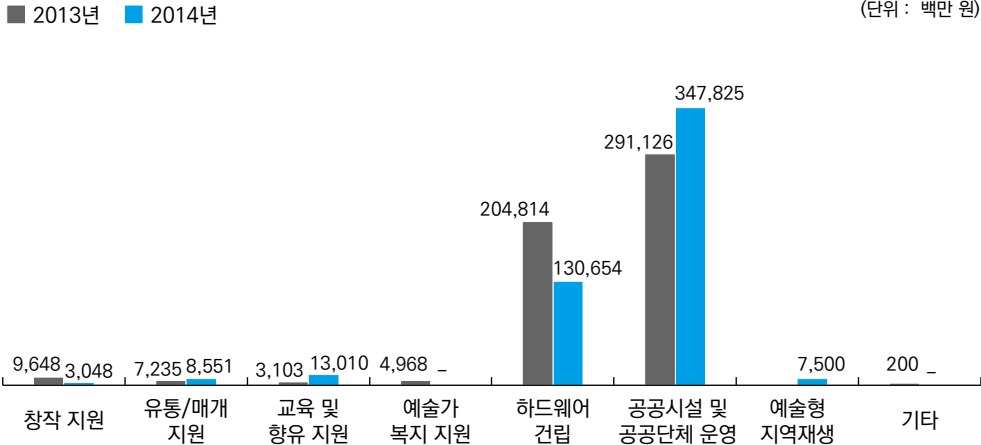
- 창작 지원은 2013년 148,375백만 원에서 2014년 213,710백만 원으로 65,335백만 원 증가
  - 창작 지원 증가의 일부는 문예기금 사업 중 공연예술창작지원과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의 증가에 의한 것임
- 유통/매개 지원은 2013년 99,903백만 원에서 2014년 58,118백만 원으로 41,786백만 원 감소
- 교육 및 향유 지원은 2013년 241,542백만 원에서 2014년 309,952백만 원으로 68,411백만 원 증가
  - 교육 및 향유 지원 증가 중 일부는 사회예술강사 지원의 증가로 인한 것임
- 예술가 복지 지원은 2013년 24,448백만 원에서 2014년 31,897백만 원으로 7,449백만 원 증가
  - 예술인 복지 지원금 증가 중 일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산의 증가에 의한 것임
- 하드웨어 건립은 2013년 421,425백만 원에서 2014년 286,039백만 원으로 135,386백만 원 감소
-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은 2013년 1,094,809백만 원에서 2014년 1,211,873백만 원으로 117,064백만 원 증가

22) 예술형 지역재생 항목은 이번 조사에서 새로 추가함

## 2)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은 증가, 하드웨어 건립은 감소
  - 사업실행비 기준으로 보면, 유통/매개 지원, 교육 및 향유 지원,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은 증가하고, 창작 지원, 예술가 복지 지원, 하드웨어 건립은 감소함

그림 3-51 | 문화체육관광부 유형별 사업실행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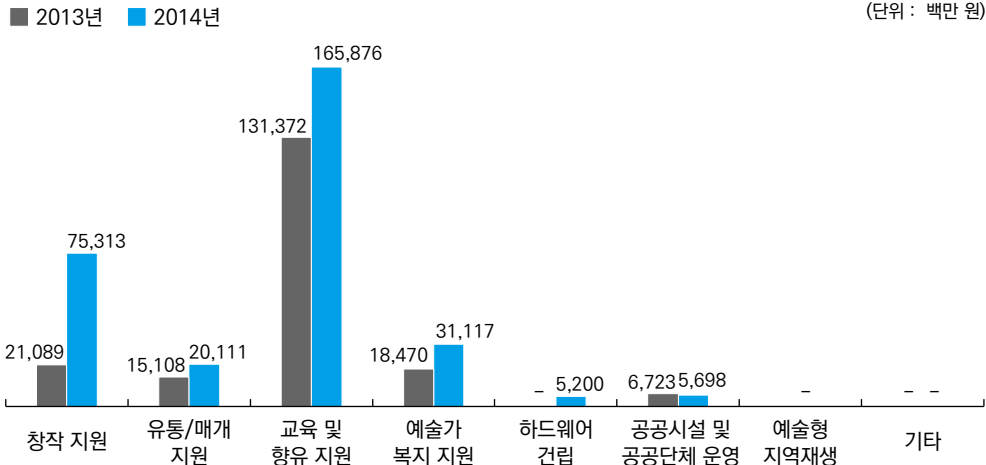


- 창작 지원은 2013년 9,648백만 원에서 2014년 3,048백만 원으로 6,600백만 원 감소
- 유통/매개 지원은 2013년 7,235백만 원에서 2014년 8,551백만 원으로 1,316백만 원 증가
- 교육 및 향유 지원은 2013년 3,103백만 원에서 2014년 13,010백만 원으로 9,907백만 원 증가
- 예술가 복지 지원은 2013년 4,968백만 원에서 2014년 0원으로 4,968백만 원 감소
- 하드웨어 건립은 2013년 204,814백만 원에서 2014년 130,654백만 원으로 74,160백만 원 감소
-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은 2013년 291,126백만 원에서 2014년 347,825백만 원으로 56,699백만 원 증가

### 3)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

-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의 경우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은 감소하고 나머지 유형은 증가
  - 사업실행비 기준으로 보면,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은 감소하고, 창작 지원, 교육 및 향유 지원 등 나머지 유형은 증가함

그림 3-52 |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 유형별 사업실행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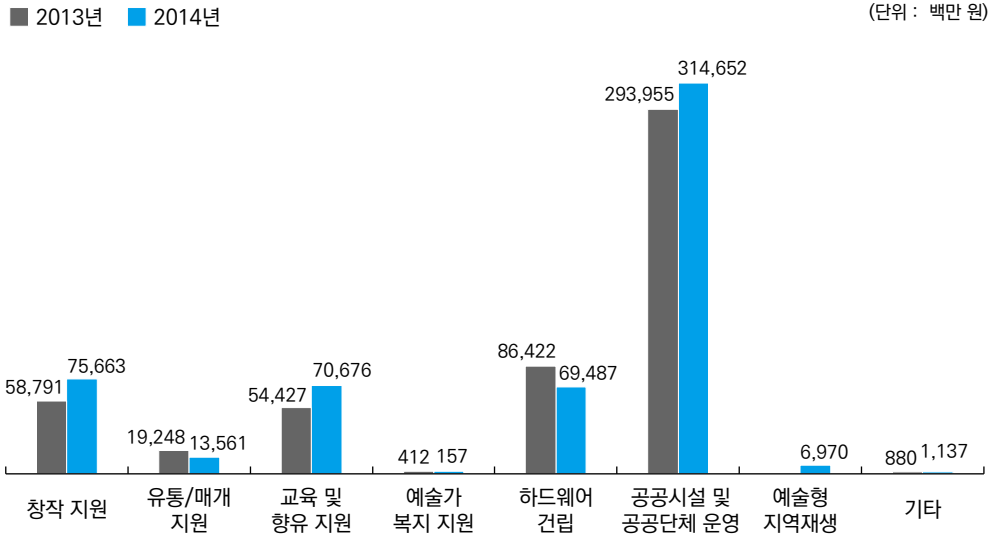


- 창작 지원은 2013년 21,089백만 원에서 2014년 75,313백만 원으로 54,224백만 원 증가
  - 창작 지원 증가는 공연예술창작 지원과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이 증가하였기 때문
- 유통/매개 지원은 2013년 15,108백만 원에서 2014년 20,111백만 원으로 5,003백만 원 증가
- 교육 및 향유 지원은 2013년 131,372백만 원에서 2014년 165,876백만 원으로 34,504백만 원 증가
- 예술가 복지 지원은 2013년 18,470백만 원에서 2014년 31,117백만 원으로 12,647백만 원증가
- 하드웨어 건립은 2013년 0원에서 2014년 5,200백만 원으로 5,200백만 원 증가
-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은 2013년 6,723백만 원에서 2014년 5,698백만 원으로 1,025백만 원 감소

#### 4) 광역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창작 지원 및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은 증가, 하드웨어 건립은 감소
  - 사업실행비 기준으로 보면, 창작 지원, 교육 및 향유 지원,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은 증가하고, 유통/매개 지원, 예술가 복지 지원, 하드웨어 건립은 감소함<sup>23)</sup>

그림 3-53 | 광역자치단체 유형별 사업실행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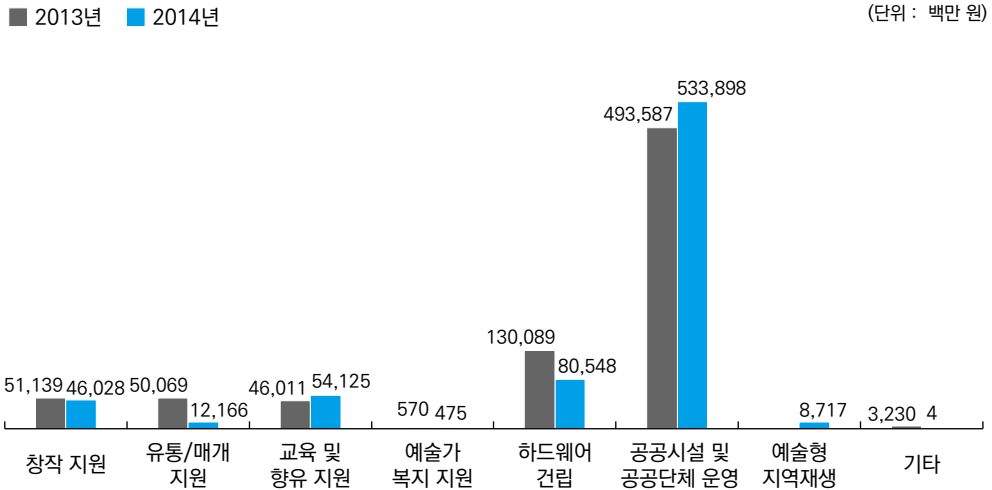
- 창작 지원은 2013년 58,791백만 원에서 2014년 75,663백만 원으로 16,872백만 원 증가
- 유통/매개 지원은 2013년 19,248백만 원에서 2014년 13,561백만 원으로 5,687백만 원 감소
- 교육 및 향유 지원은 2013년 54,427백만 원에서 2014년 70,676백만 원으로 16,249백만 원 증가
- 예술가 복지 지원은 2013년 412백만 원에서 2014년 157백만 원으로 255백만 원 감소
- 하드웨어 건립은 2013년 86,422백만 원에서 2014년 69,487백만 원으로 16,935백만 원 감소
-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은 2013년 293,955백만 원에서 2014년 314,652백만 원으로 20,697백만 원 증가

23) 광역자치단체에서 광역문화재단으로 위탁한 사업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사업으로 포함시켜 분석

## 5) 기초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교육 및 향유 지원,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은 증가하고, 나머지 유형은 감소함

그림 3-54 |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사업실행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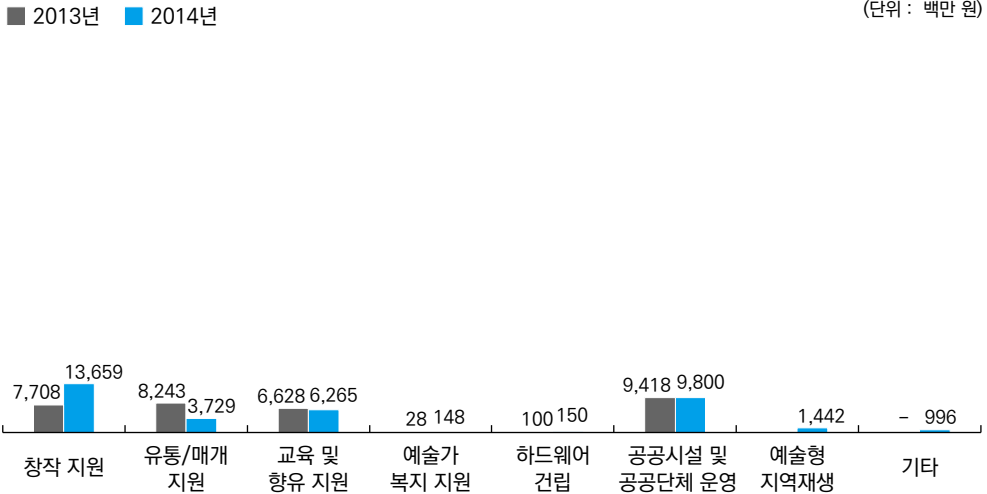


- 창작 지원은 2013년 51,139백만 원에서 2014년 46,028백만 원으로 5,112백만 원 감소
- 유통/매개 지원은 2013년 50,069백만 원에서 2014년 12,166백만 원으로 37,904백만 원 감소
- 교육 및 향유 지원은 2013년 46,011백만 원에서 2014년 54,125백만 원으로 8,114백만 원 증가
- 예술가 복지 지원은 2013년 570백만 원에서 2014년 475백만 원으로 95백만 원 감소
- 하드웨어 건립은 2013년 130,089백만 원에서 2014년 80,548백만 원으로 49,541백만 원 감소
-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은 2013년 493,587백만 원에서 2014년 533,898백만 원으로 40,311백만 원 증가

## 6) 광역문화재단

- 광역문화재단의 경우 창작 지원, 예술가 복지 지원, 하드웨어 건립,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은 증가하고, 나머지 유형은 감소함<sup>24)</sup>

그림 3-55 | 광역문화재단 유형별 사업실행비



- 창작 지원은 2013년 7,708백만 원에서 2014년 13,659백만 원으로 5,952백만 원 증가
- 유통/매개 지원은 2013년 8,243백만 원에서 2014년 3,729백만 원으로 4,514백만 원 감소
- 교육 및 향유 지원은 2013년 6,628백만 원에서 2014년 6,265백만 원으로 363백만 원 감소
- 예술가 복지 지원은 2013년 28백만 원에서 2014년 148백만 원으로 120백만 원 증가
- 하드웨어 건립은 2013년 100백만 원에서 2014년 150백만 원으로 50백만 원 증가
-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은 2013년 9,418백만 원에서 2014년 9,800백만 원으로 382백만 원 증가

24) 광역자치단체에서 광역문화재단으로 위탁한 사업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광역문화재단은 자체사업에 대해서만 분석한 결과임





## 제4장

### 민간부문 예술지원

1. 민간부문 총규모
2. 기업 및 기업재단 지원규모
3. 기타재단 지원규모
4. 개인일반기부 지원규모





## 1. 민간부문 총규모

- 2014년 민간부문 예술분야 지원 총규모는 1,569억 원임
  - 기업 및 기업재단에 의한 지원규모는 1,436억 원, 기업 주체로서의 지원규모는 민간부문 전체 지원액의 91.6%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함
    - 기업의 예술지원 사업규모가 개인의 예술지원 사업규모와 비교 시, 압도적으로 큼
  - 기타재단에 의한 지원규모는 43억 원이고 개인의 일반기부는 90억 원이며, 이를 합산한 개인 주체로서의 지원규모는 133억 원임

표 4-1 | 2014년 민간부문 예술지원 총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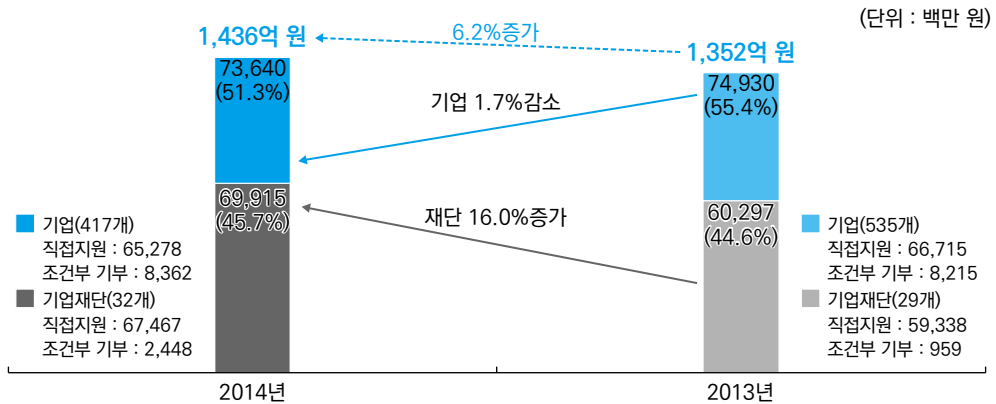
지원 주체		지원규모 금액	지원규모 비중
기업	기업	736억 원	91.6%
	기업재단 (기업 출연 재단)	699억 원	
기업 지원주체 전체		1,436억 원	
개인	기타재단 (개인/단체 출연 재단)	43억 원	8.4%
	전문예술법인·단체 기부	77억 원	
	개인일반기부	3억 원	
	예술나무운동 정기 후원	3억 원	
	크라우드 펀딩 후원	10억 원	
개인 지원주체 전체		133억 원	
합계		1,569억 원	100%

## 2. 기업 및 기업재단 지원규모

### 가. 기업 및 기업재단 지원규모

- 2014년 기업 및 기업재단의 예술분야 지원규모는 총 1,436억 원으로 2013년 지원규모인 1,352억 원에 비해 6.2% 증가함
- 기업의 지원금액은 총 736억 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51.3%, 기업재단의 지원금액은 총 699억 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48.7%를 차지함
  - 기업의 지원금액 736억 원 중에서 직접지원한 지원금은 653억 원, 조건부 기부금은 84억 원임
  - 기업재단의 지원금액 699억 원 중에서 직접지원한 지원금은 675억 원, 조건부 기부금은 24억 원임

그림 4-1 | 2014년 기업 및 기업재단 지원규모



- 기업 417개, 기업재단 32개로 총 449개 사업체에서 문화예술에 지원함
  - 직접지원만 실행한 기업은 46개, 기업재단은 16개이며, 조건부 기부만 실행한 기업은 346개, 기업재단은 11개임
  - 직접지원과 조건부 기부를 모두 실행한 기업은 25개, 기업재단은 5개임

그림 4-2 | 2014년 예술지원 기업 수 및 기업재단 수



- 지원건수는 총 1,241건이며, 이 중 기업이 1,108건, 기업재단이 133건임
    - 기업에서 직접지원한 건수는 593건, 조건부 기부 지원건수는 515건임
    - 기업재단에서 직접지원한 건수는 106건, 조건부 기부 지원건수는 27건임
  - 건당 평균 지원금(지원액 합계÷지원건수)은 기업 6,600만 원, 기업재단 5억 2,600만 원으로 재단이 기업의 약 8배임
- 총 지원규모 1,436억 원 중 조건부 기부금 규모는 108억 원으로 7.5% 비중을 차지함

표 4-2 | 기업 및 기업재단 조건부 기부 규모

구분	2014년 조건부 기부		
	기업 및 기업재단 전체	기업	기업재단
조건부 기부 지원社 수 (개)	387	371	16
조건부 기부금 (백만 원)	10,810	8,362	2,448
조건부 기부 지원건수 (건)	542	515	27
社당 평균 지원금 (백만 원)	28	23	153
건당 평균 지원금 (백만 원)	20	16	91

- 지원총액에서 상위권 기업 및 기업재단의 지원금 비중이 높음
- 지원금 기준 Top20 기업의 지원총액은 기업 전체 지원총액의 91.0% 점유함
    - 한국메세나협회에서 직접 조사한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71개 기업의 지원총액 667억 원에서, Top5는 54.6%, Top10은 76.0%, Top20는 91.0%, Top50는 99.5% 점유함
  - 지원금 기준 Top5 기업재단의 지원총액은 기업재단 전체 지원총액의 86.0% 점유함
    - 한국메세나협회에서 직접 조사한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21개 기업재단의 지원총액 686억 원에서, Top3는 73.2%, Top5는 86.5%, Top10은 98.1% 점유함

그림 4-3 | 기업 지원금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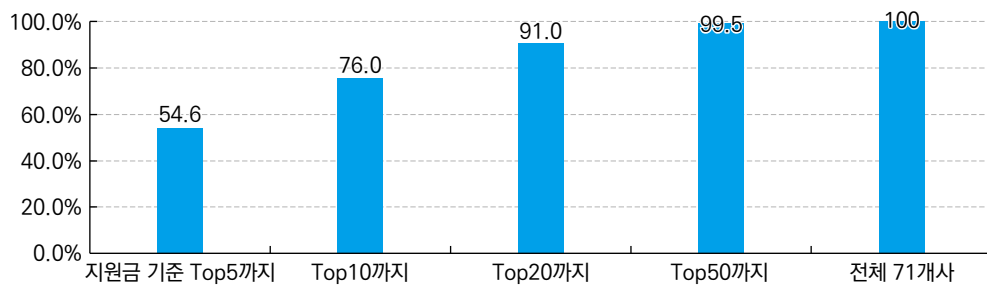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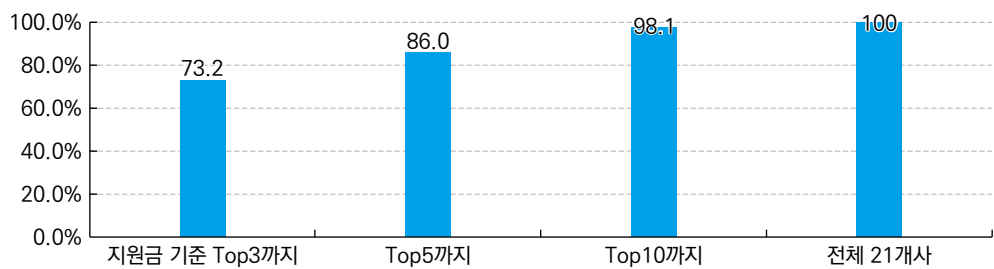


그림 4-4 | 기업재단 지원금 분포도



<2015 사회공헌백서>의 내용을 토대로 문화예술 지원규모를 파악해보면,  
2014년 기업 및 기업재단의 문화예술분야 기부규모는 2,300억 이하로 추정됨

-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기업 및 기업재단들의 사회공헌 현황에 대해 매년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조사대상은 매출액 Top 500대 기업 및 전경련 회원사 등 600여개 기업과 80여개 기업재단이며, 이메일, 전화, 팩스 등을 통한 설문조사로 진행함
  - 2014년의 경우 기업 231개사, 기업재단 66개사가 설문에 응답함
- 2014년 기업 및 기업재단의 사회공헌 기부액은 총 6조 87억 원이며, 이 중 문화예술 및 체육분야 기부액은 4,721억 원으로 총 기부액의 7.9% 비중을 차지함
  - 기업의 사회공헌 기부액은 총 2조 6,700억 원이며, 이 중 문화예술 및 체육분야 기부액은 4,086억 원으로 총 기부액의 15.3%임
  - 기업재단의 사회공헌 기부액은 총 3조 3378억 원이며, 이 중 문화예술 및 체육분야 기부액은 634억 원으로 총 기부액의 1.9%임
  - 문화예술 및 체육분야 기부금액은 2013년 대비 11.3% 증가함
- 전문가 인터뷰 결과, 체육부문 예산이 문화예술 보다는 훨씬 크다는 의견이 공통적임. 즉, 문화예술분야 기부액 상한선은 2,300억 이하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사회공헌백서는 문화예술과 체육의 비중을 구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며, 문화예술에 '미디어', '영화' 등의 콘텐츠분야가 포함되어 있어, 순수문화예술 장르에 대한 지원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움

사회공헌백서에서의 기업 및 기업재단 지원규모

구분	2014년 지원금 (백만 원)		2013년 지원금 (백만 원)		전년대비변화
사회공헌 기부규모	6,008,658	기업	2,670,835	기업	0.7%
		재단	3,337,823	재단	
문화예술 및 체육분야 [비중]	472,056 [7.9%]	기업	408,638 [15.3%]	기업	11.3%
		재단	63,419 [1.9%]	재단	

## 나. 기업 지원활동 세부현황

### 1) 지원유형 및 장르

- 사업유형별로 보면, 문화예술시설 운영 지원금 비중이 33.5%로 가장 높음
  - 지원금액으로는 문화예술시설 운영이 246억 원으로 가장 크나, 지원건수로는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608건으로 가장 많음
    - 문화예술시설 운영(33.5%) 다음으로, 문화예술단체 지원(25.6%), 지역사회 문화예술활동 지원(13.3%) 등의 지원금 비중 순을 보임
    - 조건부 기부금의 경우,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조건부 기부금 전체 비중의 98.3%로 대부분을 차지함

표 4-3 | 기업: 사업유형별 지원규모

사업유형	총규모 : 직접지원 + 조건부 기부			조건부 기부		
	금액 (백만 원)	금액비중 (%)	건수 (건)	금액 (백만 원)	금액비중 (%)	건수 (건)
예술영재 지원	1,683	2.3%	21	28	0.3%	12
문화예술단체 지원	18,867	25.6%	608	8,224	98.3%	498
문화예술시설 운영	24,646	33.5%	35	-	-	-
지역사회 문화예술활동 지원	9,769	13.3%	207	-	-	-
소외계층 문화예술 프로그램 전개	6,467	8.8%	113	110	1.3%	5
예술가 및 행사의 협찬 또는 후원	4,103	5.6%	21	-	-	-
기타 예술지원사업	8,105	11.0%	103	-	-	-
합계	73,640	100%	1,108	8,362	100%	515

\* 조건부 기부로 지원된 사업일 경우, 한국메세나협회에서 사업유형을 '예술영재 지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소외계층 문화예술 프로그램 전개' 중 하나로 분류

- 장르별로 보면, 인프라 운영 지원금 비중이 47.7%로 가장 높음
  - 지원금액으로는 인프라 운영이 351억 원으로 가장 크나, 지원건수로는 서양음악이 397건으로 가장 많음
    - 인프라 운영(47.7%) 다음으로, 서양음악(15.2%), 미술/전시(10.2%) 등의 지원금 비중 순을 보임
    - 조건부 기부금의 경우, 서양음악의 지원금 비중이 조건부 기부금 전체 비중의 20.7%로 가장 높음



표 4-4 | 기업: 장르별 지원규모

장르	총규모 : 직접지원 + 조건부 기부			조건부 기부		
	금액 (백만 원)	금액비중 (%)	건수 (건)	금액 (백만 원)	금액비중 (%)	건수 (건)
국악	4,821	6.5%	97	512	6.1%	72
서양음악	11,169	15.2%	397	1,732	20.7%	140
무용	1,805	2.5%	50	357	4.3%	29
연극	2,149	2.9%	67	522	6.2%	36
뮤지컬	2,101	2.9%	36	804	9.6%	17
미술/전시	7,481	10.2%	226	1,682	20.1%	90
문학	1,248	1.7%	55	265	3.2%	32
인프라 운영	35,108	47.7%	51	1,516	18.1%	18
전통예술	1,249	1.7%	84	825	9.9%	63
문화예술교육	6,509	8.8%	45	146	1.7%	18
합계	73,640	100%	1,108	8,362	100%	515

- 사업유형에 따른 장르별 지원 현황에서 차이를 보임
  - ‘예술영재 지원’에서는 ‘서양음악’에 대한 지원금이 87.8% 비중으로 대부분임
  - ‘문화예술시설 운영’에서는 ‘인프라 운영’에 대한 지원금이 92.8% 비중으로 대부분임
  - ‘소외계층 문화예술 프로그램 전개’에서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원금 비중(64.8%)이 가장 높음
  - ‘예술가 및 행사의 협찬 또는 후원’ 사업에서는 ‘미술/전시’에 대한 지원금 비중(59.0%)이 가장 높음

표 4-5 | 기업: 사업유형에 따른 장르별 지원금 비중

	국악	서양 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미술/전시	문학	인프라 운영	전통 예술	문화예술 교육	합계
예술영재 지원	5.8%	87.8%	0.6%	0.6%	-	3.2%	-	2.0%	-	-	100%
문화예술 단체지원	11.2%	19.4%	8.5%	3.9%	4.1%	12.8%	2.8%	30.9%	4.3%	2.1%	100%
문화예술 시설운영	-	-	-	-	-	0.8%	-	92.8%	-	6.3%	100%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동지원	20.2%	23.8%	0.7%	1.3%	4.4%	12.8%	0.9%	34.4%	0.8%	0.6%	100%
소외계층 프로그램 전개	-	21.4%	-	7.8%	2.1%	0.1%	0.03%	3.8%	-	64.8%	100%
예술가, 행사의 협찬/후원	-	14.4%	0.1%	-	0.3%	59.0%	0.02%	17.6%	8.5%	-	100%
기타 예술지원사업	3.9%	16.0%	1.3%	8.9%	8.2%	14.2%	7.5%	36.3%	0.1%	3.6%	100%

## 2) 지원방식 및 내용

- 지원방식별로 보면, 자체(행사)기획 지원금 비중이 56.8%로 가장 높음
  - 지원금액 비중으로는 자체(행사)기획에 의한 지원이 가장 크나, 지원건수 비중으로는 조건부 기부가 46.6%로 가장 많음

표 4-6 | 기업: 지원방식별 지원규모 비중

구분		지원금 비중 (%)	지원건수 비중 (%)
직접지원	자체(행사)기획	56.8%	22.4%
	후원 및 협찬, 파트너십	31.8%	31.0%
조건부 기부		11.4%	46.6%
합계		100%	100%

- 지원내용별로 보면, 현금만 지원한 지원금 비중이 52.7%임
  - 현물만 지원한 지원금 비중이 8.3%, 현금과 현물 동시 지원한 지원금 비중이 39.0%로 비금전적 지원방식도 이루어지고 있음

표 4-7 | 기업: 지원내용별 지원규모

구분	지원금 비중 (%)	지원건수 비중 (%)
현금만 지원	52.7%	73.7%
현물만 지원	8.3%	14.0%
현금과 현물 동시 지원	39.0%	12.3%
합계	100%	100%

## 다. 기업재단 지원활동 세부현황

### 1) 지원유형 및 장르

- 사업유형별로 보면, 문화예술시설 운영 지원금 비중이 64.5%로 가장 높음
  - 지원금액으로는 문화예술시설 운영이 451억 원으로 가장 크나, 지원건수로는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63건으로 가장 많음
    - 문화예술시설 운영(64.5%), 문화예술단체 지원(12.5%) 등의 사업들은 진행, 예술가 및 행사의 협찬 또는 후원을 하는 경우는 없었음
    - 조건부 기부의 경우,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조건부 기부금 전체 비중의 89.5%로 대부분을 차지함

표 4-8 | 기업재단: 사업유형별 지원규모

사업유형	총규모 : 직접지원 + 조건부 기부			조건부 기부		
	금액 (백만 원)	금액비중 (%)	건수 (건)	금액 (백만 원)	금액비중 (%)	건수 (건)
예술영재 지원	49	0.1%	4	251	10.3%	2
문화예술단체 지원	8,753	12.5%	63	2,192	89.5%	24
문화예술시설 운영	45,109	64.5%	15	-	-	-
지역사회 문화예술활동 지원	818	1.2%	7	-	-	-
소외계층 문화예술 프로그램 전개	2,914	4.2%	11	5	0.2%	1
예술가 및 행사의 협찬 또는 후원	0	0.0%	0	-	-	-
기타 예술지원사업	12,272	17.6%	33	-	-	-
합계	69,915	100%	133	2,448	100%	27

\* 조건부 기부로 지원된 사업일 경우, 한국메세나협회에서 사업유형을 '예술영재 지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소외계층 문화예술 프로그램 전개' 중 하나로 분류

- 장르별로 보면, 인프라 운영 지원금 비중이 69.5%로 가장 높음
  - 지원금액으로는 인프라 운영이 486억 원으로 가장 크나, 지원건수로는 서양음악이 34건으로 가장 많음
    - 인프라 운영 외에는 서양음악(6.8%), 문화예술교육(6.0%) 등의 지원금 비중 순을 보임
    - 조건부 기부의 경우, 인프라 운영의 지원금 비중이 조건부 기부금 전체 비중의 45.0%로 가장 높음

표 4-9 | 기업재단: 장르별 지원규모

장르	총규모 : 직접지원 + 조건부 기부			조건부 기부		
	금액 (백만 원)	금액비중 (%)	건수 (건)	금액 (백만 원)	금액비중 (%)	건수 (건)
국악	1,111	1.6%	2	350	14.3%	2
서양음악	4,756	6.8%	34	422	17.2%	3
무용	906	1.3%	2	44	1.8%	1
연극	2,776	4.0%	13	22	0.9%	2
뮤지컬	1,277	1.8%	2	0	0.0%	0
미술/전시	1,986	2.8%	19	232	9.5%	8
문학	3,069	4.4%	18	42	1.7%	2
인프라 운영	48,610	69.5%	23	1,101	45.0%	5
전통예술	1,226	1.8%	5	215	8.8%	2
문화예술교육	4,196	6.0%	15	20	0.8%	2
합계	69,915	100%	133	2,448	100%	27

- 사업유형에 따른 장르별 지원 현황에서 차이를 보임
  - '예술영재 지원'에서는 '문학'에 대한 지원금 비중(57.1%)이 가장 높음
  - '문화예술시설 운영'에서는 '인프라 운영'에 대한 지원금이 98.2% 비중으로 대부분임
  - '지역사회 문화예술활동 지원'에서는 '서양음악'에 대한 지원금 비중(75.8%)이 가장 높음
  - '소외계층 문화예술 프로그램 전개' 사업에서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원금 비중(69.1%)이 가장 높음

표 4-10 | 기업재단: 사업유형에 따른 장르별 지원금 비중

	국악	서양 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미술/전시	문학	인프라 운영	전통 예술	문화예술 교육	합계
예술영재 지원	-	4.1%	-	-	-	36.7%	57.1%	-	-	2.0%	100%
문화예술 단체지원	9.8%	6.1%	0.5%	21.5%	4.8%	10.9%	4.3%	38.9%	0.7%	2.5%	100%
문화예술 시설운영	-	1.7%	-	-	-	0.1%	-	98.2%	-	-	100%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동지원	-	75.8%	-	-	-	12.2%	1.2%	-	-	10.8%	100%
소외계층 프로그램 전개	8.6%	22.3%	-	-	-	-	-	-	-	69.1%	100%
예술가, 행사의 협찬/후원	-	-	-	-	-	-	-	-	-	-	-
기타 예술지원사업	-	17.8%	7.0%	7.3%	7.0%	7.0%	21.6%	7.4%	9.5%	15.3%	100%

## 2) 지원방식 및 내용

- 지원방식별로 보면, 자체(행사)기획 지원금 비중이 91.1%로 대부분임
  - 지원금액 비중으로 자체(행사)기획에 의한 지원이 가장 크며, 지원건수 비중으로도 자체(행사)기획에 의한 지원이 47.4%로 가장 큼

표 4-11 | 기업재단: 지원방식별 지원규모 비중

구분		지원금 비중 (%)	지원건수 비중 (%)
직접지원	자체(행사)기획	91.1%	47.4%
	후원 및 협찬, 파트너십	5.4%	31.6%
조건부 기부		3.5%	21.1%
합계		100%	100%

- 지원내용별로 보면, 현금만 지원한 지원금 비중이 59.2%임
  - 현물만 지원한 경우는 없었으나, 현금과 현물 동시 지원한 사업의 지원금 비중이 40.8%로 비금전적 지원방식도 이루어지고 있음

표 4-12 | 기업재단: 지원내용별 지원규모

구분	지원금 비중 (%)	지원건수 비중 (%)
현금만 지원	59.2%	68.4%
현물만 지원	0.0%	0.8%
현금과 현물 동시 지원	40.8%	30.8%
합계	100%	100%

## 라. 2013년 2014년 지원규모 비교

- 기업 및 기업재단 총 지원규모는 전년대비 6.2% 증가함
  - 기업은 전년대비 1.7% 감소, 기업재단은 전년대비 16.0% 증가함
  - 2013년 기업 및 기업재단 지원규모는 총 1,352억 원이며, 기업은 749억 원, 기업재단은 603억 원임
  - 기업의 지원건수는 전년대비 22.6% 감소하였고, 기업재단의 지원건수는 전년대비 19.8% 증가함
  - 기업의 건당 평균 지원금은 전년대비 26.9% 증가하였고, 기업재단의 건당 평균 지원금은 전년대비 3.2% 감소함

표 4-13 | 기업 및 기업재단 지원금액 비교

구분		지원금 (백만 원)		전년대비 변화
		2014년	2013년	
기업	직접지원	65,278	66,715	-2.2%
	조건부 기부	8,362	8,215	1.8%
	합계	73,640	74,930	-1.7%
기업재단	직접지원	67,467	59,338	13.7%
	조건부 기부	2,448	959	155.3%
	합계	69,915	60,297	16.0%
기업 및 기업재단 전체		143,555	135,227	6.2%

표 4-14 | 기업 및 기업재단 지원건수 비교

구분		지원건수 (건)		전년대비 변화
		2014년	2013년	
기업	직접지원	593	720	-17.6%
	조건부 기부	515	711	-27.6%
	합계	1,108	1,431	-22.6%
기업재단	직접지원	106	94	12.8%
	조건부 기부	27	17	58.8%
	합계	133	111	19.8%
기업 및 기업재단 전체		1,241	1,542	-19.5%

표 4-15 | 기업 및 기업재단 건당 평균 지원금 비교

구분		건당 평균 지원금 (백만 원)		전년대비 변화
		2014년	2013년	
기업	직접지원	110	93	18.8%
	조건부 기부	16	12	40.5%
	기업 전체	66	52	26.9%
기업재단	직접지원	636	631	0.8%
	조건부 기부	91	56	60.7%
	기업재단 전체	526	543	-3.2%
기업 및 기업재단 전체		116	88	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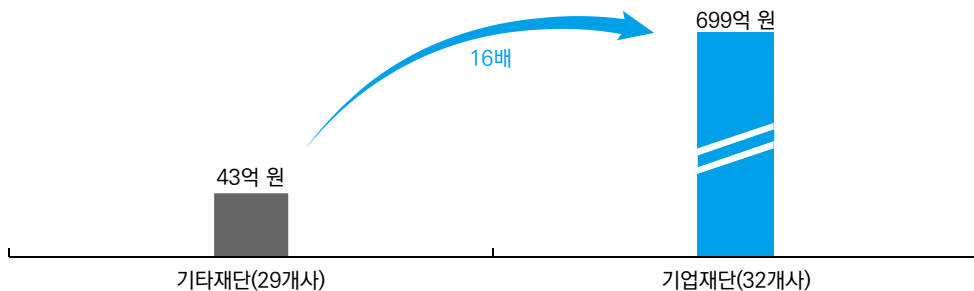
- 조건부 기부금 규모는 108억 원으로 전년대비 17.8% 증가, 건수는 전년대비 25.5% 감소함
  - 기업의 조건부 기부금은 84억 원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함
    - 기업은 전년대비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건당 평균 지원금은 1,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8.5% 증가함
  - 기업재단의 조건부 기부금은 24억 원으로 전년대비 155.3% 증가함
    - 기업재단은 전년대비 지원사 수와 건수가 모두 증가, 건당 평균 지원금도 9,100만 원으로 61.3% 증가함

표 4-16 | 기업 및 기업재단 조건부 기부 규모 비교 (전체)

구분	기업 및 기업재단 전체		
	2014년	2013년	전년대비 변화
조건부 기부 지원사 수 (개)	387	450	-14.0%
조건부 기부금 (백만 원)	10,810	9,174	17.8%
조건부 기부 지원건수 (건)	542	728	-25.5%
사당 평균 지원금 (백만 원)	28	20	37.3%
건당 평균 지원금 (백만 원)	20	13	58.7%

표 4-17 | 기업 및 기업재단 조건부 기부 규모 비교 (개별)

구분	기업			기업재단		
	2014년	2013년	전년대비 변화	2014년	2013년	전년대비 변화
조건부 기부 지원사 수 (개)	371	442	-16.1%	16	8	100.0%
조건부 기부금 (백만 원)	8,362	8,215	1.8%	2,448	959	155.3%
조건부 기부 지원건수 (건)	515	711	-27.6%	27	17	58.8%
사당 평균 지원금 (백만 원)	23	19	23.7%	153	120	27.6%
건당 평균 지원금 (백만 원)	16	12	38.5%	91	56	61.3%





- 지원건수는 총 113건으로 재단당 평균 지원건수는 대략 4건임
  - 사업을 '1건' 진행한 재단이 11개로 전체 재단의 37.9% 비중을 차지
- 재단당 평균 지원금액은 약 1억 5,000만 원, 건당 평균 지원금액은 약 4천만 원임
  - 지원금액이 '1억 원 미만'인 재단은 20개로 전체 재단의 71.4% 비중을 차지

표 4-19 | 2014년 기타재단 지원규모

구분	2014년
지원 재단 수	29개사
지원금액 (무응답 재단 1개사 제외)	43억 3,520만 원
지원건수	113건
재단당 평균 지원건수	3.9건
재단당 평균 지원금액 (무응답 재단 1개사 제외)	1억 5,482만 원
건당 평균 지원금액 (무응답 재단 1개사의 사업 3건 제외)	3,941만 원

그림 4-6 | 기타재단의 문화예술분야 지원금액별 재단 수

(단위 : 재단 수, n=29, 무응답=1)

총 합계 : 43억 3,52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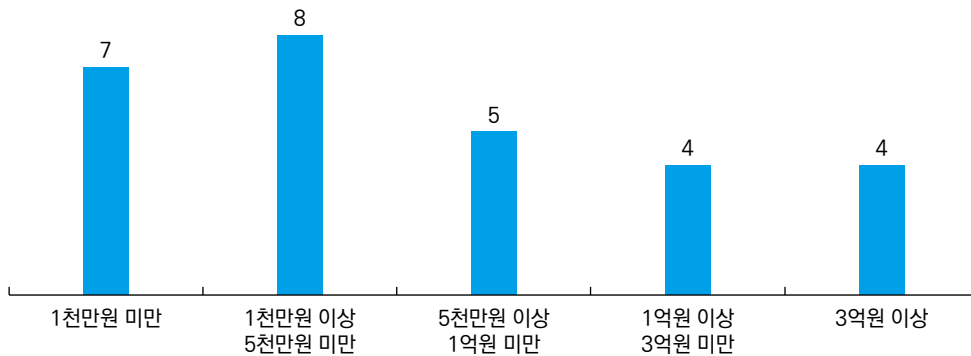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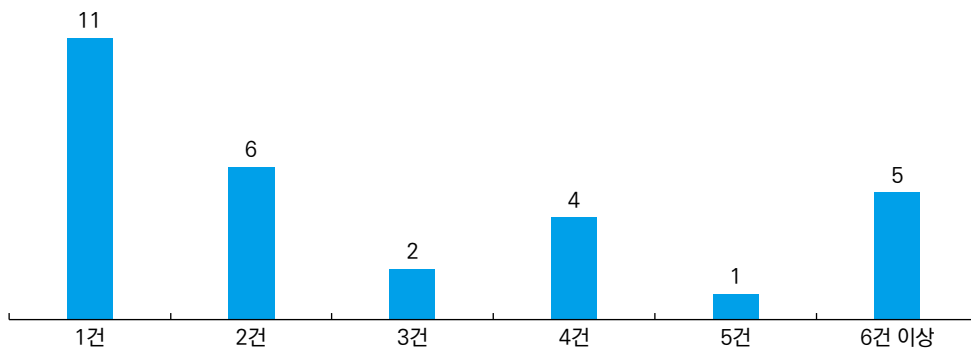


그림 4-7 | 기타재단의 문화예술분야 지원건수별 재단 수

(단위 : 재단 수, n=29)

총 합계 : 113건



## 나. 기타재단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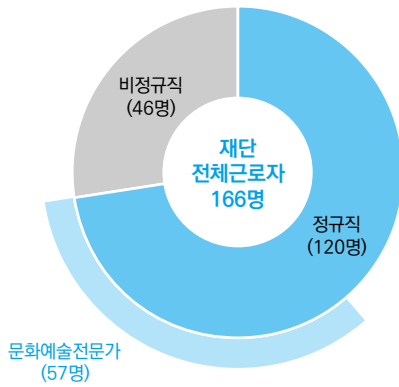
### 1) 응답재단 특성

- 설문에 응답한 38개 재단 특성을 살펴보면, 개인이 출연한 재단이 다수이며, 소규모 조직체로 구성된 경우가 많고, 소재지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 ‘개인’ 출연이 34개(89.5%)이며, ‘기관/단체’ 출연은 4개(10.5%)로 대학교, 예술단 등임
  - ‘2000년대’ 설립된 재단이 20개(52.6%)이며, 최근 설립된 ‘2010년대’ 재단은 1개사임
  - 정규직 5명 이하의 소규모 조직체로 구성된 재단이 33개(86.8%)이고, 문화예술전문가가 근무하고 있는 재단은 20개(52.6%)임
    - 38개 재단의 전체 근로자 수는 166명, 이 중 정규직은 120명이며, 정규직 중 문화예술전문가는 57명으로 정규직의 48%가 문화예술전문가임
  - ‘서울’에 위치한 재단은 26개(68.4%), 경기도까지 포함한 수도권은 28개(73.7%)임
    - 수도권 이외에서는 ‘전라남도’가 6개사로 가장 많음
  - 기본재산출연금미 ‘10억 미만’인 재단이 21개(55.3%), ‘50억 이상’은 5개(13.2%)임

표 4-20 | 응답 기타재단 일반정보

구분		재단 수	비중(%)
설립자 유형	개인	34	89.5%
	기관/단체	4	10.5%
설립연도	2000년대 이전	17	44.7%
	2000년대	20	52.6%
	2010년대	1	2.6%
재단 인력규모	정규직 1명 이하	20	52.6%
	정규직 2~5명	13	34.2%
	정규직 5명 이상	5	13.2%
문화예술전문가	근무하고 있다	20	52.6%
	근무하고 있지 않다	18	47.4%
소재지	수도권	28	73.7%
	수도권외	10	26.3%
기본재산출연금	10억 미만	21	55.3%
	10억 이상~50억 미만	10	26.3%
	50억 이상	5	13.2%
	무응답	2	5.3%
전체		38개 재단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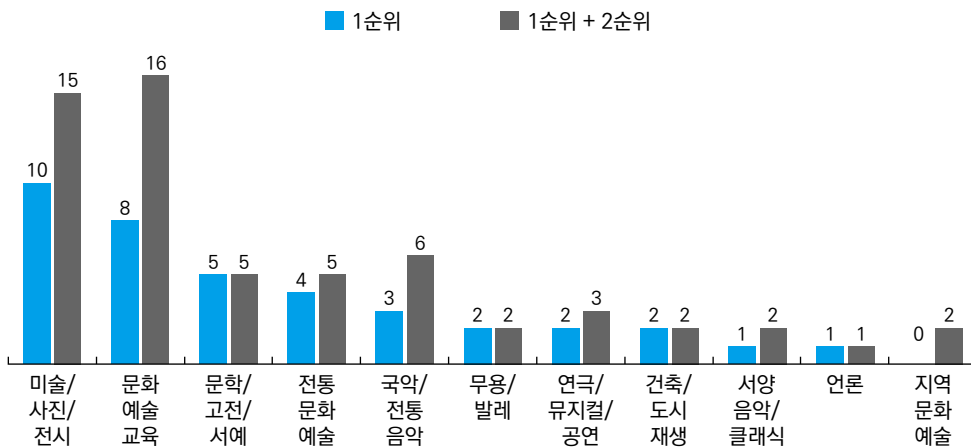
그림 4-8 | 기타재단 근로자수 및 소재지



## 2) 주 사업분야

- 응답 기타재단의 주 사업분야는 ‘미술/사진/전시’ 혹은 ‘문화예술교육’이 많음
  - 1순위 기준에서 재단의 주 사업분야로는 ‘미술/사진/전시’가 10개사로 가장 많고, 그 다음 ‘문화예술교육’ 8개사임
  - 1순위+2순위 기준으로는 ‘문화예술교육’ 분야가 16개사로 가장 많고, 그 다음 ‘미술/사진/전시’가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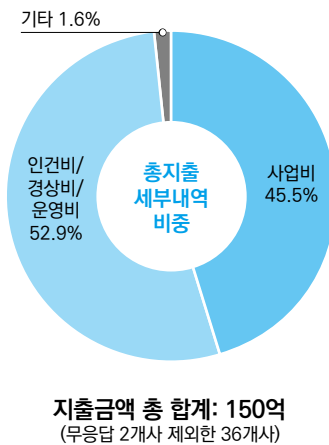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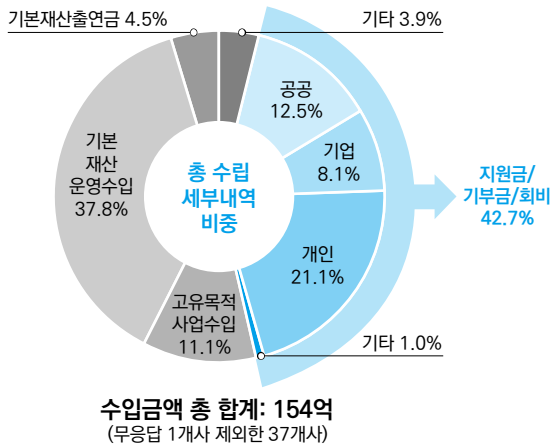
그림 4-9 | 기타재단 주 사업분야



### 3) 수지현황

- 응답 기타재단의 2014년 수입금액 총합계는 154억 원, 지출금액 총합계는 150억 원임
  - 수입 내역 비중을 보면, '지원금/기부금/회비' 비중이 42.7%로 가장 높고, '기본재산 운영 수입'이 37.8%로 그다음 높음
    - '지원금/기부금/회비' 내에서는 '개인' 비중이 가장 높고, 그다음 '공공', '기업' 등의 순임
    - '기타'(3.9%)에는 '저작권 수입', '배당 수입' 등이 있음
  - 지출 내역 비중을 보면, '인건비/경상비/운영비'가 52.9%, '사업비'가 45.5% 비중을 차지함
    - '기타'(1.6%)에는 '이월금', '이자비용' 등이 있음

그림 4-10 | 기타재단 2014년 수지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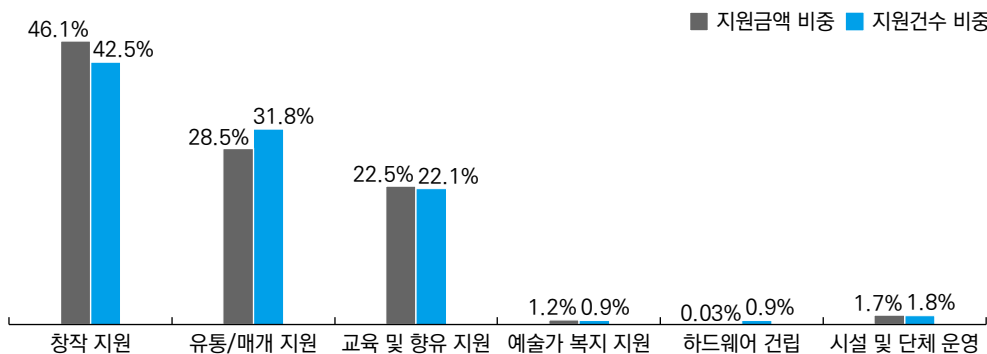


## 다. 기타재단 지원활동 세부현황

### 1) 지원유형 및 장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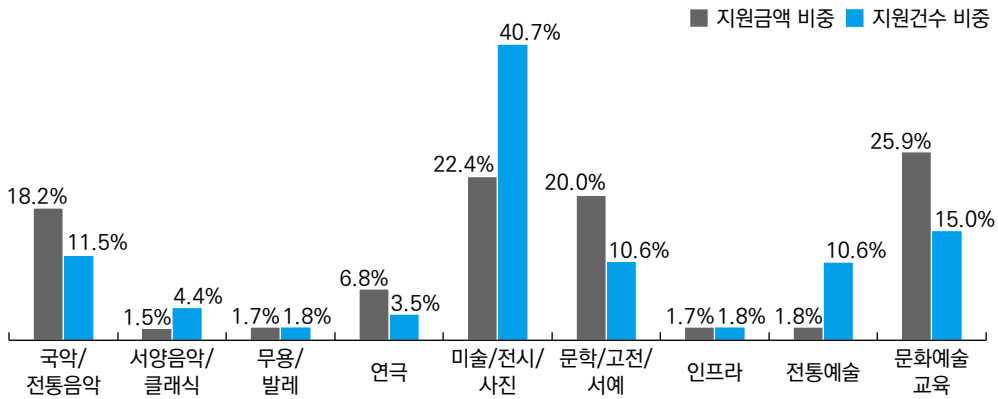
- 2014년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을 진행한 29개 재단의 113건 사업에 대한 유형을 살펴보면, ‘창작 지원’, ‘유통/매개 지원’, ‘교육 및 향유 지원’ 순임
- ‘창작 지원’ 사업유형이 지원금액 비중(46.1%)과 지원건수 비중(42.5%)에서 모두 가장 높으며, 그다음 ‘유통/매개 지원’, ‘교육 및 향유 지원’ 순임
  - ‘창작 지원’ 사업에는 사진전이나 음악 프로그램 등에 직접 지원, 문학상, 국악상 등의 시상,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 등의 사업 활동이 진행
  - ‘유통/매개 지원’에는 음악회, 연극대회, 전시회 등의 행사 지원과 미술관 지원 등의 사업 활동이 진행
  - ‘교육 및 향유 지원’에는 문화예술 관련 아카데미 지원, 일반인을 위한 기획전시 지원 등의 사업 활동이 진행
- ‘창작 지원’, ‘유통/매개 지원’, ‘교육 및 향유 지원’ 사업과 비교했을 시, 상대적으로 ‘예술가 복지 지원’, ‘하드웨어 건립’, ‘시설 및 단체 운영’ 사업은 지원금액 비중과 지원건수 비중 모두 낮음

그림 4-11 | 기타재단 지원사업 유형



- 사업 113건에 대해 장르별로 살펴보면, 지원금액 비중으로는 ‘문화예술교육’이 가장 높으며, 지원건수 비중으로는 ‘미술/전시/사진’이 가장 높음
- 지원금액 비중으로 보면, ‘문화예술교육’(25.9%), ‘미술/전시/사진’(22.4%), ‘문학/고전/서예’(20.0%), ‘국악/전통음악’(18.2%) 순임
- 지원건수 비중으로 보면, ‘미술/전시/사진’(40.7%), ‘문화예술교육’(15.0%), ‘국악/전통음악’(11.5%) 순임

그림 4-12 | 기타재단 지원사업 장르



## 2) 지원방식

- 사업 113건에 대한 지원방식을 살펴보면, 자체 사업이 많으며, 조건부 기부는 미미. 한편,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비금전적 지원도 이루어짐
  - 자체적으로 기획, 운영(주최)한 사업이 89건으로 전체 사업건수의 78.8% 비중을 차지함
    - 자체기획(운영)한 경우에는 '창작 지원'이 42건으로 가장 많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통/매개 지원'이 14건으로 가장 많음
    - 장르에서는 '미술/전시/사진'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운영)한 경우가 39건으로 가장 많음
  - 현금만 지원한 경우는 84건, 현물만 지원한 경우는 28건, 현금과 현물 동시 지원한 경우는 1건임
    - 현금지원은 '창작 지원'이 47건으로 가장 많으나, 현물지원은 '교육 및 향유 지원'이 18건으로 가장 많음
    - 현물만 지원한 경우의 건당 평균 지원금액은 970만 원임(현금으로 환산)
  - 조건부 기부는 5건으로 전체 사업건수의 4.4% 비중을 차지함
    - 5건의 총 지원금액은 1억 3,100만 원으로 전체 지원금액의 3.0% 비중을 차지함

표 4-21 | 기타재단 지원사업 지원방식

구분		지원건수	비중
자체 기획(운영) 여부	예	89	78.8%
	아니오	24	21.2%
지원내용	현금만 지원	84	74.3%
	현물만 지원	28	24.8%
	현금과 현물 동시 지원	1	0.9%
조건부 기부 여부	예	5	4.4%
	아니오	108	95.6%
전체		113건	100%

그림 4-13 | 자체기획 여부에 따른 사업유형 및 장르

(단위 : 사업건수)

■ 자체 기획 여부 예(89건) ■ 자체 기획 여부 아니오(24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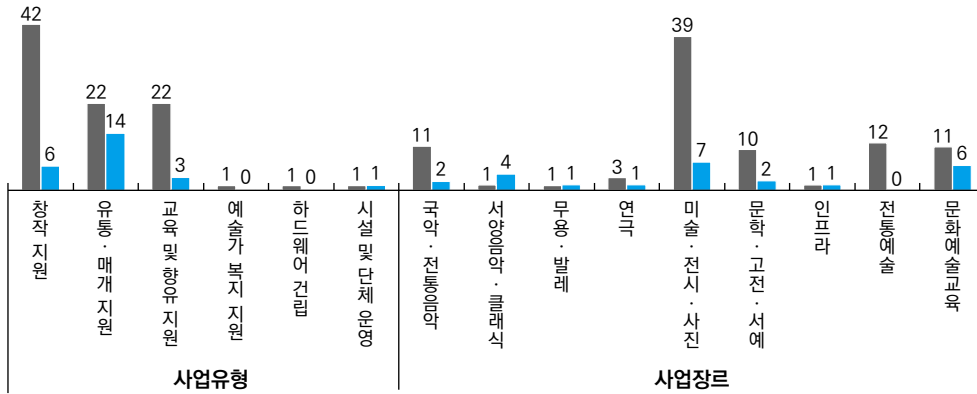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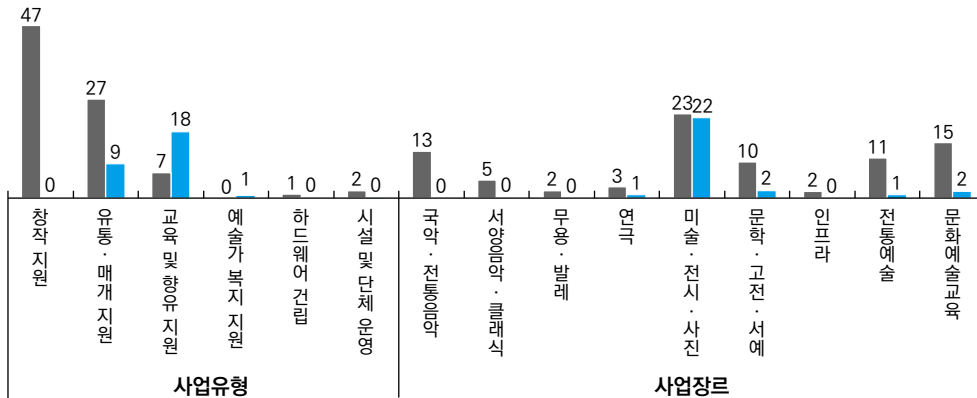


그림 4-14 | 지원내용에 따른 사업유형 및 장르

(단위 : 사업건수)

■ 현금 지원(84건) ■ 현물 지원(28건)



※ 현금과 현물 동시 지원한 경우는 1건으로 '창작 지원' 유형의 '미술/전시/사진' 장르 사업임

## 4. 개인일반기부 지원규모

### 가.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개인기부금 총규모

- 2014년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개인기부금 규모는 총 77억 3,000만 원임
  - 전문예술법인에 대한 개인기부금은 57억 원으로 전체 액수의 73.6%, 전문예술단체에 대한 개인기부금은 20억 원으로 전체 액수의 26.4%를 차지함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개인기부금 규모는 전년대비 32.6% 감소함 (2013년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개인기부금 규모는 총 114억 6,200만 원)
    - 전문예술법인에 대한 개인 기부금액은 전년대비 44.2% 감소하였으나, 전문예술단체에 대한 개인 기부금액은 전년대비 60.9% 증가함

표 4-22 | 전문예술법인·단체 개인기부금 규모

지정형태	2014년		2013년		전년대비 변화(%)
	개인기부금 (백만 원)	비중 (%)	개인기부금 (백만 원)	비중 (%)	
전문예술법인	5,687	73.6%	10,192	88.9%	-44.2%
전문예술단체	2,043	26.4%	1,270	11.1%	60.9%
총	7,730	100%	11,462	100%	-32.6%

- 법적 형태별 기부금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사단법인’이 41.6%, ‘재단법인’이 32.0% 비중을 차지함
- 활동 유형별 기부금 세부현황을 보면, ‘공연단체’가 66.6% 비중으로 가장 높으며, 소속/지역별 기부금 세부 현황을 보면, ‘서울’이 40.4% 비중으로 가장 높음



표 4-23 | 전문예술법인·단체 개인기부금 상세 현황

구분		개인기부금(백만 원)	비중(%)
법적 형태	재단법인	2,471	32.0%
	사단법인	3,216	41.6%
	임의단체	2,043	26.4%
활동 유형	공연단체	5,146	66.6%
	공연장 운영단체	1,059	13.7%
	전시기획 및 전시장 운영단체	232	3.0%
	지원기관 및 기타단체	1,293	16.7%
소속/지역	문화체육관광부	1,454	18.8%
	서울	3,122	40.4%
	경기	206	2.7%
	인천	100	1.3%
	대전	68	0.9%
	충북	84	1.1%
	충남	26	0.3%
	강원	427	5.5%
	광주	255	3.3%
	전북	283	3.7%
	전남	195	2.5%
	부산	423	5.5%
	대구	230	3.0%
	울산	78	1.0%
	경북	73	0.9%
	경남	698	9.0%
	제주	10	0.1%
	총	7,730	100%

## 나. 예술나무운동 정기 후원금 총규모

- 2014년 예술나무운동 정기 후원을 통한 개인기부금은 총 2억 5,8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230.8% 증가함
  - 개인후원자 수는 총 1,494명, 후원자의 후원비 납입건수는 총 12,650건임
    - 1인당 평균 납입금액은 약 17만 원(258백만 원/1,494명)이며, 월단위로 환산 시, 약 14,420원(17만 원/12개월)을 정기 후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후원금 유형 중에서는 ‘순수예술 창작 지원’이 후원금 금액, 후원건수, 후원자수 모두에서 가장 많음
    - ‘순수예술 창작 지원’ 후원금(납입금) 비중은 전체 후원금의 78.7%, 후원건수(납입건수) 비중은 전체 후원건수의 67.2%, 후원자수(납입인원) 비중은 전체 후원자수의 72.5%임
  -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성장한 후원금 유형은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살리기’로 납입금액이 700% 증가함

표 4-24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나무운동 개인의 정기 후원금 규모

유형	2014년			2013년			전년대비 변화(%)		
	납입 금액 (백만 원)	납입 건수 (건)	납입 인원 (명)	납입 금액 (백만 원)	납입 건수 (건)	납입 인원 (명)	납입 금액	납입 건수	납입 인원
순수예술 창작 지원	203	8,496	1,083	52	3,579	611	290.4%	137.4%	77.3%
신진예술가 육성	34	2,390	234	17	1,544	196	100.0%	54.8%	19.4%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통합	14	1,413	135	8	751	129	75.0%	88.1%	4.7%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살리기	8	351	42	1	143	28	700.0%	145.5%	50.0%
총	258	12,650	1,494	78	6,017	964	230.8%	110.2%	55.0%

#### 다. 클라우드 펀딩 후원금 총규모

- 2014년에 문화예술분야 클라우드 펀딩 후원금 규모는 총 9억 7,500만 원임
  - 성공 프로젝트 건수는 총 378건, 건당 평균 후원금액은 3백만 원으로 집계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ARKO 예술나무' 클라우드 펀딩 서비스 보다는 영리업체에서 운영한 클라우드 펀딩 서비스가 규모면에서는 더 큼
    - 영리업체 5개사의 업체당 평균 후원금은 1.7억 원(839백만 원÷5), 업체당 평균 지원건수는 70건(350건÷5)임

표 4-25 | 2014년 문화예술분야 클라우드 펀딩 시장규모

구분	후원금		지원건수		건당 평균 후원금 (백만 원)
	금액(백만 원)	비중	건수(건)	비중	
영리업체 - 5개사	839	86.1%	350	92.6%	2
비영리업체 - ARKO 예술나무	136	13.9%	28	7.4%	5
합계	975	100%	378	100%	3





2014

공공·민간 예술지원 실태조사

## 제5장

### 시사점

1. 조사결과의 의미
2.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
3. 조사방법 개선에 대한 시사점





## 1. 조사결과와 의미

### 가. 공공부문

- 2014년 공공부문 예술지원액 총규모는 2조 1,384억 원으로 2013년 2조 348억 원에 비해 5.1%(약 1,035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공공부문 예술지원액의 규모는 전반적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지원 주체에 따라 예술지원액의 조성과 집행에서 다양한 양상을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전체 공공부문 예술지원액의 41.8%인 8,942억 원을 조성하였으나 직접 실행한 사업 예산은 전체 공공부문 예술지원액의 23.9%(5,106억 원)에 불과하여 다른 기관 이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체육관광부의 다른 기관 이전액의 세부 내용을 보면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에 2,889억 원(문예기금 1,740억 원 포함), 광역자치단체에 947억 원으로 나타남
  -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 이전액이 큰 것은 2014년 국고보조사업의 상당부분이 문예기금 사업으로 전환한 데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 예산이 대폭 확대된 데 따른 것임
- 사업실행의 관점에서 보면, 기초자치단체가 전체 공공부문 예술지원액의 34.4%인 7,36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실행 예산은 재원 출처 6,378억 원(전체의 29.8%)보다 982억 원이 더 많은 7,360억 원(전체의 34.4%)이었음
  - 자체 재원에 광역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액이 사업실행 예산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며, 기초문화재단의 실행예산이 포함된 것임
-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과 광역문화재단은 자체 재원보다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된 재원규모가 훨씬 큰 비중을 보이고 있음
  -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은 자체 재원이 885억 원인 데 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2,985억 원을 이전 받아 총 예산 규모는 3,870억 원으로 나타남
  - 광역문화재단은 자체 재원이 348억 원인 데 비해 광역자치단체로부터 1,714억 원,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으로부터 13억 원을 이전 받아 총 예산 규모는 2,076억 원으로 나타남
- 2014년 정부 예산(311조 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지원 예산의 비중은 0.29%인 8,942억 원으로 나타남
- 예술지원 예산을 별도로 산출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0.29%'의 의미에 대한 해석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 특히 '문화예산 2%'라는 국정과제 관련해서는 문화예산의 범주 설정에 따라 그 규모와 의미가 달라지므

- 로 공공부문 예술지원액,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지원 예산 규모와 단순 비교는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2014년 전체 예산에서 예술지원액 비중이 0.59%인 6,505억 원,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0.67%인 7,360억 원으로 정부예산에서 예술지원액의 비중인 0.29%보다는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남
  - 또한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예산(4조 4224억 원)에서 예술지원 예산의 비중은 20.22%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공공부문 예술지원은 지원금 총액에서 안정적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재원 구조에서는 레벨1(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56억 원이 감소한 반면, 레벨2(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 및 지역문화재단)에서는 1,592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에서 1,106억 원(전년 대비 57.4%), 광역문화재단에서 486억 원(30.6%)의 대폭적인 증가가 있었음
  - 이러한 구조 변화는 예술지원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집행보다 소관기관(중간조직)을 통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음을 말해 주며, 적어도 재원 측면에서 볼 때는 예술지원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개입이 완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음
  - 중앙정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조사업 축소라는 정부 재정운용 정책변화에 따라 2014년에 일시적으로 대폭적인 사업 이전이 발생한 결과이므로 일회적 현상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예술지원에 대한 정부 개입의 축소로 해석하는 것은 과잉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한편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 예술지원액의 대폭적인 증가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고갈’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수반되어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광역문화재단의 예술지원액을 보면, 전년 대비 30.6%(486억 원)가 증가한 2,076억 원(신설 충남문화재단 56억 원 포함)으로 나타남
- 자체사업비도 12.6%(41억 원)가 증가한 362억 원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예산에서의 비중은 여전히 17.4%로 낮게 나타남
  - 광역문화재단의 경우 신설 재단이 포함되어 순증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자체사업비보다 외부수탁 및 대행사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그 운영에서 반드시 긍정적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재원 면에서 볼 때 광역문화재단은 외부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재원의 자율성 확보가 재단사업의 자율성 확보에서 중요한 해결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조사된 46개 기초문화재단의 예술지원규모는 1,066억 원, 재단별 평균은 23억 원 정도로 나타남
- 이번 조사에서 일부 재단의 조사가 누락되어 총액의 규모는 조사 결과보다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기초문화재단의 경우 시설 및 단체 운영이 61.0%로 가장 높고, 창작 지원(12.4%), 하드웨어 건립(10.3%), 교육 및 향유 지원(9.7%)의 순서를 보임
- 시설 운영 중심의 기초문화재단에서도 시설 및 단체 운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외에 창작 지원이나 교육 및 향유 지원이 일정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음
- 지원사업 분야별로는 시설 및 단체 운영이 56.7%(2013년 5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교육 및 향유 지원이 14.5%(2013년 11.9%), 하드웨어 건립 13.4%(2013년 20.7%), 창작 지원 10.0%(2013년 7.3%), 유통 및 매개 지원 2.7%(2013년 4.9%), 예술인 복지 지원 1.5%(2013년 1.2%)의 순서를 보였음
- 2013년 ①시설 및 단체 운영 > ②하드웨어 건립 > ③교육 및 향유 지원 > ④창작 지원 > ⑤유통 및 매개 지원 > ⑥예술인 복지 지원의 순서에서 2014년 ①시설 및 단체 운영 > ②교육 및 향유 지원 > ③하드웨어 건립 > ④창작 지원 > ⑤유통 및 매개 지원 > ⑥예술인 복지 지원으로 순위에 일부 변화 발생
- 하드웨어 건립 지원액의 비중이 2013년보다 7.3%p 감소하였으며, 순위도 2위에서 3위로 밀려난 것이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에 해당함
  - 하드웨어 건립 지원액의 감소는 지역문화시설 등 문화분야 하드웨어 보급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고, 저성장 경제의 영향으로 대규모 재정 편성의 어려움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임
- 반면 시설과 단체 운영에 대한 지원액 비중은 꾸준히 확대(2013년보다 2.9%p 증가)되고 있으며, 창작 지원액 비중은 2013년보다 2.7%p, 교육 및 향유 지원 비중은 2.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교육 및 향유 지원은 하드웨어 건립을 제치고 지원액 규모에서 2위를 기록하여 예술지원에서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시설 및 단체 운영의 경우 일시적 집중 투자 방식의 하드웨어 건립과 달리 지속적인 재정 소요를 수반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임

## 나. 민간부문

- 2014년 민간부문 예술지원액 총규모는 1,569억 원으로 나타남
  - 이 가운데 기업 주체 지원액이 1,436억 원으로 전체의 91.6%, 개인 주체 지원액이 133억 원으로 전체의 8.4%의 비중을 차지함
  - 민간부문의 예술지원에서는 기업 관련 지원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인 지원 확대가 필요한 과제로 보임
- 2014년 기업 및 기업재단의 예술지원액 총규모는 1,436억 원으로 2013년 1,352억 원보다 6.2%(84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의 예술지원액은 736억 원으로 전년대비 1.7% 감소한 반면, 기업재단의 예술지원액은 699억 원으로 전년대비 1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의 예술지원액이 감소한 것은 조사대상 기업 수가 535개에서 417개로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이며, 기업별 평균액은 2013년 1.4억 원에서 2014년 1.8억 원으로 소폭 증가한 보아 지원규모가 줄었다고 속단하기는 어려움
- 기업재단의 예술지원액이 증가한 것은 조사대상 재단 수가 29개에서 32개로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나 재단별 평균액도 2013년 20.8억 원에서 2014년 21.8억 원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아 전반적 증가로 볼 수 있음
- 특히 기업재단의 경우 조건부 기부액이 2013년 9.6억 원에서 2014년 24.5억 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기업 및 기업재단의 예술지원에서 특징적인 것은 상위권 기업 및 기업재단 지원금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소수 기업 및 기업재단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임
  - 지원금 기준 Top20 기업의 지원총액이 기업 전체 지원총액의 91.0% 점유
  - 지원금 기준 Top5 기업재단의 지원총액이 기업재단 예술지원액 전체의 86.0% 점유
  - 기업 및 기업재단의 저변 확대가 필요한 과제로 보임
- 기업 및 기업재단의 예술지원유형별로 보면, ‘시설 운영 지원액’이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문화예술단체 지원 25.6%, 지역사회 문화예술활동 지원 13.3%, 기타 예술지원사업 11.0%, 소외계층 문화예술 프로그램 전개 8.8%, 예술가 및 행사의 협찬 또는 후원 5.6%, 예술영재 지원 2.3%의 순서를 보임
- 기업 및 기업재단 외 민간부문의 예술지원은 미미한 수준으로 추정됨
  - 기업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기타재단의 2014년 예술지원액은 총 43억 원으로 기업재단의 예술지원액 699억 원의 16분의 1 수준에 불과함
    - 이는 조사대상 기타재단 64개 가운데 29개 재단의 응답결과를 산출한 것으로 실제 지원액은 43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됨
    - 기타재단별 평균 지원액도 1.5억 원의 소액으로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 20개 재단은 1억 원 미만을 보였음
  - 2014년 기타재단 이외의 개인의 일반기부는 약 90억 원 정도로 추정됨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개인기부금 77.3억 원, 크라우드 펀딩 후원금 9.8억 원, 예술나무운동 개인 정기 후원금 2.6억 원의 순서를 보임
    -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개인기부는 공연단체에 대한 기부액이 전체의 66.6%인 51.5억 원을 차지하여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예술나무운동을 통한 기부금의 경우 조성 금액은 소규모이나 후원자 수가 1,494명으로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어 예술지원자의 저변 확대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

## 2.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

- 본 연구의 핵심 목표는 우리나라 예술지원의 규모와 구조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의 한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란 점에 유의
  - 본 연구는 예술지원의 규모와 구조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 목표임. 따라서 여기에서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기술한 부분도 지원 현황에 대한 인상적 평가가 주를 이루는 한계가 있음
  - 예술지원액 규모와 지원구조에 대한 시계열 자료가 최소한 3년 이상 확보되어야 그 흐름을 파악하여 통계에 기반한 정책 제언이 가능하나 이번 연구는 2년차 연구로서 단순히 전년 대비 분석에 그치고 있어 객관적 분석에 한계가 있음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예술분야 세출예산 계정 정비
  - 현실의 예술지원정책을 토대로 예술지원 현황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제 예술지원 정책의 범주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관계로 현재는 조사팀에서 임의의 기준에 의해 사업의 성격을 분류한 후 집계하는 실정임
    - 정부와 지자체의 문화분야 세출예산은 문화예술, 체육, 관광, 문화 및 관광 일반의 네 범주 아래 세부사업을 배치하고 있는데, 사업에 따라서는 이 연구의 조사대상이 되는 ‘예술지원사업’임을 명시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와 같이 ‘예술지원’에 한정된 조사 분석을 위해서는 지원대상이 되는 ‘예술사업’의 유형과 범주를 통일하는 방향으로 세출예산 계정을 정비하는 일이 중요함
    - 이 점을 고려하여 문화예술분야에서 예술분야를 구분해 내고, 체육이나 관광, 문화관광 일반에서도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 예술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구분해 낼 수 있도록 계정 정비
    - 2013, 2014년도의 1,2차 조사의 사업유형화를 참조하여 각 단위의 세출예산 편성 구조의 재편에 활용(사업 분야와 유형으로 나눈 후 세출 계정 정비)
    - 중장기적으로는 ‘예술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코드를 부여하여 예산서를 작성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이러한 정비는 이 연구에서와 같이 ‘예술지원 실태’를 조사하는 데도 유용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등 예술지원 주체들이 실제 예술지원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면에서도 효과적이라 할 수 있음
- 예술지원과 관련 중기 재정운용 전략의 수립 필요
  - 재원과 지원주체, 지원대상 사업간 매트릭스를 통한 국가 재원관리의 전략적 목표의 설정 필요
  - 다만 이러한 전략적 목표의 설정은 동일한 방식의 조사 자료가 3~4년 이상 축적되어야 가능하므로 차기년도 또는 5년차 조사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끌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함
  - 1, 2차 조사를 토대로 본 예술지원 정책의 중장기 재정 운용 전략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원 주체 기관들의 직접 사업과 위탁 사업의 구분 원칙 재정립

- 예술지원의 규모와 구조에 대한 조사에 '자원'(국고와 지방비, 기금 등)의 흐름에 대한 조사를 결합하여  
야 분석 가능
- 현재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국고와 기금의 역할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2014년도의 경우 다소 돌발적  
으로 다수의 국고사업이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으로 대폭 이전되었는데, 이는 안정적 재정관리 측면  
에서 보면 문제적이라 할 수 있음. 향후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예술지원 재정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광역문화재단의 위탁사업 비중도 정부와 지자체, 지자체와 지역  
문화재단 사이의 재정배분원칙의 재정립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함
- 둘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예술지원 비중에 대한 중장기 방향 설정 필요
  - 본 연구의 최대 미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총괄하여 우리나라 예술지원의 규모와 구조를 파악했다  
는 점에 있음
  - 그러나 공공부문에 비해 민간부문의 조사 자료가 미비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현 단계에서 단순히 지원액 규모의 비교를 통해 예술지원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중 차이  
를 논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음
  - 그렇지만 민간부문 예술지원의 절대 규모가 작고, 그것 또한 소수의 기업이나 기업문화재단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임
  - 특히 예술지원액 규모는 작지만 참여자 수가 많은 '예술나무운동'은 향후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만으로 지원주체 간 역할 분담이나 공공, 민간 협의체 역할을 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데이터가 축적된다면 지속적으로 다양한 이슈가 개발되고 새로운 방향성 모색이 가능하리라  
봄. 따라서 데이터의 축적을 위한 조사 연구의 지속이 중요해 보임
- 민간부문 예술지원액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현재 민간부문 예술지원은 기업 및 기업재단 중심이며, 개인기부는 미미한 수준이므로 이 부분에서  
예술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 민간부문 지원은 자원의 양적 규모보다는 좀 더 많은 기업이나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의 다양화가  
중요
    - 민간부문의 예술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세제인센티브 등 간접지원과 예술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펀드레이징 전략의 컨설팅 필요
    - 특히 개별 예술단체들이 개인으로부터 받는 기부금의 경우, 단체마다 기부금 모금의 목적과 목표 설정이  
중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 전문예술법인·단체 등 세 차원에서 개인기부 모금 확대를 위한 다  
양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공유
    -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각 단위에 맞는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므로 그와 관련 적극적인 컨설팅  
이 필요

- 일본의 재난 관련 지원 사례처럼 사회적 이슈에 예술이 참여하는 과정에 민간과 공공, 예술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민간지원’ 방안 확대 필요
- 시설 및 단체 운영의 경우 재정 포트폴리오 전략 마련이 중요
  - 영국의 포트폴리오 기관 사례처럼 시설이나 단체 운영에서 재원구조는 정부지원금, 민간지원금, 자체수입 등 재원별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중요
  - 민간지원금에서는 기업과 개인으로 나누어 목표 설정
  - 전문예술법인·단체 등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컨설팅 필요
  - 특히 공공 예술기관의 경우 재원다변화 요소를 기관경영평가 지표로 활용하고, 그 결과에 따른 기관 인센티브 제공
- 공공부문 예술지원 실행기관의 정체성 및 자율성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이나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 강화 필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등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들과 광역 및 기초문화재단의 지원사업 운영에서의 자율성 확보가 향후 우리나라 예술지원 정책의 발전을 가능하는 시금석이 될 것임
    - 특히 광역문화재단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 위탁사업 비중이 커 자체의 정체성 정립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자체사업의 비중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전반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2014년 공공부문 예술지원액에서 가장 주목되는 변화가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과 지역문화재단의 실행예산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예술지원에서 이들 기관들의 ‘실질적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말해줌
  - 따라서 그러한 역할 증대에 상응하는 기관의 정체성과 자율성이 확립되어야 단순한 전달자의 지위를 넘어 예술과 문화 생산의 플랫폼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임
  - 예술지원 기관의 정체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예술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둘째, 그를 위한 예술지원 프로그램 기획 역량이 구비되어야 하고, 셋째, 자체 사업 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는 자체 사업 예산의 확보라 할 수 있으나 그 방법론에서는 논의가 분분한 상황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 문예기금 적립금의 고갈 위기로 인해 예술지원사업의 안정적 기획이 어려운 실정이고 광역문화재단의 경우 위탁사업 과다로 인한 정체성 및 자율성 훼손이 심각한 상황임
    - 광역문화재단에서는 ‘포괄보조금’을 선호하고 있으나 국고 보조금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
    - 그렇다고 지방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하는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으로 인해 예술지원액 자체가 축소될 우려가 있음
    -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국고와 지방비, 지역발전특별회계,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예술지원과 관련된 ‘자원’의 구성과 배분이라는 구조적 전환이 있어야 하는 상황임

- 
- 따라서 자원 문제는 중장기 과제로 설정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예술지원 기관 관계자들의 예술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워크숍, 컨설팅을 지속하여 예술지원사업 운영에서 자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소관 예술지원기관과 지역문화재단의 예술지원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연수, 워크숍, 컨설팅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 또한 자원 문제를 포함한 예술지원 정책에 대한 장단기 의제들 중심으로 한 학술행사 및 정책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그러한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제들을 연구과제로 설정하여 새로운 예술지원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임
-

### 3. 조사방법 개선에 대한 시사점

- 조사대상 체계의 안정화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예술지원 재원의 현황과 구조를 파악하는 조사로서 2회차에 걸친 조사를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이원화하여 조사를 수행하였음
    - 공공부문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레벨1),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과 지역문화재단(레벨2)을 대상으로 체계화하여 조사대상이 안정화되었으며, 민간부문의 경우 기업과 개인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직접 조사보다는 다른 기관의 조사 결과를 활용한 조사로서 조사대상에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음
  - 다음 3회차 조사에서는 1, 2회차 조사의 성과를 지속하는 토대 위에서 중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조사대상의 틀을 확정하여 안정화하는 것이 과제임
  - 첫째, 공공부문에서는 레벨1과 레벨2의 큰 구조를 유지하되 레벨2에 기초문화재단을 필수 대상으로 포함하여 6개의 대상 집단으로 안정화
    - 레벨1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레벨2에는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의 6개 집단으로 구성
  - 둘째, 민간부문에서는 기업과 개인의 두 개 집단으로 나누는 것을 기업, 민간문화재단, 개인의 세 개 집단으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
    - 기업 출연 문화재단과 개인 출연 문화재단을 하나의 그룹으로 통합하여 '민간 문화재단'을 기업, 개인과 별도의 조사대상으로 설정
  - 한편 해외 사례와 비교할 경우 정부의 '문화예산'(문화유산,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련 예산)의 개념 적용이 유용하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예술지원'만을 특정한 조사 자료는 외국의 경우 자료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대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직접적인 수치 비교는 매우 유의해야 함
  - 공공부문에서 기초문화재단의 조사는 필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향후에도 꾸준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민간부문에서 기타 문화재단이나 개인기부금에 대한 조사도 당장 만족할 만한 자료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조사를 지속하여야 함
  - 이와 같이 공공부문 6개 집단, 민간부문 3개 집단의 구조를 향후 3년 이상 지속함으로써 조사를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
- 조사 지표의 명확화와 단순화
  - 조사 지표를 명확화하고 조사 방법을 단순화하여 본 조사사업의 연구자가 변경된 상황에서도 안정된 결과값을 도출하는 것이 향후 과제라 할 수 있음
  - 특히 '예술지원'의 개념과 범위를 재확인하여 2016년도 3차 조사부터 조사 체계를 안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조사 지표의 명확화는 앞서 언급한 예술지원 정책 수립과 운영에서 세출예산 계정을 정비하는 일과 병행해야 할 것임

- 3차 년도 조사에서부터는 ‘예술지원’ 개념에 부합하는 사업 판별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차 조사시 참고 매뉴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
- 예술지원액과 재원의 흐름을 연동한 분석 결과 산출 필요
  - 조사 결과의 산출 및 분석에서 ‘자원(財源)’의 흐름을 연동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개선 필요
  - 본 조사에서는 현재와 같이 지원 주체별 예술지원액의 규모와 구조 파악을 기본으로 하되, 국고, 지방비(광역), 지방비(기초), 기금(중앙), 기금(지방), 민간(기업), 민간(개인) 등 자원 속성의 흐름을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조사가 이루어지면 ‘기금 고갈’ 등의 주된 요인 분석 등이 가능할 것임
    - － 특히 광역문화재단의 경우 실행기준 예술지원액을 그 원천 자원별로 분석하게 되면 자체사업의 비중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및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들과의 관계를 질적으로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현재의 ‘출처 기준 지원액’과 ‘실행 기준 지원액’은 전체 지원액의 규모와 구조, 기관 사이의 이전 관계를 밝혀 줄 수 있는 유용한 개념이므로 현행대로 유지 필요





## 부록

1. 조사대상 목록
2. 설문지





## 1. 조사대상 목록

### 가. 공공부문 예산서 조사대상

레벨	구분	조사대상
레벨 1	중앙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광역자치단체 (17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서울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부산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대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인천	강화군, 계양구, 남구, 남동구, 동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옹진군, 중구
	광주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전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울산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세종	-
	경기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강원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원주시,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
	충남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전북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익산시, 임실군, 장수군,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신안군, 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군위군, 김천시,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포항시
	경남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창녕군, 창원시,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레벨	구분	조사대상
레벨 2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 (7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한국문화원연합회
	광역문화재단 (13개)	서울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대구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광주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충남문화재단, 전남문화예술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서울	강남문화재단, 구로문화재단, 마포문화재단, 성북문화재단, 영등포문화재단, 종로문화재단, 중구문화재단
	부산	-
	대구	달성문화재단, 동구문화재단, 수성문화재단, 도심재생문화재단
	인천	부평구문화재단
	광주	-
	대전	-
	울산	고래문화재단
	세종	-
	기초문화재단 (50개)	고양문화재단, 군포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수원문화재단, 안산문화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오산문화재단, 용인문화재단, 하남문화재단, 화성시문화재단
	강원	강릉문화재단, 원주문화재단, 인제군문화재단,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춘천시문화재단, 평창문화예술재단
	충북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충남	당진문화재단, 아산문화재단, 천안문화재단,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전북	부안문화재단, 익산문화재단, 전주문화재단
	전남	목포문화재단, 영암문화재단, 담양문화재단(※2014)
	경북	경주문화재단, 청송문화관광재단, 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4)
	경남	거제문화재단, 김해문화재단, 사천문화재단, 창원문화재단, 통영문화재단, 진주문화예술재단
	제주	-

## 나. 기타재단 조사대상

번호	재단명	번호	재단명
1	가현문화재단 (구, 한미문화예술재단)	33	우학문화재단
2	관해문화재단	34	운보문화재단
3	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	35	원곡문화재단
4	김수근 문화재단	36	원암문화재단
5	남농미술문화재단	37	월전미술문화재단
6	남성문화재단	38	월하문화재단
7	대동문화재단	39	유니버설문화재단
8	동양문화재단	40	유영국미술문화재단
9	박건희문화재단	41	유진음악문화재단
10	방일영문화재단	42	윤이상평화재단
11	방촌문화재단(구, 라인문화재단)	43	익재문화재단
12	백남준문화재단	44	이해량연극 재단
13	백송미술문화재단	45	인주문화재단
14	서보미술문화재단	46	일민문화재단
15	석남미술문화재단	47	장욱진 미술문화재단
16	석은미술문화재단	48	재단법인 아트실비아
17	석주문화재단	49	전통문화재단
18	성강문화재단	50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19	성정문화재단	51	차범석연극재단
20	성천문화재단	52	청암문화재단
21	세계행촌문화예술아카데미재단	53	토지문화재단
22	세화문화재단	54	한국문학진흥재단
23	수림문화재단	55	한국문화교류재단
24	수서문화재단	56	한국문화재단
25	신영예술문화재단 (신영균예술문화재단)	57	한국사진문화재단
26	아산미술문화재단	58	한국전통문화재단
27	아시아미래재단	59	한국판소리문화재단
28	어바인한국문화재단	60	한려공예예술재단
29	영산문화재단	61	한무숙재단
30	예원문화재단	62	향남문화재단
31	옥량문화재단	63	현우문화재단
32	우암문화재단	64	환기재단

## 2. 설문지

### 가. 기타재단 설문지

기타재단의 문화예술 활동 현황조사



#### 2014년 재단의 '문화예술 분야 활동' 현황조사

ID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 내시어 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2014 공공·민간 예술지원 실태조사 연구>의 일부로, 민간부문 문화예술지원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고 향후 예술지원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모든 내용은 오직 통계 분석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대외적으로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 주관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조사 기관:



미디어 리서치  
MillwardBrown

#### 재단 일반 현황

1-1. 재단의 기본 정보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재단명			
② 설립년도		③ 설립자 이름	
④ 설립자 유형	①개인    ②기관/단체 (구체적으로: ex) 학교, 교회, 기업 등)		
⑤ 대표자 이름		⑥ 대표 전화번호	
⑦ 주소	(                      )시/도 (                      )시/군/구		
⑧ 홈페이지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 ( http://                      )		
⑨ 재단 근로자 수	정 규 직 (                      )명 /정규직 중 문화예술 전문가*(                      )명 비정규직 (                      )명		

\* 문화예술 전문가 정의: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학부나 대학원 전공자, 또는 문화예술 관련 기업/기관/단체에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1-2. 재단의 주 사업 분야는 무엇입니까?(주 사업 분야가 하나일 경우에는 1순위 한 가지만 선택)

1순위(                      ), 2순위(                      )

- |            |            |           |             |
|------------|------------|-----------|-------------|
| ① 국악/전통음악  | ② 서양음악/클래식 | ③ 무용/발레   | ④ 연극/뮤지컬/공연 |
| ⑤ 미술/사진/전시 | ⑥ 문학/고전/서예 | ⑦ 전통문화예술  | ⑧ 지역문화예술    |
| ⑨ 영상/미디어   | ⑩ 문화예술교육   | ⑪ 건축/도시재생 | ⑫ 대중음악      |
| ⑬ 언론       | ⑭ 기타(직접작성) |           |             |

## 기타재단의 문화예술 활동 현황조사



1-3. 재단의 기본재산 출연금은 얼마입니까?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1-4. 재단의 2014년(2014년 12월 31일 기준)기준 수지 현황에 관한 사항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① 총 수입 금액 (아래 수입 세부 내역 항목 참고)					

② 수입 세부 내역 (비중 %)	기본재산 추가 출연금		(	%)
	지원금/기부금/회비	공공 (중앙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	%)
		기업	(	%)
		개인	(	%)
		기타 (직접작성 )	(	%)
	고유 목적 사업 수입		(	%)
	기본 재산 운용 수입		(	%)
	기타 (직접작성 )		(	%)
	합계		100%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③ 총 지출 금액 (아래 지출 세부 내역 항목 참고)					

④ 지출 세부 내역 (비중 %)	사업비 (직접 사업비용)		(	%)
	인건비/경상비/운영비 (재단운영 관련)		(	%)
	기타 (직접작성 )		(	%)
	합계		100%	

## 2014년 사업 활동 현황

- ▶ 지금부터 여쭙는 사업 활동 현황은 귀 재단에서 진행하는 모든 문화예술분야 사업이 포함됩니다.  
문화예술분야의 사업 여부가 애매할 경우 고민하지 마시고 모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귀사는 2014년 한 해 동안, 1건 이상의 문화예술분야 사업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실시하였다 ☐ 2-2 설문 진행  
② 실시하지 않았다 ☐ 2-3 설문 진행

## 기타재단의 문화예술 활동 현황조사



2-2. 귀사의 2014년 문화예술분야 활동 현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시작 일을 기준으로 2014년 1월 1일 ~ 12월 31일 중 시행된 모든 활동을 기입해주시고,  
작성 예시 및 작성 안내를 참고하시어 다음 페이지 ▣ 작성표에 기재 부탁드립니다.

### □ 작성 예시

No.	지원활동명/사업명	1) 자체 기획/운영여부		2) 지원방식 (복수가능)		3) 조건부기부 여부		4) 장르 (보기 선택)	5) 유형 (보기 선택)	6) 지원활동 금액 (단위 : 백만원)														
										A. 사업비 (총투입비)			B. 발생수입 (예: 관람료 수입, 후원금 등)			C. 순수지원금 (C=A-B)								
		예	아니오	현금	현물	예	아니오			백	십	억	천	만	백	십	억	천	만	백	십	억	천	만
1	OOO 중창단 지원		○	○			○	②	①			5	0							5			4	5
2	△△ 회화제 지원		○	○	○	○		⑥	⑥		1	0	0			0						1	0	0
3	◇◇ 아트홀 운영	○		○	○		○	⑧	③		3	5	0			1	0	0				2	5	0
7) 총 건수 ( 3 ) 건										총투입비 계			발생수입 계			7) 순수지원금 계								
										5 0 0			1 0 5			3 9 5								

### □ 작성 안내

#### 1) 자체 기획/운영 여부

- 활동을 자체 기획하거나 운영(주최)하는 경우는 “예”,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니오” 선택

#### 2) 지원방식(복수체크 가능)

- 자금일 경우는 “현금”을 선택, 자금 외 인력, 장소, 물품, 장비, 기술 등의 지원일 경우는 “현물”을 선택  
현금과 현물 모두 지원했을 경우에는 “현금”과 “현물” 두 개 모두 선택

#### 3) 조건부기부 여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문화예술 분야로 지정 기탁한 경우는 “예”, 그렇지 않은 경우 “아니오” 선택

#### 4) 장르(보기 선택)

- |            |                |            |          |
|------------|----------------|------------|----------|
| ① 국악/전통음악  | ② 서양음악/클래식     | ③ 무용/발레    | ④ 연극     |
| ⑤ 뮤지컬      | ⑥ 미술/전시/사진     | ⑦ 문학/고전/서예 | ⑧ 인프라    |
| ⑨ 전통예술     | ⑩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 ⑪ 건축/도시재생  | ⑫ 영상/미디어 |
| ⑬ 대중음악/콘서트 | ⑭ 기타(직접작성)     |            |          |

※ 문화 예술 관련 축제나 행사는 그 성격과 가장 유사한 장르로 선택

#### 5) 유형(보기선택)

- ① 창작 지원 : 작품 및 프로그램 지원, 예술인 및 예술단체 지원, 창작공간 및 창작 스튜디오 지원
- ② 교육 및 향유 지원 : 일반인의 예술 향유 지원(ex 찾아가는 문화행사), 생활예술 지원(ex 백일장, 사생대회, 지역문화사랑방), 문화예술 교육(ex 문화교실, 영재교육)
- ③ 자체 시설 및 자체 단체 운영 : 자체 공연장, 미술관 등 예술시설 운영, 자체 공연단체 운영, 자체 예술축제 운영, 자체 예술교육기관 운영, 자체 복합시설 운영
- ④ 하드웨어 건립 : 공연장, 미술관 등 예술시설 건립, 복합시설 건립
- ⑤ 예술가 복지 지원 : 예술인 복지 지원, 예술인 전문교육 지원, 예술인력 양성
- ⑥ 유통/매개 지원 : 예술분야 관련 타 행사, 이벤트, 축제 지원, 국제예술 교류 지원, 예술경영 컨설팅(정보소통 포함), 타 공연장, 미술관 등 예술시설 지원
- ⑦ 도시재생 : 마을 만들기, 전통시장 활성화 등
- ⑧ 기타 (직접작성)

#### 6) 지원 활동 금액

- 개별 재단의 금액은 외부로 공표하지 않음
- 귀사를 포함한 복수 업체가 참여한 프로그램의 경우, 귀사가 부담한 액수만 작성
- 2014년 이전부터 지속해온 사업은 2014년도 금액만 작성
- 현물 지원일 경우 현금으로 환산하여 기재  
현금과 현물 모두 지원한 경우에는 현물 환산금액을 현금액에 더한 후 기재

#### 7) 총 건수/순수지원금 계

- “총 건수”와 “순수지원금 계”가 재단의 2014년 문화예술분야 사업활동에 대한 귀사의 지원규모 임





기타재단의 문화예술 활동 현황조사

■ 작성 표(14개 이상인 경우 별지 사용)

No.	지원활동명/사업명	1) 자체기획/운영여부		2) 지원방식 (복수가능)		3) 조건부기부 여부		4) 장려 (보기 선택)	5) 유형 (보기 선택)	6) 지원활동 금액 (단위 : 백만원)							
		예	아니오	현금	현물	예	아니오			A 사업비 (총부담비)			B 발생수입 (예: 관람료수입, 후원금수입 등)			C 순지원금 (C=A-B)	
										별	영	기	기	기	영		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7) 총 건수 ( ) 건										총 투입비 계		발생수입 계		7) 순지원금 계			

2-3. 귀사가 2014년에 문화예술 지원 활동(사업)을 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재원조성의 어려움
- ② 활동(사업) 수행의 노후우
- ③ 관련 담당자(직원, 부서)의 부재
- ④ 조직 내 의견 충돌
- ⑤ 문화예술분야 정보 부족
- ⑥ 법/제도의 문제점
- ⑦ 기타 (직접작성)

-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접상황	면접원 성명:	면접일시: ( )월 ( )일 ( )시
	응답자 이름 ( )	연락처: ( )

## 나. 크라우드 펀딩 업체 설문지

###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개인의 문화예술 후원 현황 조사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 내시어 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2014 공공·민간 예술지원 실태조사 연구>의 일부로, 민간부문 문화예술지원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고 향후 예술지원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모든 내용은 오직 통계 분석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대외적으로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본 조사지에서 말하는 문화예술분야란, 대중문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업성·대중성과의 연관성이 낮은 순수문화예술 분야를 뜻합니다.

순수문화예술 분야로는 국악/전통음악, 서양음악/클래식, 무용/발레, 연극/뮤지컬, 미술/사진, 문학/고전, 전통예술, 생활예술, 예술교육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콘텐츠(영화/방송/대중음악 등), 언론, 영상미디어, 출판, 디자인, 레저, 체육, 스포츠, 종교, 박물관, 향토문화(농악/동화/민속놀이 등) 등은 본 조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조사기관: 추계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

#### 1. 귀사의 기본정보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체명(名)	
설립년도	
설립자(名)	
대표자(名)	
대표 연락처	
자본금	

2. 귀사의 2013년과 2014년 문화예술분야 프로젝트 현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 시작일을 기준으로 2013년은 2013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2014년은 2014년 1월 1일 ~ 12월 31일 내 시행된 프로젝트)

※ 주의: 사업체의 전체 프로젝트가 아닌, 순수문화예술 카테고리에 속하는 프로젝트에 한해서 프로젝트 건수와 총금액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명칭은 해당 개수만큼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카테고리가 12개 이상이면, 별첨 추가 작성 부탁드립니다.

연도	카테고리 명칭	목표 달성 프로젝트 건 수 (단위: 건)	목표 달성 프로젝트 후원금 총금액 (단위: 백만 원)
2013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3년 합계		총 (     )건	총 (     )백만 원
2014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4년 합계		총 (     )건	총 (     )백만 원

---

## 참고문헌

- 김세훈(2014), 지역문화진흥과 문화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 지역문화진흥 공동학술대회
- 문화체육관광부(2012), 문화예술분야 사업체조사 기초연구
-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3 문화예술정책백서
- 문화체육관광부(2015), 문화체육관광부 비영리법인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아름다운재단(2015), 기빙코리아(Giving Korea) 2015
- 예술경영지원센터(2015), 2015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
- 예술경영지원센터(2015), 예술산업 미래전략포럼: 펀드레이징의 다양화 - 텀블벅
- 전국경제인연합회(2015), 2015년 주요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 한국메세나협회(2015), 2014년 연차보고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1), 지역문화재단의 운영성과 분석 및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4), 2012-2013 공공·민간 예술지원 현황조사
-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5), 2015 중견·중소기업 사회공헌 백서
-

2014  
공공·민간 예술지원 실태조사 연구

발행일	2016년 1월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의	044-203-2717
홈페이지	<a href="http://www.mcst.go.kr/">http://www.mcst.go.kr/</a>
인쇄처	경성문화사

